

碩士學位論文

漢拏山 國立公園의 觀光資源 開發方向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崔 炳 吉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觀光經營學科 觀光經營專攻

金 相 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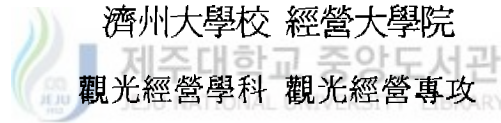
1999

漢拏山 國立公園의 觀光資源 開發方向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崔 炳 吉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11月 日



金 相 佑

金相佑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9年 12月 日

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1節 問題의 提起	1
第2節 研究의 目的	2
第3節 研究의 方法과 範圍	4
第 II 章 觀光資源 開發에 대한 理論的 考察	6
第1節 觀光資源 開發의 基礎理論	6
1. 觀光資源의 概念 및 分類	6
2. 觀光資源 開發의 概念	8
3. 觀光資源 開發의 原理	10
4. 觀光資源 開發의 目標와 基本方向	12
第2節 觀光資源 開發의 段階 및 政策	15
1. 觀光資源 開發計劃의 樹立段階	15
2. 觀光資源 開發과 政策	18
第3節 漢拏山 國立公園 觀光開發의 意義	20
1. 國立公園의 意義 및 起源	20
2. 國立公園의 管理體系	23
3. 漢拏山 國立公園 觀光資源 開發의 意義	24
4. 漢拏山 國立公園 觀光資源 開發의 段階	26
第4節 國立公園 觀光開發事例	27
1. 國內의 國立公園 開發事例	27
2. 外國의 國立公園 開發事例	29
3. 國立公園 開發事例 分析	35

第 III 章 漢拏山 國立公園의 觀光開發 現況分析	37
第1節 漢拏山 國立公園의 立地分析	37
1. 概 說	37
2. 自然環境	39
3. 人文環境	44
第2節 觀光資源 現況分析	45
1. 自然資源	45
2. 人文資源	55
3. 觀光資源 開發現況	57
第3節 利用現況 分析	62
1. 利用客 現況	62
2. 利用 收入現況	67
第4節 生態系 毀損 및 開發의 潛在力	68
1. 生態系 毀損	68
2. 開發의 潛在力	71
第 IV 章 漢拏山 國立公園의 利用行態 分析	73
第1節 調查의 概要	73
1. 標本	73
2. 設問의 構成	73
3. 分析方法	74
第2節 研究模型 및 研究假說	75
1. 研究模型	75
2. 假說의 設定	75
3. 操作的 定義	76
4. 資料의 特性 및 國立公園의 利用	77
第3節 假說의 檢證	89
1. 利用滿足度 및 資源認知度	89



2. 國立公園의 利用行態 및 觀光資源 開發	91
3. 國立公園 訪問客의 特性과 觀光資源 開發	100
第4節 分析結果의 要約	105
第 V 章 結 論	111
參考文獻	113
1. 國內文獻	113
2. 外國文獻	115
設問紙	117
Abstract	123



표 목 차

<표 II-1> 관광개발 정책 과정	20
<표 III-1> 제주지역 기상 개황	41
<표 III-2> 한라산 정상외의 기상 개황	41
<표 III-3> 윗세오름의 기상 개황	41
<표 III-4> 토지이용현황	45
<표 III-5> 토지소유자별 현황	45
<표 III-6> 등산로 코스	58
<표 III-7> 한라산 국립공원내 공원시설 현황	60
<표 III-8> 제주도 관광객 현황	62
<표 III-9> 연도별 방문객 현황	63
<표 III-10> 월별 방문객 현황	64
<표 III-11> 등산로별 방문객 현황	65
<표 III-12> 이용 수입 현황	67
<표 IV-1> 설문의 구성	74
<표 IV-2> 응답자의 특성	78
<표 IV-3> 자연보호대책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	79
<표 IV-4> 공원시설의 이용만족도	79
<표 IV-5>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가치	80
<표 IV-6> 방문하기에 적합한 계절	80
<표 IV-7> 계절형자원의 개발	81
<표 IV-8> 한라산 방문횟수	81
<표 IV-9> 등산코스	82
<표 IV-10> 하산코스	82
<표 IV-11> 국립공원의 방문전 관련정보원	82
<표 IV-12> 제주여행기간	83

<표 IV-13> 한라산 방문시 동행자수	83
<표 IV-14> 동행자와의 관계	84
<표 IV-15> 여행스케줄에 한라산 등반계획 포함여부	84
<표 IV-16> 한라산 국립공원의 방문동기	85
<표 IV-17> 관광시설의 개발에 대한 의견	85
<표 IV-18> 관광개발이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86
<표 IV-19> 관광개발이 방문객 증가에 미치는 영향	86
<표 IV-20> 적합한 개발주체	87
<표 IV-21> 국립공원의 이용만족도에 따른 관광개발에 대한 견해차이	90
<표 IV-22> 관광자원 인지도에 따른 관광개발에 대한 견해차이	91
<표 IV-23> 적합한 방문계절과 관광자원의 개발	92
<표 IV-24> 계절형 관광자원의 개발	93
<표 IV-25> 방문횟수와 관광자원의 개발	94
<표 IV-26> 등산코스과 관광자원의 개발	95
<표 IV-27> 하산코스과 관광자원의 개발	96
<표 IV-28> 동행자수와 관광자원의 개발	97
<표 IV-29> 동행자관계와 관광자원 개발	97
<표 IV-30> 방문동기와 관광자원의 개발	98
<표 IV-31> 여행기간과 관광자원 개발	99
<표 IV-32> 국립공원의 방문계획여부와 관광자원 개발	100
<표 IV-33> 성별과 관광자원 개발	101
<표 IV-34> 연령과 관광자원 개발	102
<표 IV-35> 거주지와 관광자원 개발	103
<표 IV-36> 학력과 관광자원 개발	104
<표 IV-37> 직업과 관광자원 개발	104
<표 IV-38> 가설 검증의 요약	108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의 흐름	5
<그림 II-1> 관광자원의 유형분류체계	8
<그림 III-1> 지형단면도	43
<그림 III-2> 관광자원 현황도	47
<그림 III-3> 공원내 시설 현황도	61
<그림 III-4> 연도별 방문객수	64
<그림 III-5> 계절별 방문객 현황	65
<그림 III-6> 등산로별 방문객 현황	66
<그림 III-7> 훼손지 현황	70
<그림 IV-1> 연구모형	75



第 I 章 序 論

第1節 問題의 提起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경제성장은 우리 인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고 경제발전에 따른 고도산업화는 노동과 여가가 동등의 가치를 갖는 길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¹⁾ 오늘날의 여행은 휴식과 자기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써 현대인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제주지역의 관광산업도 급신장하여 입도 관광객수가 1985년에 100만명을 돌파한 이래 1991년에는 300만명에 도달했고 1996년에는 400만명을 돌파하는 등²⁾ 양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의 관광패턴은 관광객들의 욕구가 다양화됨으로써 유람형이 아닌 체재형 관광, 즉 참여 중심적인 관광형태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자연경관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수준향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으로써 이를 기초로 한 관광개발 전략의 수립 및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³⁾.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객은 계속 증가하여 왔고, 1999년 3월 시작된 금강산 유람선 관광의 시작과 더불어 속초시와 러시아의 포시에트항을 해로로 연결하여 백두산 관광을 가능토록 하는 '동해 백두산 항로'의 개설을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에 협의하는 등 제주관광의 미래는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제주의 관광이 내국인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의 관광미래는 결코 밝지만은 않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있어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 李長春, "韓國의 福地觀光政策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1985, p.2.

2) 濟州商工會議所, 「1998 濟州經濟現況」, 1998, p.122.

3) 金景호, "관광마케팅론" 강의요안, 1997년 2학기.

따라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한라산을 자연경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과 호흡을 함께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주리라 생각된다.

한라산은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 뿐만 아니라 술한 신화와 전설을 간직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생물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각종 희귀 동·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훌륭한 소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한라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지질학적 연구, 동물이나 식물의 분포에 관한 연구, 훼손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의 학술적인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 왔으며, 종합적인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즉, 관광증대를 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第2節 研究의 目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관광수요의 급증에 대응하여 관광공급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더구나 2000년대의 관광은 국제관광의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관광에 있어서도 기회의 형평성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관광에의 100% 참가와 관광횟수도 년 10회 이상 될 것으로 전망이 됨으로⁴⁾, 국민관광은 국민의 복지관광 차원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이는 Manila 선언⁵⁾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더 나아가 국민 최고의 가치라 할 수 있는 幸福權⁶⁾과도 같은 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국민관광 활성화와 함께 질적·양적으로 확대될 관광

4) 尹陽洙·崔英國, “위락생활 특성과 행태변화에 관한연구”, 『國土研究』, 제12권, 國土開發研究院, 1989, pp 39-40. ; 崔鐘先, “五臺山 國立公園의 觀光資源 開發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京畿大學校 大學院, 1993, p.1에서 재인용

5) Manila Declaration on World Tourism, (A)7·(B)3, Manila, 1980

6) 李允求, 『現代觀光學總論』, 탐구당, 1988, pp 13-16.

수요에 대한 대응 및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 자원 활용방안에 그 초점을 맞추어 한라산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과 아울러 국민 보건 휴양 및 여가 활용의 공간으로써의 그 이용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현재의 한라산이 방문객의 급증에 따라 방문객들로 인한 자연파괴 현상과 한라산 자체의 기반암의 취약 및 수많은 계곡과 절벽이 훼손에 민감한 특성을 지닌 까닭에⁷⁾ 등산로 및 그 주변과 한라산 고산지대의 여러 곳에서 황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⁸⁾. 자연보호를 위해서 한라산을 폐쇄하여 방문객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는 있으나, 관광욕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억제된 욕구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표출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지금은 자연환경보호와 국민관광 진흥차원에서 관광개발이라는 과제를 함께 실현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광욕구 충족 및 수요창출과 자연보호와의 관계를 고려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기초이론의 고찰을 통하여 한라산 국립공원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모색한다.

둘째,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여 이의 적정이용 방안과 자연보호의 상관성을 고찰한다.

셋째, 한라산 국립공원의 현황 및 자연훼손 상태의 점검과 아울러 훼손방지방안에 대한 개괄적 접근 및 타 지역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활용의 예를 검토하여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 방향을 모색해보며,

넷째, 이를 토대로 향후 한라산의 관광개발에 대한 방향제시 및 한라산 관광개발의 정책수립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7)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한라산 정상 보호계획」,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1997, p.2.

8) 濟州道, 「한라산」, 제주도, 1994, p.17.

第3節 研究의 方法과 範圍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국내·외의 문헌을 통하여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한라산 국립공원 관광개발의 의의를 조명해 보고, 또한 국내·외의 국립공원 개발사례 및 관리방안을 검토해 봄으로써 한라산 국립공원의 향후 개발방향 및 관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방법은 한라산 국립공원의 향후의 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객의 목적별 유형에 따라 한라산 국립공원 관광개발 방안에 대한 중요도 및 인식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또는 이용행태 등 여러 특성 변수에 따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대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실증적 기초 자료의 모집은 한라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1999년 10월 1일부터 동년 10월 6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개인용 컴퓨터에 의한 전산처리를 하였는데, 가설 1은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그리고 가설 2와 가설 3은 교차분석 및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하였으며, 기타 다중응답에 대해서는 다중응답처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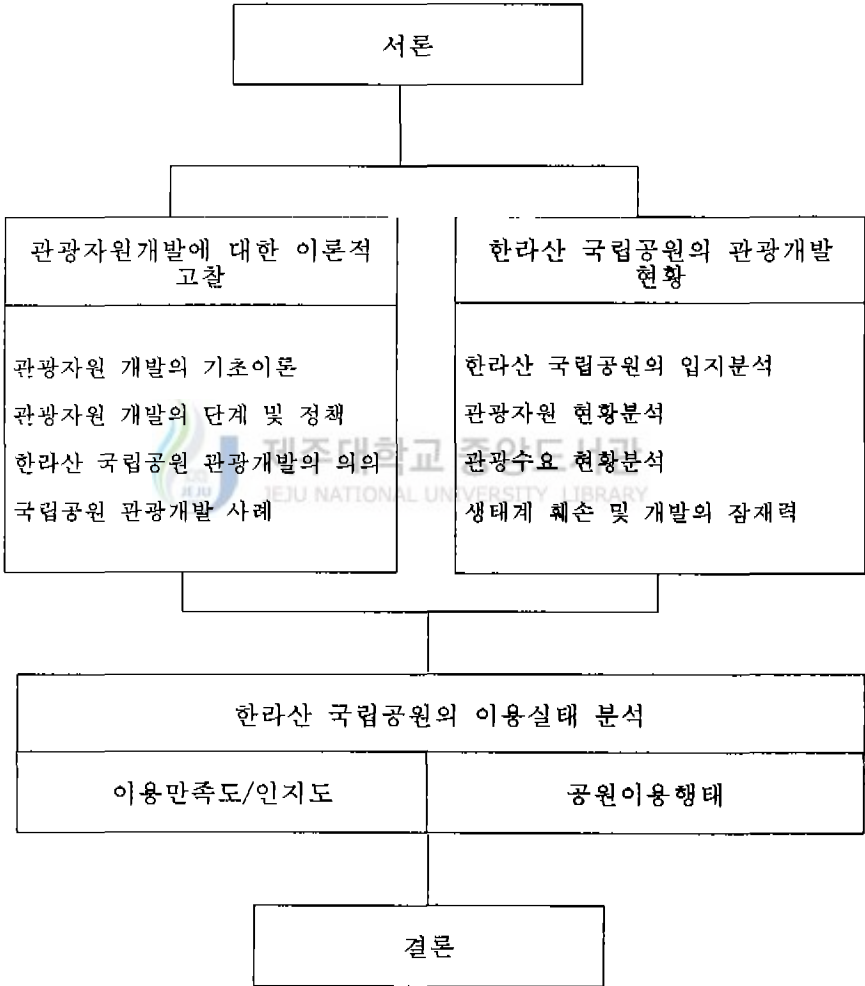
그리고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설문조사가 1999년 10월 1일부터 동년 10월 6일까지 초가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을 가을철에 한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한라산 국립공원 일대의 등산로를 통하여 한라산을 이용하는 방문객에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전체내용을 5장으로 구성하여, 제1장의 서론 부문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범위를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관광자원의 개념과 관광자원개발의 원리와 목표 그리고 그 단계와 정책 등을 포함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아울러 한라산 국립공원 개발의 의의와 국립공원에 대한 국내·외의 개발 사례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라산 국립공원의 입지분석과 아울러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자원에 대한 현황과 관광수요현황을 분석하였고, 또한 한라산의 생태계 훼손 현황과 그 개발의 잠재력에 대해 고찰하였

다. 제4장에서는 제2장의 이론적 고찰과 제3장의 한라산 국립공원 관광개발 현황분석을 토대로 하여 연구의 이론적 모형과 가설의 설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 자료의 모집 및 분석방법과 아울러 분석결과의 검증울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과 연구의 한계 등을 서술하였다.

<그림 I-1> 연구의 흐름



第 II 章 觀光資源 開發에 대한 理論的 考察

第1節 觀光資源 開發의 基礎理論

1. 觀光資源의 概念 및 分類

관광자원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서로가 대동소이하다. 자원이 지니는 질, 양, 시간, 공간 이라는 복합적인 속성⁹⁾으로 인하여 그 농도와 방문객의 의도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관광자원(Tourism Resources)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그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어떠한 매력성을 창출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관광자원은 관광의 대상이 되는 자원을 말하며, 관광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신선미를 추구하는 체험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주는 지구상의 자원은 모두 관광자원이라 규정할 수 있다¹⁰⁾.

그런데 일반 경제용어로서의 자원과 관광산업의 자원과는 전혀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전자의 자원이란 원재료가 되는 자연물을 가리키며 지하자원·삼림자원·수산자원 등의 자원과 같이 어느 것이나 생산과정에서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소비되어 버리는 것이지만, 후자인 관광자원의 경우는 이용되든가 소비됨으로써 사용에 의해 원형이 없어지거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일반산업에 있어서의 자원과 관광산업에 있어서의 자원과는 그 성격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관광자원'이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용법이라 하겠다¹¹⁾

이러한 관광자원의 가치는 관광욕구의 충족과 관련하여 관광행동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가치를 형성하는 것은 탁월한 매력, 다른 곳에는 없는 기이함, 뛰어난 이용가치 등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¹²⁾.

9) A Randal 著·李承來·姜世勳 譯, 「資源經濟學」, 法文社, 1986, p.32.

10) 尹大淳, 「觀光經營學原論」, 白山出版社, 1992, p.427.

11) 金太永, 「現代觀光學概論」, 白山出版社, 1997, p 116

12) 上掲書, p 116

한편, 관광자원의 분류 또한 관광자원의 개념규정에서 보았듯이 관광자원이 다종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분류방법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일본의 津田昇, 末武直義, 일본관광협회 및 국내의 제 학자와 한국관광공사의 분류들이 있으나 이들 분류의 형태 또한 대동소이하다. 이들 분류외에도 자원의 입지에 따른 M. Clawson의 3분류¹³⁾, 이용수준에 따른 분류로는 美國資源調查委員會(ORRRC)의 6분류¹⁴⁾, 자원의 성격에 따른 분류로 Clare A. Gunn¹⁵⁾은 자연자원 의존형, 문화자원 의존형, 인공시설자원 의존형으로 3분류를 하였다 그리고 모든 관광자원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포함시키되 자원개발의 측면과 방문객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이용까지도 고려하여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의 소재지국, 소재지도, 매력물 유형, 매력물 이름, 인위성 정도, 자원의 특징, 자원의 아특징, 자원소 등 8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인위적 계통으로 분류하는 방법¹⁶⁾이 있다.

관광자원에 대한 유형분류의 목적은 관광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의 환경요인 및 요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과 가치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평가할 객관적 단위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관광객들에 대한 유인력과 수용력을 효율적으로 측정하는데 있다¹⁷⁾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관광자원은 물론 잠재적 자원도 함께 고려하여 분류해야만 모든 관광자원이 관광이라는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자원에 대한 분류¹⁸⁾는 먼저 각 자원의 근원이 되는 생성원(Formation Sources)과 자원의 역할과 용도를 규정한 법제(Legislation)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대분류하고, 이를 특성별로 중분류하며, 다시 분류된 각 요인을 목적에 따라 요소별로 구분하는 소분류의 단계를 거치면서 유형별 단위를 결정함이 분류의 목

13) M Clawson and J L. Knetsch, *Economic of Outdoor Recreation* (Boltimore : Johns Hopkins Press, 1966), P12

14) 美國觀光調查委員會(ORRRC)에서는 1962년 觀光活動이 일어나는 場所에 따라 1 고밀도 관광지역(high density recreation area) 2. 일반관광지(general outdoor recreation area) 3 자연환경지구(natural environmental area) 4. 특수경관지역(unique natural area) 5 야생지역(primitive area) 6 역사유적지역(historic and cultural area)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15) Clare A Gunn, *Tourism Planning* (New York Crame Russak, 1979), pp.56-59

16) 박석희, 「신관광자원론」, 일신사, 1995, p 59

17) 김성기, 「관광자원론」, 기문사, 1997, p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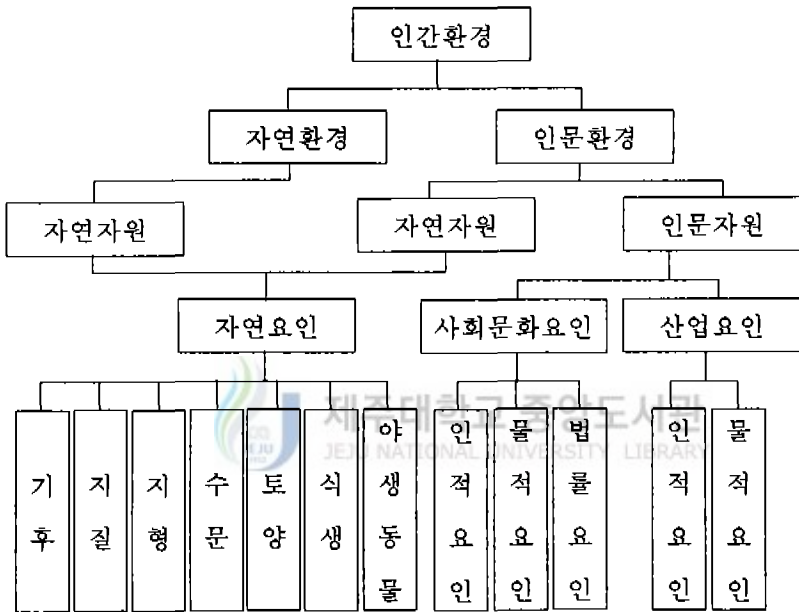
18) 卜掲書, p 79.

적에 가장 잘 접근한다고 생각이 된다

이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환경의 구성요소들은 생성원과 법제에 따라 크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인문환경은 또한 특별한 용도로 지정된 자연자원과 인간에 의해 생성된 인문자원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원을 다음 <그림 II-1>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그림 II-1> 관광자원의 유형분류체계



자료 김성기, 「관광자원론」, 기문사, 1997, P 80

2. 觀光資源 開發의 概念

개발(Development)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연자원이나 인문자원에 인간이 지닌 기술이나 인력·자본 등을 투입하여 그 자원이 지닌 특성적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증대시키려는 일련의 행위¹⁹⁾라고 할 수 있는데, 개발에 대한 여러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자원은 본질적으로 자원의 가치를 지닌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위적 개발이 자원개발(Development of

19) 박석희, 前揭書, pp 101-102

Resources)²⁰⁾인 것이다 개발은 인공에 의한 변화와 필요한 경우 자연 그대로의 보전을 의미하는데, 인위적인 개발은 편의와 능률 추구의 의식이며 보전은 쾌적한 안전의 염원에서 나타나는 인식²¹⁾이며, 개발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는데 초기의 경제적 관점²²⁾에서 보면 경제성장·소득분배·Quality of Life의 추구로부터 풍요(Enrichment)·구조변화(Structural Change) 및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²³⁾으로 전환되면서 궁극적으로 소득과 복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개발을 사회적 차원²⁴⁾에서는 사회의 전반적 향상, 지역개발 면에서는 양적성장·질적변화에 따른 가치지향적 과정²⁵⁾으로, 그리고 지역경제·지역사회·지역사회개발로의 전환이며²⁶⁾, 환경적 측면²⁷⁾에서는 환경의 개선·쾌적한 생활환경 추구를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개념정의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때, 개발은 인위적 효율성과 보전·보호의 가치성 그리고 인간생활에의 행복·풍요 및 국가·지역의 경제·사회의 발전이라는 거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겠다.

관광자원 개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개발이라 함은 주체인 관광객까지 포함하여 관광에 대한 총체적인 개발을 의미하지만, 관광자원 개발은 이에 대한 하위 개념²⁸⁾으로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측면에 걸쳐 관광객의 관광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획적인 변화 추구의 총체²⁹⁾라고 할 수 있다.

Lisle L. Mitchell³⁰⁾은 자연자원과 인위적 시설만을 국한시킨 반면, Chuck Y. Gee³¹⁾

20) 이항구, 前掲書, p.129.

21) 金安濟, 「地域開發과 地方自治行政」, 大明出版社, 1989, pp.11-12.

22) 金英模, 「地域開發學概論」, 녹원출판사, 1991, pp.34-35

23) David Barkin, "Reg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Social Development Review* (No.4, 1972), United Nations, p.84 ; 金英模, 前掲書, p.35 에서 재인용.

24) 金光得, 「현대여가론」, 백산출판사, 1990, p.186

25) 김영섭·이영창·김신욱, "한국의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정책에 관한 연구", 「행정문제」, 제7집,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1986, p.234.

26) 大韓國土都市計劃學會, 「地域計劃論」, 형성출판사, 1991, pp.11-14.

27) John Friedman, *Regional Policy* (Cambridge : The N I. Press, 1975), pp.791-792.

28) 金光得, 前掲書, p.190

29) 尹大淳, 前掲書, p.438.

30) Lisle L. Mitchell, "Future Directions of Recreation Planning", in S. R. Lieber, et al, eds, *Recre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Pennsylvania : Venture Publishing, 1986), pp.323-325.

31) Chuck Y Gee, *The Travel Industry*, (Conneticut The ATI Publishing Co., 1984), p.92

는 자연자원, 문화자원 뿐만 아니라 Recreation 시설, Event, 심리적 갈구까지도 개발의 내용으로 보았으며, 잠재성이 있는 것³²⁾까지도 개발가능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관광자원 개발은 인위적으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과 자연자원·문화자원의 보호·보전 및 적정이용 도모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총체적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관광자원 개발은 보존성과 인위성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은 관광진흥·관광수요의 증대 및 국토개발과 더불어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觀光資源 開發의 原理

관광자원 개발은 그 개발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 또는 지도원리로서의 이념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중요성이 변화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관광객, 자원 그리고 지역간의 관계성을 고려한 다음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³³⁾.

첫째는 公共性의 원리이다. 공공성은 관광자원 개발가와 관광정책 결정자의 도덕적 행위를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으로서 관광자원 개발의 효과가 공공이익에 부합되고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바람직한 여가 문명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³⁴⁾.

관광자원 개발의 효과를 어느 한 측에서 의도적으로 수혜하려고 할 때의 사회 제 단계간의 갈등처리는 사회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이의 과정은 공공성의 윤리에 입각하게 된다.

둘째는 效率性의 원리이다. 관광자원 개발은 관광객의 욕구충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기능은 물론, 지역의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통합한 개념으로 능률성은 단순한 비용과 편익의 비(比)이며, 효과성은 공공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32) 李亢求, 「現代觀光學」, 명보출판사, 1984, p.75 및 金光得, 前掲書, p.190

33) 박종화·윤대식·이종열, 「지역개발론」, 박영사, 1997, pp.28~31 및 李長春, 「최신관광자원학」, 대왕사, 1998, pp.255~261.

34) 李長春, 上掲書, p 255.

이러한 효율성의 개념은 해당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衡平性의 원리이다. 개발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크게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들 수 있는데³⁵⁾, 수직적 형평성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층간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 계층 내에서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자원 개발이 특수지역이나 특수계층 중심으로 행하여진다면 그 파급효과의 부분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단층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지역과 계층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도록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는 民主性의 원리이다. 관광자원의 개발은 그 내용과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절차상의 민주성이란 관광자원 개발의 공개성,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참여방법, 관광자원 개발자의 윤리성,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의 효과가 공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제도가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포함한다³⁶⁾.

다섯째, 經濟性의 원리이다. 경제성의 원리는 서비스의 수준향상과 더불어 비용의 극소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일정비용으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능률성에 가깝다고 본다. 관광자원 개발이 경제적 가치를 유발하여 고용과 소득증대 그리고 소비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시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自治性의 원리이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제대로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문화 가치의 보존, 지역생태계의 보전은 물론 개발과 관련된 개발의 주체, 개발의 자원, 개발 소요재원, 개발에 대한 윤리와 철학의 정립 등 지역 성격에 맞는 개발원리의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環境性의 원리이다. 관광자원 개발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지역개발의 중요한 목표는 지역경제 성장이었다. 이와같은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의 상태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경제성장의 결과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35) 박종화·윤대식·이종열, 「지역개발론」, 박영사, 1997, p 30

36) 李長春, 前掲書, 1998, p.256

수려한 자연경관은 자연 자체가 매력물이고 가치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각 국가에서는 자연보호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적 제도의 실행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³⁷⁾.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³⁸⁾ 체계를 통하여 자연자원의 보호 육성은 물론 유효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국민생활에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4. 觀光資源 開發의 目標와 基本方向

목표란 ‘어떤 일을 완수하거나 어떤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대상’ 또는 ‘개인의 행동이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최종의 결과’³⁹⁾로, 목적을 향해 나가는 행동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항상 이념과 목표수단 연쇄(Ends-Means Chains)⁴⁰⁾를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념설정은 규범이 목표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목표가 아무리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무너지기 때문이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의 목표를 고찰해 보면, 김정배⁴¹⁾는 관광자원 개발의 목표를 관광자원에 인공을 가하여 관광이 가능하도록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관광객의 효과와 개발자층의 효과를 표리관계로 두고 실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7) 미국이 1872년 최초로 옐로스톤 국립공원(Yellow Stone National Park) 제도를 실시한 이후 각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 및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자연공원법(1957), 자연환경보전법(1972), 자연보호헌장(1974), 영국의 국립공원 및 전원 수용법(1949)과 National Trust Act(1907), 호주의 공원법(1891), 서독의 자연보호법(1935)과 녹색헌장(1961), 프랑스의 자연보호법(1976) 등이 일찍 제정되었으며, 스위스(1914), 이태리(1923) 등도 국립공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8) 1981년 자연공원법상 국립·도립·군립공원을 지정,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의 지정에 따른 보호관리, 관광기본법 제9조의 관광자원의 보호조항, 1977년 환경보전법, 1978년 자연보호헌장 제정 및 환경관계입법(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 문화재 보호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39) 이회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0, p.1278.

40) 장성수, “관광정책연구” 강의요안, 1998년 2학기

41) 김정배, 「관광자원관리」, 형설출판사, 1994, pp.278-279.

서태양⁴²⁾은 관광자원 개발의 목표를 관광객의 효과와 개발자측의 효과로 나누어서 관광과 관광산업이 주는 이점이 국민 또는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에 유용한 작용을 한다는 판단하에서 그 목표의 의의를 찾고, 지나친 경제효과만을 노려 관광부재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제외적 효과를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춘⁴³⁾은 관광자원 개발의 목표를 생활의 질 향상과 사회적 형평의 실현을 통하여 복지수준 향상에 두고, 이를 궁극목표·일반목표·부분목표·세부목표로 구분하였다.

Mcintosh & Goeldner⁴⁴⁾는 관광의 편익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도모, 위락시설 제공 및 기반시설 개선, 사회문화적·경제적 환경과 일치하는 개발 프로그램의 확립, 관광객 만족의 최적화를 관광자원 개발의 목표로 들고 있다.

Gets⁴⁵⁾는 관광자원 개발의 목표를 지역사회개발, 유적 및 환경보전, 문화정체성 향상, 인구구조 변화, 사회복지, 그리고 생활의 쾌적성 유지 및 제공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Murphy⁴⁶⁾는 관광객의 관광욕구 충족,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지역발전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관광자원 개발의 목표에 대해 설정된 기준과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살펴보면, 관광자원 개발의 목표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 즉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간적으로 보아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발전 지향적 성격 또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⁴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원 개발의 기본적 목표로서, 첫째 관광공간을 제공하여 관광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며, 둘째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함이고, 셋째 관

42) 徐台洋, 「觀光資源論」, 大旺社, 1995, p.502.

43) 이상춘, 前掲書, 1998, p.461

44) R W Mcintosh & C R. Goeldner, *Tourism '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New York John Willey & Sons, 1990), p.308

45) D Gets, "Model in Tourism Planning ' Towards Integrations of Theory and Practice", *Tourism Management* (Vol 7, No 1, 1986), p.30

46) P E Murphy, *Tourism ' A Community Approach*, (N.Y. ' Metheun, 1987), p.10.

47) 장철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8, p.53

광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넷째로는 관광자원 및 방문객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⁴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물론 관광자원 개발의 목표는 그 개발 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적인 사정에 의해서도 그 목표와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광자원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생활의 질 향상과 사회적 형평의 실현에 있다고 전제할 때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자원 개발 목표로서의 이념뿐만 아니라 관광개발, 관광정책, 관광계획의 이념으로서도 받아들여지고, 복지관광(Social Tourism)의 이념으로도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 관광자원 개발 목표의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양적인 혜택보다는 질적인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어 기회균등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질+가치+복지로 시행되고 있다⁴⁹⁾.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개발을 결코 서둘러 해서는 안되고 목표와 방향을 정한 후 서서히 개발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개발해서는 안되고 개발하더라도 용량의 적정치 보다 오히려 낮은 하위 최적화(Sub-optimization)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⁵⁰⁾ 프랑스의 '라 그랑드 모뜨' 마을은 대부분의 늪지로 황폐한 땅인데도 19년간 개발계획을 면밀히 세워 하나 하나씩 추진하여 '편안히 쉬는 곳'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지금은 연간 5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오늘날 지구촌의 환경전쟁시대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천혜적인 부존자원을 철두철미하게 환경오염과 훼손을 차단하는 설계, 디자인, 관리의 대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한때 관광산업을 가리켜 무공해산업(Clean Industry)이라고 했지만, 환경용량을 따지고 개발계획을 신중히 세우지 않으면 공해유발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상처받기 쉬운 자연상태 환경을 관광목적으로 개발할 때는 환경에 저영향(Low Impact)을 끼치는 개발 시나리오와 생태관광의식을 철저히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⁵¹⁾.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이 지역소득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외부자본의 유입에 신중

48) 김경호·고승익, 「관광학원론」, 형설출판사, 1999, p 443

49) 이광원, "지역관광개발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보문관광단지 개발정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6, p 46.

50) 손대현 외,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일신사, 1995, p.39

51) 上揭書, pp 39-40.

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투자자들, 즉 외부자본은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개발과 보존을 동한시하여 시설위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범해왔다

이와 같이 자연훼손 차단 및 환경오염 방지의 대 원칙하에서 그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방면의 세밀한 연구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그 지역의 자연적·인문적 관광자원에 대한 흡인력을 평가하고, 사학적 측면에서는 사적 기념물 등을 조사하여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의 설치 등 준비를 기하고 지역특유의 풍속·관습 등 전통에 관한 것을 조사 발굴하여 자원화하고, 국토공간의 활용과 생활공간의 쾌적을 기할 수 있도록 차원 높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第2節 觀光資源 開發의 段階 및 政策

1. 觀光資源 開發計劃의 樹立段階

단계는 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⁵²⁾으로 관광자원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래의 행동에 관한 일련의 의사결정을 준비하는 계획이며, 계획의 관리라고 할 수 있다⁵³⁾.

이러한 관광개발계획의 전개과정의 제 단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성수·장혜숙⁵⁴⁾은 이해의 확립, 예비적 입장 기술, 관광연구의 지원, 시장 및 자원분석, 개념계획, 계획의 승인, 종합기본계획, 최종적인 지원, 실행계획, 평가 및 감독으로 구분하였다.

김홍운·김사영⁵⁵⁾은 제1단계 계획의 목적·목표설정, 제2단계 현황조사 및 분석, 제3단계 개발계획 단계로 구분하였다

52) 이희승, 前掲書, p 812

53) 김창수, "지역관광개발계획과정의 집단간 갈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4, p 1.

54) 표성수·장혜숙, 「최신관광계획개발론」, 형설출판사, 1998, pp.152-156

55) 김홍운·김사영, 「관광자원론」, 형설출판사, 1994, pp 325-331.

이장춘⁵⁶⁾은 관광문제 파악, 관광계획 목표의 설정, 관광예측분석, 대안탐색, 타당성분석, 최종 대안선택을 위한 관광계획 평가, 관광계획 최종 대안의 선택, 집행, 평가로 구분하였다.

R. York⁵⁷⁾는 대안선택, 자원요구의 확인 및 결과목표의 정의, 집행, 평가로 구분하였고, R. C. Mill⁵⁸⁾은 배경분석단계, 현황조사와 분석단계, 종합단계, 목표의 설정, 선택, 목적설정단계, 개발계획단계로 구분하였다

위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관광자원 개발계획 과정⁵⁹⁾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계획목표를 설정한다.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계획목표의 설정은 개발방향의 바람직한 지표와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인 편익을 극대화시키고, 또한 환경적, 사회·문화적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계획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가의 명확한 계획이념과 자원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개발계획 목표의 내용은 계획 전제조건과 계획자원의 특성, 계획가의 계획이념들이 상호 복합되어 체계를 이루게 된다.

2) 현황조사 분석

현황조사 분석은 물리적 자원의 여건과 비물리적 관광여건 분석,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단계로 자원개발시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을 발견하여 기본구상 및 부문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여기에서는 관광자원의 현황분석은 물론 관광시장의 분석, 관광형태분석 등 관광수요 및 성향을 전망한다.

56) 李長春, 「관광계획개발론」, 대왕사, 1991, pp 96-104.

57) York Reginald, *Human Service Planning : Concept, Tools Methods* (N. C : North Carolina University Press, 1982)

58) Mill R. C., *Tourism The International Busin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90).

59) 김태연,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한국관광공사, 1995, pp.139-162.

3) 개발계획 기본 구상

개발계획의 기본 구상은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체계를 수립하는 단계로써 자원에 맞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관광활동을 유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주제와 개발방침의 설정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는데, 개발주제의 설정은 자연, 역사, 문화 등의 상징성과 관광에 대한 욕구를 유발시키는 소재, 또는 테마시설 조성 등의 관광적인 요소의 가미 등 개발방침의 중요한 내용을 점유해야 한다.

또한 개발방침의 설정은 관광자원 현황 분석, 관광시장 분석, 방문객 분석 등을 통해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종합하고, 개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골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출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4) 개념계획 및 대안연구

개념계획은 환경여건 분석, 시장여건 분석, 방문객형태 분석,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과 개발계획 기본구상을 종합화하여 자원을 배분·배치하는 계획단계이다 그리고 대안연구는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의 탐색으로 즉, 도입활동, 개발규모, 활동공간을 결정한다.

또한 선택된 대안들의 현실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검토된 대안들 중 최종안을 결정하며 이 최종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최종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시간, 비용, 제 대안들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의해 나타난 결과는 시정 조치로 이어져 목표에 환류시킨다.

5) 관리운영 계획

관리운영이란 관광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관리일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는 관광자원의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 적당한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일련의 인간 및 공간의 질서유지라고 할 수 있다

관광자원과 시설의 보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관광객에게는 흥미롭고 쾌적하며 안전한 관광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일련의 활

동이다⁶⁰⁾.

관광자원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에게 최대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자에게 최대의 이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의 목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리운영 계획 또한 관광자원 개발 계획단계시부터 고려해야 한다.

2. 觀光資源 開發과 政策

‘정책’이란 수없이 많은 표현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결정이며 공공성·행동지향성·미래지향성·목표지향성·정치성 등의 개념⁶¹⁾으로 요약될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하에서 관광자원 개발정책의 개념을 설명하면 관광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의 권위있는 공공기관이 내리는 계획적인 결정이며 정치적인 산물⁶²⁾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자원의 개발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형평의 실현이라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하겠다. 더군다나 관광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그 개발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관광 환경, 즉 국제정치 환경이나 사회·경제적 환경 등이 관광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론 국내의 정치문화나 사회 경제적 제 조건들이 관광정책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관광정책은 그 정책을 결정하는 자나 관련단체의 성격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의 정책방향은 특히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근본을 두어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중·장기의 관광정책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라는 국가적 목표와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관광자원 개발정책 수립이 요구되며, 향후 세계화·정보화 등의 가속화로 인하여 자국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세계적 관점에서 관광자원 개

60) 박석희, 前掲書, p.313

61) 尹大淳, 前掲書, pp 448-449.

62) 上掲書, p 449

발정책이 수립 및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날에 있어서 복지관광⁶³⁾의 등장과 아울러 관광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의 구현 및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과 연관을 맺게 되고, 더 나아가 국제정치 및 경제환경과도 깊은 연계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관광정책은 범위가 다양한은 물론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관광정책은 그 대상이나 범주 그리고 목표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지만, 이로 인하여 그 개념의 복잡성이나 목표가 갖는 구체성의 결여로 인하여 분명한 관광정책목표 설정에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불분명한 목표의 설정으로 인하여 정책 목표 달성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의 설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형성된 정책은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는 재원이 따르게 마련으로 재원 또한 관광정책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관광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는 정책집행 기관 상호간의 관계나 구조, 국민대중의 관심과 지지, 관광정책 집행자의 적극성과 지도력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일반적인 정책의 형성과정은 목표와 수단간의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단계적 과정을 거치는데⁶⁴⁾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과 같다 이들의 각 단계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변환경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 위에 적정자원을 투입하여 실행하고, 역으로 관광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손·익을 정확히 파악하여 형량화하는 방법에 입각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63) 李長春, 「觀光政策學」, 1993, pp.51-53

64) C Jones는 개발규명단계, 정책개발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 정책종결단계 등으로 구분하였다 Charles O. Jones,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2nd ed., (Northscituate, Mass : Duxbury Press, 1977), pp.9-12. 그리고 J. Anderson은 정책의 제설정단계, 정책형성단계, 정책채택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의 5단계로 보고 있다. J Anderson, *Public Policy Making*, (N. Y Nolt, 1984), p 19

<표 II-1> 관광개발 정책 과정

관광개발 정책 과정	주요 내용 분석의 초점
문제인식-관광개발-미래예측	국토종합개발계획과의 조화
대상지역 결정	지역선정의 타당성 관광개발 조건 분석
개발방향 결정	지역 및 지역주민의 특성 관광수요 특성의 적합성
개발주체 결정	기능분담의 효율성
관광수요추정-개발규모결정-수용력추정	개발규모의 적정성
세부계획의 수립	효율성 · 타당성 · 적합성
계획개발 집행	집행수단의 구비 여부
개발효과 측정	효과 측정의 범위

자료 : 윤대순, 「관광경영학원론」, 백산출판사, 1996, p.449

더욱이 정부의 관광에 대한 관여가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⁶⁵⁾ 그 정책방향에 있어서 충동적이며 단기적이고 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에 치중하는 경성관광(Hard Tourism) 정책에서 탈피하여 질적인 개념으로서 경제, 사회, 생태적인 면까지도 고려하는 연성관광(Soft Tourism)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관광개발에 대한 관점은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정책방향은 사려적이고 개발지역에 부담이 없도록 장기적이며, 주민의 개발역량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第3節 漢拏山 國立公園 觀光開發의 意義

1. 國立公園의 意義 및 起源

국립공원이라 함은 자연 공원법 제2조 2항에서 규정하듯이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 풍경지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국립공원 제도는 자연풍경지를 대상으로 국가가 이를 보호, 육성, 관리

65) C. L. Jenkins & B. M. Henry, "Government Involvement in Tourism in Developing Countr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9, No 4, 1982), pp.499-519

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면서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⁶⁶⁾으로 실시되는 공원의 제도이다. 이러한 국립공원은 오늘날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교육적 목적과 봉사의 부여라는 기능이 더해가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의 국립공원의 개념은 관광환경의 변화로 인한 무분별한 인위적 개발로 자연파괴 및 환경의 문제가 발생되어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Green Park' 개념이 생겨나게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의 정의에 따라 비교적 넓은 지역으로 하나 또는 여러 생태계가 인간의 착취나 점령에 의해 실질적으로 점령이 되지 않았거나 식물과 동물의 종들이나 지형학적인 장소 같은 어떤 서식지가 과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혹은 휴양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거나 매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곳을 말한다⁶⁷⁾.

국립공원의 내적 성질은 자원의 구성별 계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자연지역, 역사지역, 레크레이션 지역, 문화지역, 국립수도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⁶⁸⁾, IUCN의 국립공원 체계를 보면 과학적 보전지구, 국립공원, 천연기념물, 자연보호지구와 야생보호지구, 육지와 바다경관 보호지구로 분류하고 있으나⁶⁹⁾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이 가운데 육지와 바다경관 보호지구와 역사지역의 계통에 속한다

국립공원 제도의 발단은 역사적 특성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가치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대부분 개인소유를 배제하고 국립공원 체계의 테두리에서 특별히 지정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자연보호 사상과 생태계의 보호를 근간으로 자연 풍경지의 보호와 적정이용의 도모라는 지극히 이상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의 완전한 실현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오늘날 관광행위가 점차 자연 지향화로 전환되면서 '환경'이라는 용어가 부각되고 이에 따라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고 관찰하는 '환경관광

66) 自然公團法, 1999 2 8. 법률 제5874호, 제1조, 목적

67)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前掲書, p.56

68) 문석기, "구미의 공원 및 여가·레크레이션 환경", 조경학회지 제3권 제3호, 한국조경학회, 1990, pp 90-91.

69) 박문규, "국립공원을 생각한다", 월간 국립공원 제52호, 국립공원 관리공단, 1991, pp 20-21

(Environment Tourism)⁷⁰⁾이라는 새로운 관광형태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관광에 있어서 국립공원과 환경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아 국립공원의 개념을 다시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⁷¹⁾.

첫째, 국립공원은 국민의 이익의 향유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자연공원법 제1조 목적에서는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공원법에서는 ‘국민의 이익과 향유(as a public pleasing ground for benefit and enjoyment)를 위하여’, 1972년 개정된 캐나다의 국립공원법은 ‘국민의 이익과 교육과 향유를 위하여’ 라고 각기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연의 보존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제3조에 공원보호의 의무 조항을 두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특히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공원을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공원입장자 등 방문객 및 공원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자)은 공원자원을 보호, 육성하여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역사적·미적 대상물을 보전한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특성인 산악지대와 경주와 같은 문화적 지역에는 천연기념물 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들을 보호·보전한다.

넷째, 유럽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국립공원의 특징인 학술연구 및 야생동물의 보호에 의의를 두고 있다.

다섯째, 국가의 관리를 받으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공원의 지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자연공원법 제5조 및 9조 17조)

한편, 세계에서 국립공원을 처음 탄생시킨 곳은 미국이다. 엘로우스톤강 상류지방에서 간헐천과 화산, 온천, 협곡, 야생조류 등의 신비스러운 대 경관지를 국가가 보호·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871년 엘로우스톤 공원 설치법을 미국의회에

70) “環境觀光(Environment Tourism)”이라는 것은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관광이 환경의 파괴로 국립공원 지정이 넘어 사라진 점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尾本保邦, “自然と 仲よく”, 『月刊観光』, 제3권 294호, 日本観光協會, 1992, p.4.

71) 최종선, 前掲論文, p.25.

제출하여 통과됨으로써 1872년 3월 법안이 서명·공포되었다. 이로써 세계 최대의 간헐천 지대가 화산협곡과 대폭포 및 광대한 야생동물군 서식지를 포함한 3,348km²의 대자연 경관지역이 세계최초의 국립공원으로 탄생되었다⁷²⁾.

그후 20세기에 들어서 국립공원의 개념과 관련된 국제회의로 1933년 11월 8일 런던에서 아프리카 야생동물 보존 대책회의, 1940년 10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반구의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회의, 1969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국제자연보호연맹 제10차 총회 등이 열려 국립공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세계 각 정부에 권고됨으로써 국립공원 설정의 필요성이 재검토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3월, 당시의 건설부에서 공원법을 제정하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국립공원 위원회가 조직되고 1967년 12월 29일에 지리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그후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태안해안, 다도해 해상,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등을 각각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20개소에 이르고 있다



2. 國立公園의 管理體系

국립공원의 관리는 미국·영국 등의 자연지역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미국의 산림청이나 국립공원 관리청, 영국의 전원위원회) 등이 자연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일관성 있는 접근방법을 채택할 것을 주장해 오면서 발전되어 왔다

이들 기관들의 관리계획에서는 국립공원의 생물적·무생물적 자원들의 다양한 측면들이 법적·행정적 보전과 위락목표라는 기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관계 행정당국의 책임의 본질을 명백히 인식하고 반영하는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구체적인 집행시책도 뚜렷이 제안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관리체계는 국립공원의 도입초기에서 1987년 국립공원 관리공단 발족시까지의 건설부장관이 지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72) 徐台洋, 前掲書, pp 85-86.

(도지사)가 위임권을 행사해 왔으나, 국립공원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립공원의 관리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0호로 공포한 자연공원법 제8장 2에 의하여 1987년 7월 1일자로 국립공원 전문관리 기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개발의 초기 단계인 장기개발계획의 시작단계(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최초 년도인 1962년부터)에서 개발위주의 정책 이념기(2차년도 1967년에서 1975년까지), 보호주의의 정책이념기(1981-1986년)를 지나면서 경제부흥, 국토의 균형개발, 자연환경보호 등의 중점시책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국립공원의 관리청이 건설부에서 내무부를 거쳐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에 있어서 국립공원 제도의 효율성 추구라는 면에서 철저한 보호와 함께 제한적인 이용의 형태로 변화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국립공원 관리체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우선 공원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자연공원법 제15조 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고, 관리공단 직원의 전문성 부족 및 인원수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조사·관리의 전문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재정운영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관리는 물론 문화재와 희귀자원의 보존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형편이다 더군다나 자연공원법을 비롯하여 국립공원과 관련된 산림법, 문화재 보호법, 환경보전법, 그리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이 서로 적용되는 범위가 다원화되어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3. 漢拏山 國立公園 觀光資源 開發의 意義

한라산 국립공원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국민 모두의 휴양 및 휴식공간이다.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수려한 경관과 아름다운 해안 절경,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계절성을 근본적인 조건으로 하여 독특한

제주도의 문화와 온순한 도민정서가 어우러져 있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한다면 보다 더 좋은 휴식·휴양공간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은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부합되고, 제주도의 상징이자 생명 그 자체인 한라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여 한라산의 진가를 내외에 알림은 물론, 자연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여 항구적인 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질적인 인간의 위락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역 관광환경을 고무시켜 지역경제 성장의 기점으로 이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또한 제주도가 다가오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심적인 관광지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데에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숙박·위락시설 등의 확충과 정비, 제주도의 고유성과 전통성의 확보, 경제적 비용의 최소화, 이미지 개선 및 정책적 기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의 관광 수요중 국립공원 수요에서 한라산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은 관광수요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자연림·야수·조수·야생동물들을 보호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줌은 물론 한라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자연 경승지 및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거시적 개발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첫째, 수려한 자연경관의 미에 물리적 힘을 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자연자원과 기타 인문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성계획에 의해 국립공원 본래 기능⁷³⁾의 하나인 위락 및 교육장소 제공의 기능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는 관련 숙박시설 및 교통·위락시설 등의 완비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이용의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한라산에 대한 질적·양적 매력을 부가하는 것이다.

넷째는 관광수요의 충족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야 한다.

73) 국립공원의 기능에는 1. 경관자원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기능 2 학술적 연구자료의 제공기능 3 문화적 자원보호기능 4. 자연교육장소기능 5. 위락공간 제공기능 6 토지의 공적관리 기능 등이 있다 李長春, 前掲書, 1998, p423

다섯째,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대·내외적인 지명도를 고양하면서 전 국민에게 여가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漢拏山 國立公園 觀光資源 開發의 段階

단계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으로 한라산 국립공원 관광자원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래의 행동에 관한 일련의 의사결정을 준비하는 계획이며, 계획의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개발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계획의 수립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일련의 순환과정을 이룬다.

관광자원 개발의 세 가지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한라산 국립공원 관광자원 개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의 설정, 현황조사 분석, 개발계획의 기본구상 수립, 개념계획 및 대안 연구, 관리운영계획 등의 관광자원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최종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절차로서 상향식 관광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기 절차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또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수립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계획은 관광자원 문제 파악의 불규명, 목표와 수단의 전도, 개발에 따른 미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의 부재, 지역주민들이 소외당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한라산 국립공원에서의 관광자원 개발의 실행단계에서는 개발계획의 이념과 목표가 달성되도록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념과 목표가 표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파괴, 수용태세의 미비, 개발의 방향성 미비 및 보존대책의 구체성 및 실효성의 부재 등 한라산 관광자원 개발의 역작용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셋째, 평가단계에서의 평가란 계획의 내용, 실행의 효율성 및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수정·사정 또는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⁷⁴⁾, 계획의 설계·집행·수정·확대실

74) James F Anderson, *Public Policy Making*,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75), pp 132-133

시·종결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그 관광개발의 효과로써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第4節 國立公園 觀光開發事例

1. 國內의 國立公園 開發事例

1)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또한 한라산 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 반도의 최북부분인 태백산맥 그 동북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설악산 국립공원이다. 해발 1,708m의 대청봉을 중심으로 남에는 오대산, 북에는 금강산이 이어진다 총면적은 373km²에 이르는데, 동서를 가르는 분수령을 경계로 내설악·외설악이라 부른다

설악산의 특징은 봄의 철쭉,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을 꼽을 수 있는데, 설악산의 자연경관으로는 제일 높은 대청봉을 비롯해 소청봉(1,580m)·가리봉(1,529m)·저항령(1,430m)·미등령(1,327m) 등 28개의 산봉우리와 울산암·만상대·비선대·흔들바위 등 기암 15개, 천불동계곡·수령동계곡·백담사계곡 등 58개의 계곡이 있다 또한 대승폭포·비룡폭포·쌍폭포·설악폭포 등 폭포수가 28개를 헤아리지만 장마철에는 기암절벽에 걸리는 폭포가 수없이 많아 설악산을 1만 2천 폭이라 부르기도 한다 온천으로는 오색온천과 척산온천이 있으며, 문화재로는 보물인성국사지 3층 석탑과 향성사지 3층 석탑을 비롯해 신흥사 극락보전 등 지방문화재 8점이 있다. 사찰로는 신흥사·백담사 등 4개의 절과 계조암·봉정암·오세암 등 8개의 암자가 있다.

한편, 설악산 또한 수많은 동·식물들이 사는 자연생태의 비경을 지니고 있는데, 천연기념물인 사향노루·산양·하늘다람쥐·반달곰·까막딱다구리 등 포유류 35종·조류 62종·양서류 10종·파충류 11종이 있으며, 식물로는 털진달래·눈잣나무 등 균락종 8종, 백작약 등 희귀식물 46종, 특산식물 64종 및 일반종 693종을 헤아리고

있다⁷⁵⁾.

설악산 국립공원은 천혜의 자연공원으로 매년 400만명 이상이 찾고 있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쓰레기 처리,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탐방객 안전관리 등 탐방객을 위한 업무에 주력하고, 특히 등반객의 조난 및 산악 사고자 구조를 위해 각종 장비와 정예직원으로 설악산 관리구조대(16명)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지구 15개소에 대한 특별관리 및 안내판 50개소 철난간 21개소 등 각종 위험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탐방코스는 소공원-비선대-금강굴-비선대-소공원의 거리 7km의 코스, 오색약수-용소폭포-십이폭포-오색폭포의 거리 5.6km의 탐방코스 및 장수대-대승폭포-장수대의 거리 1.8km의 코스 등이 있다.

공원내의 숙박시설⁷⁶⁾로는 26,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국제적 수준의 특급관광호텔 2동을 비롯 여러 개의 호텔과 유스호스텔 1동, 콘도미니엄 2개소, 여관 80동 등이 있으며, 그 외 온천지구에도 여러 숙박시설이 있다.

그리고 설악동에는 설악산을 찾는 내외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루목 고개를 중심으로 한 8만 5백평에 관광집단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2) 오대산 국립공원

오대산은 예로부터 삼신산과 더불어 국내 제일의 명산으로 꼽던 聖山이다. 해발 1,563m의 비로봉을 주봉으로 하여 동대산(1,432m)·두노봉(1,421m)·상왕봉(1,493m)·호령봉(1,560m) 등 다섯 봉우리가 병풍처럼 늘어서 있고 노인봉 아래로는 천하의 경승 소금강이 자리한다

강원도 명주군·홍천군·평창군 등 3개 군에 걸쳐 있는 오대산은 1975년 2월 1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면적이 298.5km²에 달한다.

울창한 삼림에 걸맞게 그 일대에는 식물분포가 다양하고 각종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주요 식물로는 비로봉 주위의 눈썹백나무·주목나무 군락, 동대산 일대의 신갈나무 군락, 두노봉에서 상왕봉에 이르는 능선에 피어있는 철쭉·금강초롱 등이 있으며, 또한 각종 고산식물 217종이 분포하고 있다. 동물로는 멧돼지·사향노루·오

75)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1995년 봄호, p.14.

76)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색딱다구리·칼새 등 포유류 142종, 조류 35종, 곤충 474종, 담수어 20종이 서식하고 있어 한라산과 함께 동·식물 분포의 보고로 일컬어지고 있다⁷⁷⁾. 뿐만 아니라 상원사 동종·상원사 문수 동자상·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등 국보 3점, 상원사 증창권선문·문수동자 복장품·석조보살좌상 등 보물 3점을 비롯 적멸보궁 등 지방문화재와 열목어·산천어 등 천연기념물 등이 오대산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재산이다. 이외에도 월정사·상원사를 비롯한 여러 고찰들과 여기에 얽힌 일화들이 오대산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

폭포로는 구룡폭포·낙영폭포 등 13개가 있으며, 비로봉·동대산·노인봉 코스 등 3개의 등산로가 있다.

숙박시설⁷⁸⁾로는 여관·여인숙·민박 등을 포함하여 약 1,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용평종합휴양지내에는 호텔·콘도미니엄 등 약 2,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고, 이외에도 대관령 휴양과 국제 스노벨리 등의 숙박시설이 있다. 그리고 야영장이 3개소 25,000평이 있으며, 용평리조트내에 골프장·수영장을 비롯한 레저스포츠 시설 및 리프트 시설 등이 있다.

오대산 국립공원을 찾는 방문객수는 1990년도에 약 66만명에 달하였고 점차 그 이용이 증가하여 현재는 약 8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의 이용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⁷⁹⁾.

2. 外國의 國立公園 開發事例

1) 미국의 옐로스톤(Yellowstone) 국립공원

옐로스톤은 1872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세계의 국립공원의 시원이 되는 중요한 곳이다. 그 규모가 남북으로 1백km와 동서로 90km나 되는데⁸⁰⁾ 우리나라의 충청북도 만한 넓이로 그 규모만으로도 세계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생태적

77)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1995년 겨울호, p 68.

78) 오대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79) 오대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80) 이는 약 9,000km²로 미국내 최대이며,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면적 6,440km²보다도 훨씬 큰 규모이다

으로나 지질학적으로도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엘로스톤 국립공원은 미국 대륙의 중서부 로키산맥 줄기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와이오밍주, 아이다호주 및 몬태나주에 걸쳐 있고, 95% 이상이 와이오밍주에 속해 있다.

한편, 평균고도는 해발 2,600m이나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높다는 느낌을 거의 느낄 수 없다. 연간 강수량은 635mm로 주로 눈에 의한 것이며, 1월 평균기온이 -7.7℃, 7월은 16.9℃로 눈도 많고 약간 추운 편이다.

이 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열수작용 현상으로 약 1만개에 달하는 간헐천 및 온천 못이다. 이들은 분출하는 간헐천과 단구(Terrace) 형성샘, 흐르는 화산분기공, 끓는 연못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진흙연못 등 그 형태가 다양하며, 한 마디로 엘로스톤 공원 전체가 화산현상과 온천·간헐천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1870년에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충실히 규칙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은 Old Faithful인데, 이곳은 평균 65분 간격으로 1회 4분간 90℃를 넘는 열탕을 50m까지 분출하여 구경꾼을 황홀하게 한다.

엘로스톤은 이러한 간헐천을 비롯한 열작용 외에도 미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야생동물의 보고이다. 곰을 비롯하여 북미산 큰사슴, 들소, 물소, 사슴, 산양, 이리 및 무리를 지어 다니는 수십 종류의 포유류는 모두 야생하며, 또한 수백 종류의 조류와 어류, 특히 송어가 개울, 강, 호수에 다량 서식한다

한편, 멸종된 지 70년만에 늑대가 다시 엘로스톤 공원에 살게 되었는데, 1920년 늑대에 의한 가축피해 때문에 농장주들의 무차별적인 총질이 가능한 늑대 박멸안이 연방 정부로부터 허가된 이후 6년 뒤에는 그 씨가 말라 버렸으나, 늑대를 다시 살리려는 환경주의자들과 야생동물 보호처의 노력으로 마침내 1995년 1월 13일 엘로스톤 공원에 야생늑대를 풀어놓아 주었다. 앞으로 해마다 늑대 15마리씩 2002년까지 약 250마리쯤으로 늘려 놓을 계획⁸¹⁾이라 한다.

1988년의 대 화재로 울창한 소나무림과 많은 야생동물들이 희생이 되어 식물생태계는 거의 파괴되고 초식을 주로 하는 야생동물들의 먹이사슬에도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었다. 부분적으로 어린 나무를 식재하여 복구를 꾀하고 있으나 원상회복시까지

81)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1995년 가을호, p.167

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미국의 국립공원 관리 이념은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고 다음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용이 보전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원(Park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관리한다⁸²⁾. 그리하여 공원 구역내 경관, 사적, 야생동물 자원을 보호하고 공원구역내의 자원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지속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공원지정 당시의 자원의 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원칙을 수립하여 공원을 관리한다⁸³⁾. 공원내의 활동으로는 하이킹, 등산, 무동력 보트 타기, 낚시(되놓아주기), 사진, 탐조활동, 야영 등이 가능하며 스쿠버 다이빙과 수상스키는 일부지역에 한정되고 사냥은 전 구역에서 금지된다.

시설지구내에서의 시설은 단독시설지구 형태로 숙박시설과 방문객센터, 우체국, 관리사무소 등 공공시설 중심이며, 공원내의 숙박은 집단 시설지구내에 위치한 캐빈, 야영장 등 한정적인 숙박시설의 이용 및 철저한 사전예약제로 성수기의 일시적 집중을 분산시키고 있다

엘로스톤 지역은 Natural Zone과 Park Development Zone으로 구분하여⁸⁴⁾, Natural Zone은 공원의 90% 이상이 이 지역으로, 자연자원이 원생자연의 상태이며 시설이 적고 탐방객의 이용 수준도 낮다. 공원 개발지구는 최대한도로 자연조건을 유지하되 공원관리와 방문객을 위한 개발이 가능하며 이중 1%는 대단위로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공원의 모든 역사지구도 이 지역에 속하는데 문화자원이 자연자원보다 우선한다

엘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5개의 여행안내소와 2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호텔을 비롯한 로지, 캐빈, 원형극장, 야영장, 교회, 식당, 우체국, 병원, 여행안내소 등 일상생활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고 있으며, 성수기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다.

한편 방문객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하여 공원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면 중벌을 받게 되므로 무질서한 이용형태는 보기 어렵다.

8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前揭書, p.56.

83) 上揭書, p.56

84) 上揭書, p.57

2) 일본의 후지·하코네·이즈 국립공원⁸⁵⁾

일본의 영산인 후지산이 포함된 후지·하코네·이즈 국립공원은 동경에서 약 12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1,227km²로 후지산 지역·하코네 지역·도사와 해안의 이즈 지역으로 구분이 되며, 연간 탐방객은 1억 2천만 명으로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온천이 있으며, 동경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일본인들이 최고로 내세우는 국립공원이자 관광지이다.

항구 요코하마와 고도 카바쿠라에서도 가까우며 후지산을 비춰주는 아시노호를 비롯한 다섯 개의 호수, 화산활동이 낳은 아름다운 경관과 풍부한 온천, 역사적 명소와 현대적 관광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국립공원에는 명성에 걸맞게 탐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등산철도와 2개의 케이블카, 곤돌라형 로프웨이, 아시노 호수의 유람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많은 관광객을 운송하며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이 되기도 한다. 20여년전 이러한 운송시설을 설치할 당시 자연훼손의 우려에 대한 여론이 많았으나, 오늘날 그 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산림 등 자연보호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설치는 지양하고 케이블카, 로프웨이 등 운송시설은 앞으로 타 공원에 더 설치할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현재도 아시노 호수 주변에는 대규모 골프장이 있어 동경시민의 레저 및 휴양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나 자연훼손의 흔적은 거의 느낄 수 없다.

이 공원에는 운송시설 뿐만 아니라 319동의 숙박시설, 30개소의 야영장, 113개의 주차장, 12개의 휴양소, 2개소의 방문객 센터, 총 연장 321km에 이르는 25개소의 유로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후지산은 1합목(合目)에서 정상까지 고도에 따라 10등분되어 있다. 2,305m인 5합목까지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잘 조화된 도로변의 조경과 마무리 그리고 안전을 고려한 낙석방지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더 이

85)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1995년 봄호, pp 61-66에서 論者 재구성 정리함

상의 자연훼손 방지는 물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5합목에는 1만평 규모의 대형 주차장과 숙박시설, 상가 등이 잘 갖춰져 있다. 한편 5합목에서 7합목까지는 도보나 말을 타고 갈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도보로만 가능하다.

일본의 국립공원 관리업무는 1971년 설립된 환경청 자연보호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연보호국에는 5과 3실이 있고 기획조정과 산하에 11개의 현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환경청의 지시·감독을 받는 도도부현 자연공원 관리사무소와 민간 비영리 특수법인이 있다.

환경청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인·허가 업무,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결정과 변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공원계획의 재검토 및 기초조사, 공원의 보호 및 이용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도도부현 자연공원 관리사무소는 지자체에 위임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주차장 등 자체 설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민간 비영리 특수법인인 재단법인 자연공원 미화 관리재단은 공원내 청소, 안내판의 설치, 주차장 및 야영장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민휴가촌 협회는 자체 설치한 호텔 등 숙박시설, 매점, 주차장 및 야영장을 관리한다.

일본의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이용형태는 국립공원을 자연의 탐승·학습 및 휴양지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이용과 행동을 하고 있으며, 관리당국에서도 탐방객 안내소, 자연학습원, 박물관, 학습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공여하고 국립공원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탐방의 형태는 도보로 직접 등반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동차나 케이블카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같이 일본의 탐방 형태가 주로 자동차나 특수 운송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원내에서 체류기간을 단축시켜 자연훼손과 오물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소화해내고 있다. 식사는 매점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등반객 대부분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정해진 취사장에서만 취사를 하고 야영객 외에는 거의 취사를 하지 않는다.

3) 이스라엘의 Carmel 국립공원⁸⁶⁾

이스라엘의 카르멜산은 지중해의 Haifa시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해발고도 500m, 연평균 강수량 500-800mm, 온난다습한 기후(15-25℃)를 가지고 있으며, 공원면적은 800ha이며 이 가운데 30% 해당지역은 자연보호구역(Nature Reserve)이다.

이 카르멜 국립공원은 카르멜 산악 지구내의 주민들을 위한 관광레크레이션 장소를 개발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관광지로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현재의 수요와 장래의 수요를 파악하고, 인문적·생태적 측면에서도 조사를 아울러 실시하였다. 자연경관의 가치, 희귀한 고고학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레크레이션 관광장소를 마련하고 사회경제적 규모·인구증가 등 관광수요 증대 및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려했다.

그리고 적정한 수용능력의 기준 한계를 설정하여 초과수요에 대한 혼잡을 예방하여 자연의 가치를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관광과 레크레이션을 제공하고 자원의 수급 균형과 조화를 유지토록 하였다. 즉, 공원개발에 있어서 공급(Landscape Capacity)과 수요(Visitors) 사이에 바람직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공급측정에서는 공원의 자원적 측면에서의 공급능력을 심층 분석하여 경관의 민감도, 적합성 등을 파악하고, 수요측정에서는 잠재 관광객을 통한 수요도 조사, 사회·경제적 분석, 현재수요와 잠재수요 측정, 그리고 방문객의 방문횟수·계절성·체재기간·레크레이션 활동내용·이용교통수단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원 경관의 특성을 식생과 지형에 따라 자연경관·공원경관·풍치림·전원지구 등 4가지로 나누어 이에 맞는 개발·보존 방안을 고려했다

이와 같이 카르멜 국립공원은 관광지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개발단계에서 그 곳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합당한 수용시설을 설치하였고, 관광개발을 공원경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레크레이션 활동 수요와 조화를 유지하며, 각 지역별·인적·생태적 수용능력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방문객이 만족스러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원의 근처 등에 대체적 관광지(Alternative Recreation Area)를 설정함으로써 성수기의 인파를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86) 徐台洋, 前掲書, pp.518-522에서 論者 재구성 정리함

현재 카르멜 공원은 연간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40%가 주로 여름철에 이용하고 있다. 주요 레크레이션 활동 형태는 피크닉, 드라이브, 산책, 등산 등이다.

3. 國立公園 開發事例 分析

국립공원 제도는 자연과 생태계의 보호를 근간으로 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이용을 도모코자 하는 제도로서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론 각각의 국립공원은 그가 지닌 자원의 특성과 가치에 따라서 그 개발의 정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고 관리주체 또는 방문객의 의지나 목표에 따라서도 또한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오늘날 관광의 폭발적인 증대와 관광객의 욕구다변화 등은 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러한 증대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변모되는 관광행태에 부응함은 물론 그 지역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이 보다 용이한 국립공원의 개발을 통하여 이를 실현코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천혜의 자연 풍광지를 보호·육성코자 하는 국립공원 제도의 취지와는 서로 상충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노력 그리고 투자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앞서 예시된 국립공원 개발사례를 통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연 풍광지에 대하여 국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관리한다고는 하나, 현행의 법 체계나 집행의 일관성부재 및 관리체계로써는 애초의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 목적도 달성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보듯이 국립공원에 대한 명확한 관리이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의 정도와 범위를 분명히 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와 재정지원을 통하여 국립공원으로서의 자연보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관광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히 개발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

여 자연의 보존 및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하는 일본의 후지·하코네·이즈 국립공원과 개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후의 관리계획까지의 세 단계간에 대한 유기적인 상관성을 인위적으로 면밀히 고려하여 관광자원화된 이스라엘의 카르멜 국립공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第 III 章 漢拏山 國立公園의 觀光開發 現況分析

第1節 漢拏山 國立公園의 立地分析

1. 概說

한라산은 정상이 1,950m로 남한 최고봉이며 그 정상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1969년 9월 3일 건설부는 국립공원 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안을 1970년 3월 24일 국립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하여 총면적 133km²를 한라산 국립공원구역으로 확정 한 것이다⁸⁷⁾. 그 후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적 가치가 높고 보존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여 1973년 12월 12일 공원보호 구역이 추가되어 변경 지정됨으로써 현재는 총면적이 151 35km²로 도 전체면적의 약 83%에 해당되는 지역이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한라산은 예로부터 부악(釜嶽)·원산(園山)·진산(鎭山)·선산(仙山)·두무악(頭無嶽)·영주산(瀛州山)·부라산(浮瀾山)·혈망봉(穴望峰)·여장군(女將軍) 등 많은 이름으로 불려왔다.

漢拏山이라는 이름에서 한(漢)은 은하수(銀河水)를 뜻하며 라(拏)는 맞당길나(相牽引) 혹은 잡을 나(捕)로서, 산이 높으므로 산정에 서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산 정상에 오르면 멀리 남쪽하늘의 노인성을 볼 수 있으며 이 별을 본 사람은 장수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진산이란 보통 도읍의 뒤에 위치하여 그 지방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의미를 가지는 데, 한라산을 진산이라고 불렀던 까닭은 한반도로 밀려오는 남태평양의 큰바람을 한라산이 막아 주어 한반도의 안녕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두무악이란 머리가 없는 산을 의미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한 사냥군이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잘못하여 활 끝으로 천제의 배꼽을 건드렸는데 이에 화가 난 천제가 한라산 꼭대기를 뽑아 멀리 던져 버렸다고 한다. 이 산정부가 던져

87) 濟州道, 「제주실록」, 제주도, 1997, p 507

진 곳이 지금의 산방산이고, 뿔혀서 움푹 팬 곳은 백록담이 되었다 한다.

원산이라는 이름은 산의 중앙이 제일 높아 무지개 모양으로 둥글고 사방 주위가 아래로 차차 낮아져 원뿔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붙여졌다.

영주산이란 중국의 사기(史記)에서 유래하는 바, 바다 가운데에 봉래·방장·영주 등 삼신산이 있다. 그 곳에는 불로불사의 약초가 있어 신선들이 살고 있다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한라산은 전설상 삼신산의 하나이다

부악이란 산정의 깊고 넓은 분화구가 연못으로 되어 있어 마치 솥(釜)에 물을 놓은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연못은 성록(聖鹿)인 흰 사슴이 물을 마시는 곳이라 하여 백록담이라 하였다.

한라산은 신령스러운 산이라 하여 조정에서 해마다 산정에서 국태민안을 비는 산제를 지냈는데, 산제를 지내러 갔던 백성들이 동사하기도 하여 1469년(예종 1년) 목사 이약동은 지금의 산천단에 산신묘를 세우고 이곳에서 산제를 지내도록 하였는데 그 석단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⁸⁸⁾

조선 3대 명산의 하나인 한라산은 다른 산과 달리 망망한 태평양 바다 가운데 불끈 솟아올라 우리나라 제일 남쪽을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유로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형·무형의 보물과 이야기를 간직한 채 오늘도 침묵으로 버티어 있다.

한라산은 화산분출과 지반 움기에 의해 이루어진 유년기 지형으로 그 정상부는 원추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는 화산호인 백록담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 정상에서 사방으로 다양한 지형과 기기괴괴한 바위와 절벽, 골짜기 등으로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한다.

이렇게 다양하고 너른 지역을 차지하고 또한 산의 고도와 지형으로 인하여 온대와 한대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대와 지형에 따라 많은 종류의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제주도에는 화산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원추형의 작은 화산들이 곳곳에서 '오름(岳)'을 이루고 있으며 그 수가 무려 360여개가 되는데, 이들은 한라산 정상 백록담을 호위하듯 아니면 그 품에 안기듯이 고도에 따라 적당한 곳에 섬을 빙 둘러가며

88) 이현재,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제24권, 웅진출판사, 1991, pp.168-169.

않거나 높거나 얽드려 있다.

바라보면 한라산은 더 없이 순하지만 그에 접하는 순간 그 안에 무한량의 힘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국립공원의 신비성이다. 계절마다 아니 시시각각으로 독특한 모습으로 눈앞에 다가오며, 누운향나무의 수줍음과 함께 고사목(枯死木)의 섬뜩한 자태가 이 산의 오묘한 역사를 들려주기도 한다.

한라산은 죽어있는 화산이면서 살아 있는 인간들의 숨결과 그 역사를 송두리째 간직하고 있는 특이한 산이다. 이 산의 여러 명소들과 관련된 전설과 설화 등을 통하여 보면 한라산은 단순히 자연의 한 현상으로 섬 가운데 버티어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주인들의 삶의 현장성과 유착되어 제주사람들의 존재성·현재의 상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한라산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함께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의 한(根)을 품고 있는데, 이러한 이 산의 신비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방문객들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라산의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등산로 주변 지대가 훼손되기도 하는 등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한라산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활성화 추구 및 환경보호를 내세워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라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라산에 대한 가치와 효율성을 정리하여 한라산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서 한라산의 진가를 내외에 알리며 소중한 유산으로 우리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2. 自然環境

1) 위치

한라산은 북포로부터 약 88마일 그리고 대마도와 부산으로부터 약 170여마일 떨어진 바다 가운데 솟아 있으며, 정상부의 지리좌표는 대략 33° 22' 29" N, 126° 31' 53" E가 된다.

산의 정상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은 북위33° 19' 10" ~ 33° 25' 35" , 동경126° 27' 50" ~126° 37' 55" 로 구획된 직사각형 모양이

며, 동·서방향으로 약 14.4km, 남·북방향으로 약 9.8km인 지구이다.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국립공원 구역의 남부에 치우쳐 있는 백록담을 중심으로 하여 북측은 북제주군 조천읍 및 애월읍, 남측은 남원읍 및 안덕면 일부 지역과 자연적인 경계선을 이루며, 2개군과 2개시에 걸쳐 있는 151 35km²의 면적을 갖는 구역이다.

2) 기후 및 기상

한라산은 해발고도와 정상울 중심으로 한 남북지대에 따라 다양한 기후대를 이루고 있다. 곧 해안지대 기후로부터 시작해서 정상에 이르는 해발고도에 따라 아열대 기후에서 아한대 기후대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대를 나타낸다. 해발고도를 중심으로 한라산 기후형을 구분해 보면, 해발 150m까지는 온대 남부형, 여기에서 550m까지는 온대 중부형, 이어 1,150m에 이르면 온대 북부형, 1,550m까지는 한대 남부형, 그 이상은 한대 북부형 기후로 나눌 수 있다.

한라산이 자리잡은 제주도의 기후는 바람이 심하고 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여름 계절풍인 태풍이 거의 매년마다 불어닥치고, 겨울 계절풍의 위세는 여름보다 강하지 못하나 오랫동안 불기 때문에 겨울 한라산 날씨는 거칠고 흐릿할 때가 많다.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더군다나 한라산 지대에는 해발고도가 올라 갈수록 강수량이 많고 지대가 복잡하기 때문에 곳에 따라 기후 변덕이 심하다.

기후는 자연경관의 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삼림 이외의 많은 경관이용을 제한하거나 가능성을 부여하기도 한다⁸⁹⁾. 한라산 국립공원은 해발고도에 따른 지리적 영향으로 인하여 기온 차가 매우 심한 편으로, 아래 <표 III-1>, <표 III-2>, <표 III-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라산 국립공원내의 정상부와 하단부와의 연평균 기온차가 봄, 가을에 걸쳐서는 3-4도의 차이가 나나 겨울에는 무려 6도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89) Bram Hackett 著·송보영·황창윤 譯, 「경관계획, 명보문화사」, 1987, p 16.

<표 III-1> 제주지역 기상 개황

연도별	구분	기온(℃)			강수량 (mm)	평균 습도	평균기압 (hpa=mb)	평균풍속 (m/s)	최대풍속 (m/s)
		평균	최고	최저					
제주 시	1996	15.7	35.5	-1.5	881.1	69	1,017.1	3.3	34.0
	1997	16.4	34.4	-0.9	999.5	71	1,016.8	3.2	27.3
	1998	17.1	37.4	-2.9	1,581.1	75	1,016.1	3.2	16.1
서귀 포 시	1996	16.3	34.1	-1.2	1,656.0	69	1,015.9	2.5	25.5
	1997	16.8	34.7	-0.4	1,575.8	68	1,015.5	2.8	28.7
	1998	17.5	32.3	-2.3	2,091.9	71	1,015.2	3.1	14.3

자료 : 제주기상청 제공

<표 III-2> 한라산 정상외의 기상 개황

1996. 9 - 1997. 6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관측일수	25	29	19	29	31	27	30	29	31	30	
풍속	-	-	-	-	-	-	-	-	-	-	m/sec
평균기온	12.4	6.5	0.8	-6	-9.4	-7.8	-0.7	3.1	7.3	14.9	℃
최고기온	16.5	11	11	5	1	3	8	9	14	15	℃
최저기온	6	-1	-7.5	-16	-19.5	-18.5	-14	-7.5	-3	4.5	℃
강우량	93	300	327	8.4	4.5	47.1	228.1	521.1	49.1	-	mm
적설량	-	-	-	-	-	-	-	-	-	-	cm

자료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표 III-3> 윗세오름의 기상 개황

1996. 9 - 1997. 6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관측일수	19	10	9	13	6	10	13	14	31	30	
풍속	1.8	1.7	1.8	2.0	3.3	3.0	2.5	2.4	2.5	1.7	m/sec
평균기온	15.5	9.2	3.8	-0.3	-4	-1.4	4	8.1	13.7	19	℃
최고기온	25	18	15	8	4	8	11	12	20	22	℃
최저기온	5	-4	-10	-12	-13	-12	-10	-1	3	10	℃
강우량	29.1	108.4	214.5	122	2	-	89	395	452	602	mm
적설량	0	0	1.8	2.2	2.6	-	0.1	0	0	0	cm

자료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특히 기후가 온화한 서귀포시 지역과의 차이를 보면 한라산 정상 1996년도 최고 기온이 16.5℃ 및 최저기온이 영하 19.5℃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 지역은 동년 최고기온이 34.1℃와 최저기온이 영하 1.2℃로서 두 지역의 기온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강수량에 있어서도 제주지역 평균 강수량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쪽지역은 년 1,800-1,900mm의 강수량을 보이고 반면에 북쪽의 제주시 지역은 1,300-1,400mm의 강수량을 보여 편차가 큰 편이며, 한라산 국립공원지역은 이 보다 훨씬 많은 2,300mm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강수량은 우기인 7, 8, 9월에 집중되어 이 시기의 강수량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또한 한라산 국립공원은 지형적 특색으로 적설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⁹⁰⁾ 11월 초순이 되면 벌써 한라산에는 눈이 내리고 정상은 한겨울이다.

3) 지형과 지질⁹¹⁾

(1) 지형

한라산의 지형은 신생대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으로서 화산분출에 지배되는 원지형과 화산활동에 수반되는 용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표고 1,200m 이상은 비교적 경사가 급한 편이고, 표고 1,000-600m는 경사 10° - 20° , 그 이하는 완만한 구릉지대를 이루는데 지형침식 유년기에 해당된다.

<그림 III-1> 지형단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은 동·서·북쪽은 표고 600m 이상이지만 남쪽은 1,000m 이상으로, 표고 측면으로 볼 때 공원구역이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쪽의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 조사하여 표고 600m까지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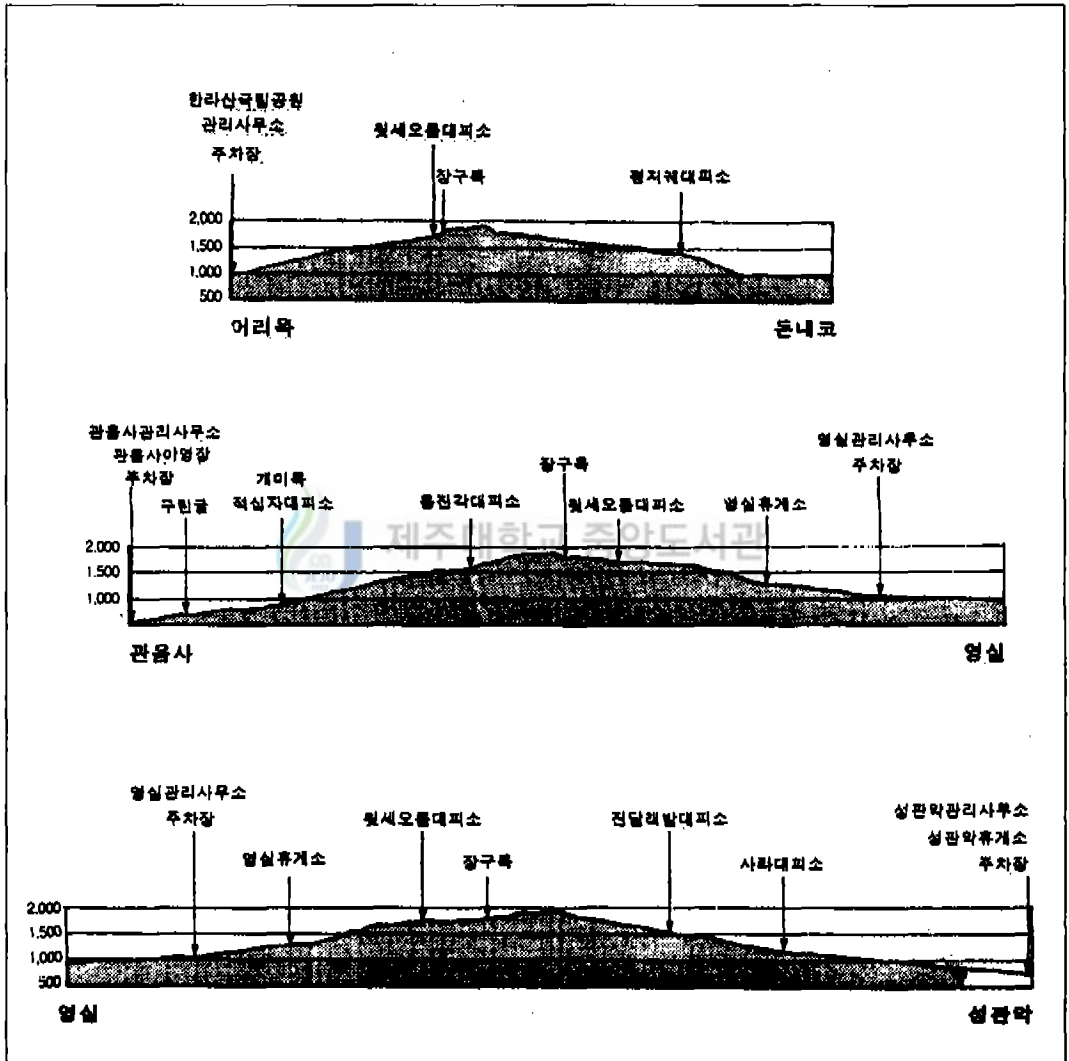
河系는 지세가 한라산을 정상으로 하여 원추를 이루고 있어 방사상(放射狀) 하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남북 양측 사면(斜面)에 비하여 동서 사면이 경사가 완만하고 넓은 용암대지가 분수령을 이루는 관계로 동서 쪽에서는 하계의 발달이 훨씬 빈약하다 따라서 많은 하천들은 남류하거나 북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천의 수원(水原)

90) 한라산 국립공원의 적설량에 대한 정확한 관측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91) 濟州道, 「한국의 영산, 漢拏山」, 제주도, 1994, pp.43-60에서 論者 재구성 정리함.

은 고도 1,400-1,600m 지점에서 발원하고 그들의 유로(流路)는 단사면상에서 직선적 이고 V자 내지 U자형 계곡을 이루고 있다.

<그림 III-1> 지형단면도



자료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제주도의 하천이 연중 유량이 없고 강우기 이외에는 건천이 되는 이유는 산사면(山斜面)이 급하여 강우기에 일시에 유출되며 도 전역이 전부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토가 거의 없는 관계로 강우를 지표에 저장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한편, 경사가 완만한 용암대지 지역에는 용암동굴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대체로 직선적·수평적이며 동굴의 저면 경사도 또한 매우 완만하나 만장굴과 빌레못굴과 같이 형성시기를 달리하는 용암동굴이 합치는 곳에서는 계단상을 이루기도 한다.

(2) 지 질

제주도는 신성대 제3기말에서 제4기에 이르는 5기의 화산분출로 형성되었다. 제1기 화산분출은 기저 현무암과 서귀포층을 형성하여 해저 지반을 이루며, 제2기 화산분출은 표선리 현무암과 서귀포 조면암 및 중문 조면암을 형성하여 육상지형을 이룬다. 제3기 분출기는 열로 분출에서 중심 분출형태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제주 현무암·하효리 현무암·법환리 조면암 등을 분출하여 한라산 화산체가 950m에 달하였다. 제4기 화산분출은 고산지대에 집중되어 시흥리 현무암·성판악 현무암·한라산 현무암 등을 형성하였고, 제5기 분출기는 백록담 화산폭발로 백록담 현무암이 분출하였고 고산지대에 300여개의 분석구(噴石丘)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지질은 화산분출암인 현무암류·조면암류·조면질 안산암류와 화산분출물 및 화산쇄설 퇴적암·사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무암류가 제주도 전체면적의 95% 이상(한라산 국립공원 내의 86%)을 점유하고 있어 훼손에 민감하며 특이한 경관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한라산의 훼손된 식생복구를 위해서는 한라산 자체의 환경에 적합한 시험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한라산에서의 가장 최근의 화산활동 기록은 동국여지승람 제38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서기 1455년과 1570년에 큰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3. 人文環境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는 그 면적이 1,825km²이며, 그 중 한라산 국립공원의 면적은 151.35km²로 제주도 면적의 8.3%를 점유하고 있다.

<표 III-4> 토지이용현황

단위 : km²

구 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제 주 도	254	263	705	603	1,825
한라산 국립공원	53.65	39.55	29.49	28.66	151.35

자료 : 제주도, 「한라산」, 1994, p 61

한라산 국립공원의 행정구역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상기 <표 III-4>와 같으며, 토지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 III-5>와 같다.

<표 III-5> 토지소유자별 현황

단위 : km²

계	국 유 지	사 유 지	공 유 지	비 고
151.35	144.2	4.8	2.36	

자료 : 제주도, 「한라산」, 1994, p.61

본 공원은 전체지역이 지목상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자별로는 국유지가 97%인 144.2km²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계나 용도지구와 관련하여 볼 때, 자연적인 경계에 의한 구분이 모호하므로 공원의 경계에 대한 재 검토와 아울러 용도지구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사유지와 사유시설, 통신시설, 사찰 등의 설치로 실제 관리 업무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다⁹²⁾

第2節 觀光資源 現況分析

1. 自然資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차이는 그 생성원과 법제에 의한 구속력에 따라서 결정이

9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前掲書, p 51

되는데⁹³⁾, 자연환경은 순수한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인문환경은 특별한 용도로 지정된 자연자원과 인간에 의해 생성된 인문자원(Cultural Resources)들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자원은 크게 기후, 지질, 지형, 수문, 토양, 식생, 야생동물의 7가지 자연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⁹⁴⁾.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환경은 기후적·지형적 요인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고 각 지역의 독자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관광자원은 주로 풍경미(風景美)를 중심으로 형성되나 그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지형·지질적으로 본 경우는 산악, 화산, 구릉, 고원, 호소, 폭포, 계곡, 해안, 도서, 해양, 암석, 온천 등이며, 천문기상으로는 月, 星, 雪, 氷 등이고, 동식물로서는 鳥, 獸, 魚, 森林, 草化 등이다⁹⁵⁾.

한라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은 위와 같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의 측면에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형지질의 요인과 동·식물 분포상의 특색에 따라 자연자원을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산악자원

한라산은 화산분출과 지반용기에 의해 이루어진 유년기(幼年期) 지형으로 36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생화산을 거느리고 용암류에 의한 현무암, 조면암 그리고 소량의 조면 안산암 등으로 특수한 경관을 이루어 관광자원 및 학술자원이 되고 있다.

주요한 산악자원으로는 한라산 정상과 백록담(1,950m)·윗세오름(1,714m)·왕관릉(1,700m)·병풍바위(1,560m)·삼각봉(1,696m)·흙붉은오름(1,385m)·사제비동산(1,370m)·사라오름(1,300m)·개미목(1,260m)·성닐오름(1,215m)·어후오름(1,014m)·살손장오름(916m)·물장울(900m)·물오름(820m)·괴평오름(784m)·거문오름(718m) 등이 있다⁹⁶⁾.

이러한 산악자원들 중에서 지형·지질적으로 독특한 경관을 이루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자연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이들 자

93) 김성기, 前揭書, p.79.

94) 上揭書, p.79

95) 김진섭, 「국민관광학」, 本國文化社, 1978, p.44

96) 濟州道, 前揭書, 1994, p.126.

(1) 백록담(白鹿潭)

한라산 1,950m의 산정에 있는 분화구가 백록담이다. 산정 주위의 둘레는 약 4,000여 미터, 제일 높은 곳인 한라산 정상은 분화구의 서쪽 둔덕이다. 백록담은 동서직경 500m, 둘레 약 1,720m, 북벽 높이 약 50m, 서벽 높이 약 300m인 전형적인 화구호(火口湖)이다⁹⁷⁾. 이 못은 옛날 신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백록을 회롱하며 놀았다 해서 이름이 백록담이라 불려졌다 한다

이 백록담 주변에는 기암절벽 사이사이에 누운향나무, 구상나무, 노가리 등을 비롯하여 풍란, 한란, 진달래와 섬매자나무, 애발톱꽃 등 고산식물 여러 종이 자라고 있다. 산에 녹음이 우거진 6월까지 백록담에는 지난 겨울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남아 있어서 이 진경을 ‘鹿潭晚雪’이라 하여 ‘영주 10경’의 하나로 꼽혀진다.

(2) 영실기암(靈室奇岩)

한라산 백록담 서남쪽으로 선작지왓을 지나 해발 1,600여 미터에 이르면 깊은 계곡이 나타난다. 둘레 약 2km, 깊이 350m에 이르는 이 계곡 주위를 ‘영실’이라 부르는데 주변에 수많은 기암 괴석들이 여러 형상으로 솟아 있어 장관을 이룬다. 계곡 안에는 많은 물이 흐르고 암석들이 하늘을 향해 버티어 있고, 울창한 수림과 바위 사이에 어울리게 들어앉아 있는 나무들이며 새소리들이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절벽 동쪽은 500여개가 넘는 이상야릇한 형상의 돌기둥들의 ‘오백장군’(또는 돌상들이 마치 부처가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五百羅漢’이라고도 칭함)이 있고, 서쪽 바위벽에는 1,000여개가 넘는 돌기둥들이 바위에 붙어 갖가지 형상을 자아내는 데 이를 ‘병풍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 영실은 자연경관 뿐만 아니라 철따라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기도 하며 수많은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샘 같은 물이 항상 흘러 내려 물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3) 왕관릉(王冠稜)

한라산 해발 1,600미터 지점 백록담 북쪽에 탐라계곡이 시작되는 위에 마치 왕관

97) 上揭書, p.55.

모양의 바위산이 있는데 이를 '왕관릉'이라 부른다. 이 산은 백록담 정상 바로 아래에 있고, 그 아래로는 깊고 험한 탐라계곡이 뻗어 있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한라산 정상 부근의 풍광을 이채롭게 만든다.

이들 외에도 서북벽과 남벽의 웅장한 모습과 소녀상, 진달래밭 등의 자연자원이 국립공원 내에 있어서 관광자원의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2) 계곡

(1) 탐라계곡

탐라계곡은 한라산에서 제일 깊고 큰 계곡이다. 개미등 동쪽 계곡은 정상 화구벽 북면에서, 서쪽 계곡은 해발 1,300m 개미목 서쪽에서 시작된다. 이 두 계곡은 개미등을 사이에 두고 내려와서 개미등 능선이 끝나는 해발 850여m 즈음에서 합류하여 제주시 한천내의 발원지가 된다.

계곡의 길이는 동쪽이 약 3,500여m, 서쪽 계곡이 3,000여m에 이르고, 그 폭은 보통 200-300여m나 된다. 해발 1,690m 부근에 우뚝 솟은 왕관바위와 삼각봉의 웅자, 그리고 주위의 경치는 매우 수려하다.

(2) Y계곡(어리목계곡)

이 계곡은 해발 1,630m의 장구목을 발원지로 하여 서북류하는 무수내와 백록담 서북 벽을 기점으로 한 골짜기의 흐르는 물이 북류하다가 민대加里 동산을 사이에 두고 Y자형으로 해발 1,150m 부근에서 합류가 된다.

만세동산을 발원으로 하는 양지류는 어리목 부근에서 합류가 되고 이들 소지류들은 해발 700m 부근에서 합류하여 북류한다. Y계곡은 연중 유출하는 現流地帶가 길고 또한 군데군데 용출하는 지대가 있어 수자원 이용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3) 골머리 계곡

골머리 계곡은 상류 근원지에 深谷을 이루는 용출하천이다. 계곡 동쪽에는 큰 두레밭, 작은 두레밭, 어승생악을 발원지로 하는 九九谷이 있으며 이곳은 높고 험준한 조면암류의 절리암벽이 솟아 심척에 달하는 비폭들이 걸려 있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선녀폭포'는 규모는 작지만 한라산 유일의 폭포이며 물이 맑아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4) 金峯谷(天王寺谷)

이 계곡은 어승생악 부근에서 발원하여 북류한다. 계곡 주위에는 기암들이 우뚝 우뚝 솟아 그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상류 석굴암 위쪽에는 유명한 안경샘이 있는데 이물을 聖水라 하여 성역화하고 있다.

(5) 수악계곡

수악계곡은 사라오름 남측에서 발원하여 四支流가 2차 수지류가 되면서 보리악에서 합류되어 3차 본류가 되어 흐르다가 신예리 부근에서 성판악 동쪽을 원(源)으로 하여 논고악·리듬악 동쪽을 흘러 내려온 지류와 합류되고 4차수 본류가 되어 남하, 신예리를 지나 바다로 유입된다.

(6) 영실계곡

영실계곡은 해발 1,620m의 병풍바위를 발원지로 하여 여러 갈래로 남서류하다가 표고 820m 부근에서 합류된다. 영실계곡은 현류용출지대(現流湧出地帶)가 상류·중류·하류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류의 영실계곡에서 용출 유출하던 하천은 영실 집단 시설지구를 지나면서 伏流하다가 法井巖계곡에서 잠깐 용출하다 四吉寺를 향하게 된다.

(7) 효돈천 계곡

이 계곡은 그 발원지가 해발 1,740m의 한라산 남벽을 발원으로 하여 남행하는 長谷으로 타 하천에 비해 가장 길뿐만 아니라 지류의 수도 많으며 규모도 크고 다채롭다.

3) 용암동굴

용암동굴은 유출된 용암이 표면에서 먼저 고결되고 내부에는 아직 고온의 액상용암이 들어 있을 때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고결된 표피를 뚫고 내부에 있었던 용암이 전부 유출되어 공동이 형성된 것이다. 그 형태가 석회동굴에 비해 매우 단조로우며 직선적이고 동굴의 저면 경사도 평탄한 지표상을 흐르는 하천 유도의 하상에서와 같이 매우 완만하나, 만장굴과 빌레못 굴과 같이 형성시기를 달리하는 용암동굴

이 합치는 곳에서는 계단상을 이룬다⁹⁸⁾. 한라산 국립공원내의 용암동굴로는 대표적으로 구린굴, 탑계, 상계, 윗상계 등이 있다. 구린굴은 규모면이나 용암의 유동방향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다량의 용암이 분출하면서 형성된 것이지만 이외의 용암굴 즉 '계'라고 칭하는 소규모의 동굴은 용암이 분출할 당시 용암속에 함유된 가스가 다량으로 팽창하여 표면으로 폭발하면서 형성되었다.

구린굴은 한라산 현무암류에서 형성된 유일한 용암동굴이다. 관음정사 북쪽의 표고 782-805m로 동굴의 경사도가 10도 내외이며 경사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표가 가까운 부근에 천정이 있다. 본 용암동굴은 여러 곳이 합몰되어 있어서 입구가 여러 곳에 형성되어 있고, 그 길이는 약 400m이며 관박쥐와 긴날개박쥐가 서식하는 등 박쥐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한라산 정상 부근 삼각봉 근처 동쪽의 용진굴을 비롯하여 영실계·통계·삼형계·평계 등 크고 작은 용암동굴들이 널리 분포하고 있다.

4) 동물⁹⁹⁾

본 지역의 동물은 세계의 동물분포상으로 보면 구북구(舊北歐)에 속하며 또한 한국동물 분포상으로는 제주지구(濟州地區)에 속한다. 그 때문에 한국본토와 공통된 종류가 대부분이지만 그 위치가 아시아 대륙과 일본열도 사이에 있는 관계로 대륙계와 일본계가 혼생하고 있다. 따라서 남방계의 동물까지 섞여 있으며, 산정부근에는 한대성 동물까지 찾아볼 수 있는 동물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성이 많은 곤충이나 조류에서는 계절에 따른 종의 다양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나, 이동성이 약한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에 있어서는 극히 제한된 종들만을 볼 수 있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곤충의 종류는 아열대성인 것부터 한대성인 것까지 있으며, 이미 보고된 것과 밝혀진 종류만도 2,600여에 달한다. 제주도 특산으로는 제주집게벌레, 제주왕딱정벌레, 제주우리딱정벌레, 제주호랑하늘소, 제주풍뎅이 등 19종이 있으며, 지금까지 보고 확인된 한라산의 곤충류는 21目 275科 1,593屬 2,485種이며, 이 중에 딱정벌레가 701종으로 가장 많고 나비류, 파리류, 벌류 등도 비교적 많이 서식하

98) 上揭書, p 49

99) 上揭書, pp 103-111에서 論者 재구성 정리함

고 있다.

제주도산 거미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종류가 약 250여종에 이르며, 제주도에만 있는 것으로서는 가는줄닷거미, 황닷거미, 주홍더부사리거미, 제주늑대거미, 제주접시거미 등 9종류가 있다.

다족류는 8목 12과 16속 22종으로 밝혀져 있고, 제주도의 특산으로는 탐라땅지네, 제주치지네, 관음의마디지네 등 3종이 있으며, 이 밖에 우마에 기생하는 여러 종의 진드기류가 있다.

그리고 양서류는 총 2목 6과 6속 9종이며 이중 제주도룡뇽은 특산종이다. 이외에도 한라산에는 참개구리·무당개구리·북방산개구리·청개구리 등이 있고, 움개구리나 금개구리는 희소하다.

한라산에 사는 파충류 가운데는 남한지(南限地)가 되는 종류로 누룩뱀, 쇠살모사, 줄장지뱀이 있고 북한지가 되는 것으로는 비바리뱀이 있다. 제주산 파충류 중에서 희귀종에 속하는 종류로는 줄장이뱀·도마뱀·비바리뱀이 있고, 식용 및 약용으로 인하여 개체군이 감소하고 있는 종류는 누룩뱀, 유허목이 등이 있다. 제주도에 있는 파충류중 쇠살모사를 제외한 모든 종류는 학술상으로 절대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에는 395종의 조류가 알려져 있는데 아종(亞種)까지 합해서 430여종에 이른다. 20종의 미조(迷鳥)를 제외한 375종 가운데 100종은 텃새이고 나머지 275종은 철새이다. 철새중 112종은 겨울새, 66종은 여름새이며 통과조(通過鳥)는 89종이다.

이 중에서 제주도에 기록된 조류는 1993년 5월 현재 238종이며, 통과조류가 69종, 겨울철새가 68종, 여름철새 36종, 텃새가 38종, 미조가 28종이다. 한반도의 조류와 비교해 볼 때 겨울철새와 통과조류가 많은 편인데, 이는 지리적 위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라산에서 떼지어 모여 사는 새들로는 직박구리·방울새·박새가 있고, 지역에 따라 멧새, 동박새 종류가 있다. 한편, 특산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제주참새·제주도큰오색딱다구리·제주오목눈이·장백새 등은 아종들이다

제주도의 포유류 분포상은 종류나 개체 수에서 매우 빈약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오소리·삿·제주족제비·노루·제주관박지·큰수염박쥐·제주따쥐·집쥐·애굽쥐·생쥐·제주등줄쥐·제주멧밭쥐·비단털쥐·두더지 등 16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중

제주족제비·제주관박쥐·제주따쥐·제주등줄쥐·제주멧밭쥐 등 5종은 제주도 특산 종이다.

한편 삶은 최근에 거의 멸종된 것으로 보여지며, 노루 또한 멸종위기에 처했으나 제주도 당국 및 도민들의 남획금지 및 보호정책에 힘입어 현재 약 9,000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서식지 또한 해발 500-600 고지의 중산간까지 확산 이동하는 추세로 이들 노루에 의한 생육초기의 콩잎 훼손 등 도내 중산간 지역의 농작물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¹⁰⁰⁾.

5) 식물

한라산은 식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해안에서부터 한라산 정상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기후 변화에 따라 매우 다채롭게 분포되어 식생하고 있다. 이는 한라산의 위치와 그에 따른 기후 조건 때문으로 위도상으로 제일 남쪽에 위치하면서 기후가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아 난대성 식물이 자라기에 적절할 뿐만 아니라, 한라산의 해발고도에 따라 각기 다른 기후대가 형성되어서 온대에서 한대에 이르는 식물까지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자연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68년 한라산 국립공원의 지정을 위한 당시의 대규모 학술조사에서는 1,782종이 보고된 바 있으나, 1992년 김문홍에 의하면 제주의 자생 관속식물이 158과 663속 1,453종 275변종 그 아종 65품종으로써 모두 1,793종류로 보고한 바 있다¹⁰¹⁾. 그러나 그 후에도 매년 새로운 종이 발견되어 현재는 약 1,800여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안에서 600여 미터 내외의 고도까지의 산록지대에는 녹나무·후박나무·복가시나무 등의 온대성 식물이 분포하고, 고도 1,500m까지에는 서나무·졸참나무 등이 모여 온대림을 이루고, 이 위로는 고채목·구상나무·털진달래 등의 한대성 식물, 다시 위로는 시로미·암매·들쪽나무 등의 고산식물들이 나타난다. 더군다나 한라산 정상은 매우 춥기 때문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식생도 성장이 가능하다.

제주도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희귀종 식물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종류를 달리하는 데¹⁰²⁾, 이들 중 대부분은 한라산 중턱 이상의 지대에 자라고 있다. 섬매밭

100) 한라일보, 1998 7 25자 및 제주일보, 1999. 7 20자.

101) 金文洪, 「濟州植物圖鑑」, 濟州道, 1992, p 714

톱나무·섬오갈피나무·제주달구지풀·제주조릿대·한라돌쩌귀 등이 특이하며, 이 밖에도 한라산의 기후대와 지형과 지질에 따라 특이한 식물들이 군집을 이루며 살아 가고 있다.

한라산 정상 주위에는 아고산대(亞高山帶) 초원 및 관목림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형의 경사도와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털진달래와 산철쭉 군락은 평지 이고 습지일수록 발달되어 있고, 누운향나무 군락과 시로미 군락은 비교적 경사가 급하고 건조한 남쪽 비스듬한 지대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한라산에서 가장 볼 만한 식물군락은 구상나무이다. 고도 1,590m에서 1,940m 사이에 있는 구상나무는 살아서는 기품있는 모습으로, 죽어서는 오히려 신비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한다. 이 밖에도 제주조릿대 군집이 형성되어 있으며, 관목림의 대표적인 나무로서는 진달래가 있다.

그 외에 술패랭이꽃·구름채꽃·붉은병꽃나무·한라구절초·설앵초·구름송이·바늘엉겅퀴 등 고산성 초본들이 봄부터 피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번갈아 보여 준다¹⁰³⁾.

한라산 식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자생란이다. 이는 약 90여종에 이르는데 그중 40여종은 오직 제주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희귀종들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으뜸인 것은 1967년 7월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지정된 한란과 비자림에서 자생하는 풍란이다. 이 밖에도 제주춘란, 새우란, 금새우란, 사철란 등이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며 아름다운 꽃을 자랑한다. 이들 한라산의 자생란 이외에도 2월경 하얀 눈 속에서 파란 잎과 노란꽃을 내미는 복수초꽃과 들매화나무꽃·솜다리·모데미풀꽃 등이 있다

한편, 한라산 정상에서 좀 내려와 따뜻한 곳에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인 종가시나무를 비롯하여 상록 활엽수들이 있고 해발고도가 높을 수록 낙엽 활엽수림이나 침엽수림대 또는 관목 수림대가 형성되고 있다.

상록 활엽수림으로는 동백나무·참나무·졸참나무 등이 있으며, 낙엽 활엽수림으로는 굴거리나무·솔비나무·신갈나무·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한라산의 해발 1,700m 이상의 지대에는 시로미가 있고, 담배는 정상부와 개미동의 암벽

102) 이덕봉(1957년)은 31종, 이영노(1968년)는 29종, 이창복(1985년)은 73종 등이다

103) 현길언, 「한라산」, 대원사, 1997, pp 41-44

에 자라며, 들쭉나무는 정상의 분화구대와 동측의 정상부에 자라고 있다. 이들 외에 정상주변에는 구상나무·사스래나무·주목·산개벚나무 등이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고산 식물로 보기는 어렵다¹⁰⁴⁾.

이러한 한라산의 풍부한 임산자원은 참나무·굴무기나무 등과 같이 튼튼한 가옥 건조의 재목이 되었고, 한라산 700m 고지 부근에는 표고버섯 단지가 형성되어 도민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해 왔다.

2. 人文資源

인문환경은 특별한 용도로 지정된 자연자원과 인간에 의해 생성된 인문자원들로 형성되어 있다고 정의한 바 있으며, 따라서 인문자원은 인위적인 개발에 의해 생성된 인공물들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자연자원과는 상반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¹⁰⁵⁾. 그 중에서도 문화재는 관광대상물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그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 문화재의 현상이나 구성 특징이 관광객들의 목적과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라산 국립공원내의 자연자원은 그 품미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인문자원의 경우에는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주도의 역사적인 염원과 함께 절해의 고도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민속문화를 이룩하여, 한라산을 주제로 한 또는 한라산과 관련된 설화와 민요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이 한라산 국립공원내의 대표적인 인문자원들을 특징별로 구분하여 보편 사찰 그리고 전설과 민요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가 있다.

1) 사찰

제주도의 역대 종교를 말하는 전설 중에 '당(當) 5백, 절(寺) 오백'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제주지역에 사찰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종 12년(1481)에 완성

104) 김문홍, "한국의 아고산대 침엽수림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제주대과학교육, Vol. 3권, 1986, pp.25-36.

105) 김성기, 前揭書, p144

된 동국여지승람이나 효종 3년(1652) 이원진의 탐라도 및 선조 10년(1577)의 남명소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사찰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¹⁰⁶⁾

이들 중 한라산에 있었던 사찰들로는 존자암·보문사·서천암·영천사·성불암·두타사 등이 있다.

존자암은 1995년 제주도 기념물 제43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사찰로, 상기 문헌들에 의하면 부처님 당시의 제자인 발타라존자가 인도에서 건너와 존자암을 지은 것으로 밝혀져 1,600여년의 한국불교 역사를 앞당기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진 기록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 전진에서 들어왔다 하였으므로 위의 설을 인정한다면 존자암은 이보다 850여년 앞서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사적·정신적 측면이 더욱 중요한 존자암은 한라산 영실 남쪽 물래오름 중턱에 있는데, 1998년 10월부터 본격 복원되고 있다¹⁰⁷⁾.

한편, 관음사는 조선시대 제주불교가 단절되었던 것을 재건하는 기점이 된 사찰로, 관음사라는 이름의 사찰은 옛날 조천포에 있었던 절이었으나 1908년 안봉려관에 의하여 한라산 북측 현재의 자리에 재 창건된 것으로 제주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¹⁰⁸⁾.

이외에도 현존하는 사찰로 석굴암과 천황사가 있으며, 존자암 동남쪽 5리 지점에 네모로 둘러싸인 절터가 있는데 쌍줄기의 계곡이 있어 투타사(일명 쌍계암)의 절터가 아닌가 한다.

2) 전설과 민요

한라산은 예로부터 삼신산의 하나로 불리어 그 수려함과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신비롭고 장엄한 곳엔 항상 전설이 얽히게 마련이다. 그 신비와 장엄함 그리고 불가사이를 해설하려는 소박한 심성에서 전설이 생겨나게 됨은 물론이다.

한라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웅장한 한라산의 창조와 산 속의 여러 경승들에 대한 전설들이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선문대할망이라는 거대한 여신과 한라산의 창조에 대한 전설, 백록담과 산방산의 형성에 대한 전설, 그리고 영실기암의 오백

106) 濟州道, 前掲書, 1994, pp.127-128

107) 한라일보, 1998. 10 23

108) 濟州道, 前掲書, 1994, p 131

장군과 아흔아홉골의 형성과 관련된 전설 등이 그것이다.

한편, 제주 섬사람들은 어디서나 한라산을 대하고 한라산을 바라보며 살았던 까닭에 민요 속에서도 한라산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한풀이의 상대가 되기도 하고 일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면서 한라산은 물론 무수한 오름과 내, 산의 나무, 심지어는 풀들까지도 속으로 끌어들이며 함께 호흡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라산이 담겨있는 민요로는 ‘산천초목’·‘오돌또기’·‘이야홍타령’ 등이 있으며, 현대에 있어서도 한라산은 여러 장르의 문학의 모태가 되기도 하고 있다.

이렇듯 한라산의 전설과 민요 또한 소중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라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무형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개발하여야 하겠다.

3. 觀光資源 開發現況¹⁰⁹⁾

(1) 진입도로 및 주차장

한라산 국립공원내 분포하고 있는 도로는 공원을 경유하는 통과도로와 공원내 탐방 대상지역에 진입하는 진입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과도로는 제주-서귀포간 및 중문을 연결하는 5.16도로(국도 11호)와 1,100도로(국도 99호) 등 국도 2개 노선과 지방도 1112호인 동부산업도로 1개 노선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영실, 어리목, 관음사 코스에 3개 노선이 있다.

한편 현재 공원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5개소 15,042m²로서 주차수용 능력은 465대이다

(2) 등산로

한라산 등산로는 백록담을 향하여 각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5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의 <표 III-6>의 등산로 코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리목 코스 및 영실 코스가 산 정상에의 접근성이 좋고 정상까지의 거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이 수

109)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려하여 많은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다.

<표 III-6> 등산로 코스

등산로	경유지	거리(km)	비고
어리목	어리목-사재비동산-윗세오름-서북벽-백록담	6.0	
영실	영실휴게소-영실기암-윗세오름-남벽-백록담	6.5	
성판악	성판악휴게소-사라오름-진달래밭-백록담	9.6	
관음사	입구-구린굴-탐라계곡-용진각-백록담	8.3	
돈내코	입구-평지케-남벽-백록담	10.1	

자료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어리목코스는 한라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이다. 계곡에는 수로를 막아 물이 흐르지 않는으나 수로를 따라 올라가면 흐르는 물을 만날 수 있고 겨울의 설경과 가을단풍 구경도 가능하다 사재비 동산을 지나 만세동산에 이르면 산 진달래 밭과 시로미 밭이 펼쳐지고 여기에서 1.2km 더 오르면 영실코스과 만나는 윗세오름에 이르게 된다. 이 부근에는 구상나무 숲과 시로미 밭이 펼쳐져 있으며 식수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1km쯤 더 정상으로 가면 장구목에 이르는 데 고채목과 시로미, 구상나무 숲 그리고 기암절벽의 경관을 만난다.

윗세오름에서 서북 벽을 타고 정상으로 가는 구간은 서북 벽이 태풍때 산사태로 인하여 중간부분 암벽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폐쇄되어 버렸다.

이 어리목코스는 등반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등산로 주변의 피해가 많다. 등산로가 아닌 샅길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며, 또한 주변 식생이 많이 파괴되어 있다. 특히 해발 1,600m 지점에서는 등산객에 의한 구상나무 고사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1,700m 윗세오름 부근은 등반객들이 쉬어가거나 야영을 하는 곳으로 주변 넓은 지역이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으며, 백록담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폭 10여 미터의 길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더구나 백록담 분화구는 더욱 심하다. 따라서 백록담 안에는 출입을 금했으나 정상 가장 자리는 이미 사람들의 발길에 산의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이

다.

영실코스 또한 거리가 가깝고 등산 소요시간도 짧아서 많은 등반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영실에서 고도가 심한 등산로를 따라 3.7km쯤 오르면 윗세오름에 이르게 되는데, 영실부근의 다양한 절경을 맛 볼 수 있고 특히 넓게 널려져 있는 불가사의한 석전(石田)인 선작지왓을 걷는 맛이 유다르다. 한편 이 코스는 영실 주변의 자연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어리목과 영실을 이용한 정상등반은 자연 휴식년제의 일환으로 1996년 3월부터 2002년 2월말까지 윗세오름에서 정상까지의 이용이 금지되고 있다.

성판악 코스는 입구에서 산으로 들어가면 곧 밀림지대가 펼쳐지고 팡팡나무 군락지와 속밭을 지나면 관목지대가 펼쳐진다. 여기에서 2.6km 더 오르면 사라오름에 이르게 되는데 사라오름은 백록담과 같이 분화구에 못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부터 2km쯤 더 오르면 진달래 밭이 나오고 이 부근에서 산진달래와 구상나무 숲을 구경할 수 있다. 이 코스는 거리가 멀고 단조로우나 하산할 때는 오름들을 눈아래 두고 걷는 별스런 맛을 얻을 수 있다.

관음사 코스는 한라산 등반 초기에 등반객들이 이 코스를 애용했다. 산천단에서부터 관음사에 이르는 벌판에서부터 여름의 늘 푸른 초원과 거기 펼쳐진 여러 오름들, 가을의 억새 꽃, 눈 쌓인 광활한 설원 등을 맛볼 수 있다. 제주에서는 꽤 오래된 절인 관음사를 지나 잡목지대를 통하여 1.6km쯤 지나면 구린굴에 이르고, 여기에서 2.6km쯤 오르면 탐라계곡에 이르게 된다. 깊고 험한 계곡 주위에 들어 찬 잡목들과 짐채만한 바위에서 한라산 특유의 풍광을 느낄 수 있다. 용진각 대피소에서는 주변의 아름다운 바위와 단풍 그리고 기기괴괴한 돌무더기의 왕관룡을 만나게 된다. 이 코스는 거리가 멀고 등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반객이 그리 많지 않아서 자연훼손 현상도 그리 심하지 않은 편이나 왕관룡 아래에는 지면 흩이 무너지고 유실되어 부근의 식물식생이 파괴되어 있다.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는 1996년 3월에 시행된 자연휴식년제로 인하여 이들 코스를 이용한 정상 등반이 당시부터 불가능하였으나 1999년 3월부터는 정상 등반이 가능하게 되어 현재는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돈내코 코스는 등산거리가 10.1km에 달하고 등산 소요시간이 왕복 10시간

이상 소요되어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난사고 등의 위험이 산재해 있어서 1986년도부터 등산로의 통제를 시행해 오던 중, 1996년 3월부터 실시된 한라산 자연 휴식년제가 현재까지 연장 실시되어 이 등산로의 이용이 2002년 2월말까지 금지되고 있다.

(3) 기타 공원시설 현황

기타 공원의 시설현황은 <표 I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원구역내 시설의 유지와 탐방객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어리목·영실·관음사·성관악 등 등산코스 입구에 4동의 관리사무소가 있으며, 특히 어리목과 영실에는 산악 구조대가 상주하며 긴급조난에 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총 10동의 대피소가 각 등산코스에 있으며 곳곳에 화장실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관음사 지구에는 수용능력 1,000명 규모의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공중변소, 급수시설 및 취사장, 종합 안내소 등의 시설이 있다.

기타 공원구역내의 공공시설물로는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항공 무선 표지국, 한국통신 산하 한라중계소, 윗세오름 중계소 등 9개소와 한라산 정상 일원의 기상관측을 위하여 1996년 9월부터 윗세오름 및 남벽과 성관악에 기상관측 기기인 백엽상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I-7> 한라산 국립공원내 공원시설 현황

구분	관리사무소	휴게소	대피소	화장실 (발효식)	안내판	소각로	야영장	관찰시설 (백엽상)
어리목	1		5	2	68			2
영실	1	2		3	33			
관음사	1		2	3	58	1	1	
성관악	1	1	2	2	45			1
돈내코			1		26			
계	4	3	10	10	230	1	1	3


자료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第3節 利用現況 分析

1. 利用客 現況

한라산 국립공원의 월별, 등산로별, 그리고 년도별 방문객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라산 국립공원내의 관광객 흐름과 관광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한라산 국립공원의 보존을 위한 대책수립은 물론 향후의 개발 방향과 관리의 지침을 마련할 수가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몇 년전만해도 방문객의 대부분이 관광객이며 도내 거주인들의 동반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꾸준히 증가하여 약 20% 정도의 도내인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도내인들의 이용빈도는 점차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이용빈도는 전체 방문객의 약 0.3-0.4%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III-8> 제주도 관광객 현황

년도	관광객수 (단위 : 천명)		
	계	내 국 인	외 국 인
1993	3,464	3,187	277
1994	3,693	3,470	223
1995	3,997	3,755	242
1996	4,144	3,935	209
1997	4,363	4,179	184
1998	3,291	3,067	224

자료 : 제주도 관광진흥과 제공

이를 토대로 <표 III-8>의 제주도 입도 관광객 현황과 비교하여 볼 때, 전체 관광객 중 내국인의 경우 약 10%만이 한라산을 찾고 있으며, 외국인 입도객의 경우는 겨우 0.7% 정도만이 한라산을 이용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III-9> 연도별 한라산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년도	인원	전년대비 증감률(%)	비고
1990	368,867		
1991	386,441	+ 4.7	
1992	427,617	+ 10.6	
1993	387,380	- 9.4	
1994	501,240	+ 29.4	
1995	538,365	+ 7.4	
1996	422,118	- 21.6	
1997	542,164	+ 28.4	
1998	550,191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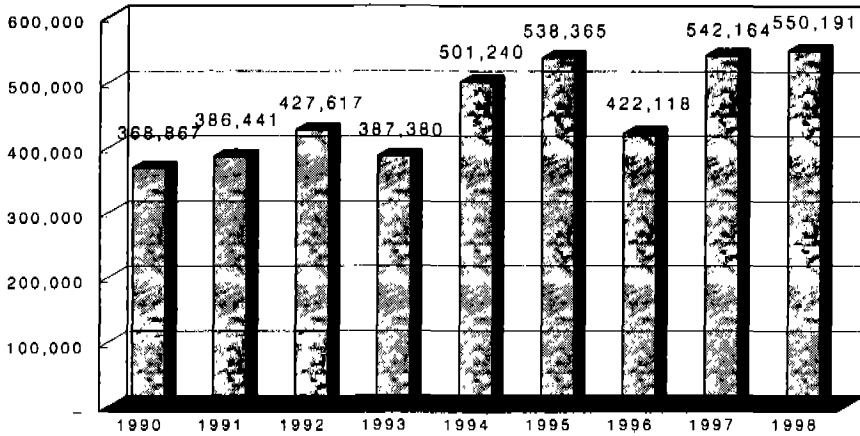
자료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한편, 한라산 국립공원을 찾은 방문객 수는 1990년에 36만 9,000명, 1992년 42만 7,000명, 1994년 50만 1,000명 등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1996년에는 한라산 국립공원의 훼손방지 및 훼손지 복구를 위한 등산로별 휴식년제의 시행으로 일반인들에게 정상등반이 금지되면서 연간 42만 여명의 이용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1997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¹¹⁰⁾.

최근의 연도별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상기의<표 III-9> 현황과 같다.

110)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그림 III-4> 연도별 방문객수



그리고 월별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연중 4월과 5월 및 10월에 많은 이용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7년 1월에 개최된 한라산 눈꽃축제가 어리목 일대에서 펼쳐지는 등 연중 행사로 자리 매김 되면서 도내·외의 방문객이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1월에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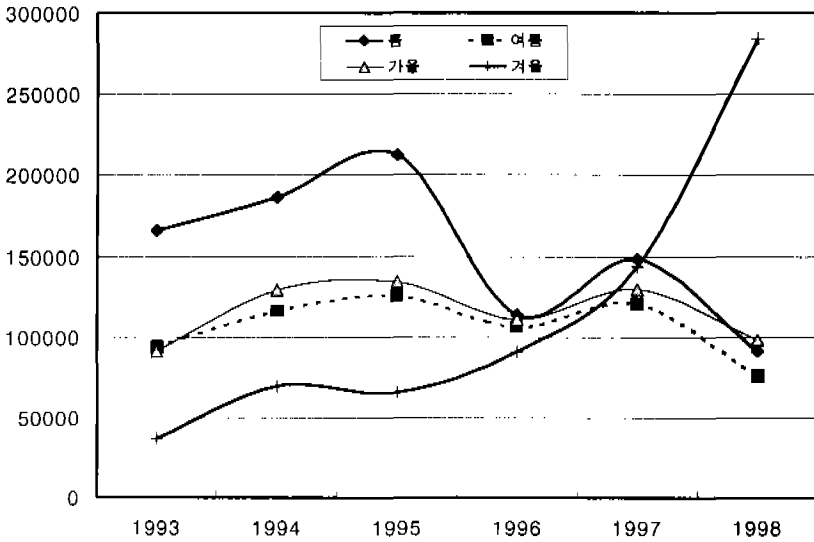
<표 III-10> 월별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월 \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	15,465	29,711	28,911	37,422	102,800	205,180
2	7,803	19,257	17,806	30,224	24,810	54,888
3	23,770	26,798	28,271	15,933	25,682	19,299
4	61,612	63,638	68,630	30,351	36,984	24,362
5	80,276	95,853	115,185	67,416	85,471	47,688
6	37,107	52,104	49,803	39,709	55,536	22,266
7	20,156	26,012	25,816	24,044	29,585	19,533
8	36,507	38,120	50,489	42,671	35,780	34,409
9	21,986	35,081	35,052	27,989	30,468	18,244
10	48,899	57,922	62,035	52,531	70,460	39,119
11	20,131	36,217	37,416	30,639	28,586	40,997
12	13,668	20,527	18,951	23,189	16,002	24,206
계	387,380	501,240	538,365	422,118	542,164	550,191

자료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그림 III-5> 계절별 방문객 현황



등산로별 방문객 현황은 등산로별 자연 휴식년제의 시행 이전인 1995년까지는 관음사 코스를 제외한 어리목·영실·성판악 등의 등산로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이용되어 왔으나, 자연 휴식년제의 시행과 철쭉제·눈꽃축제 등의 개최장소에 따라 등산로별 이용빈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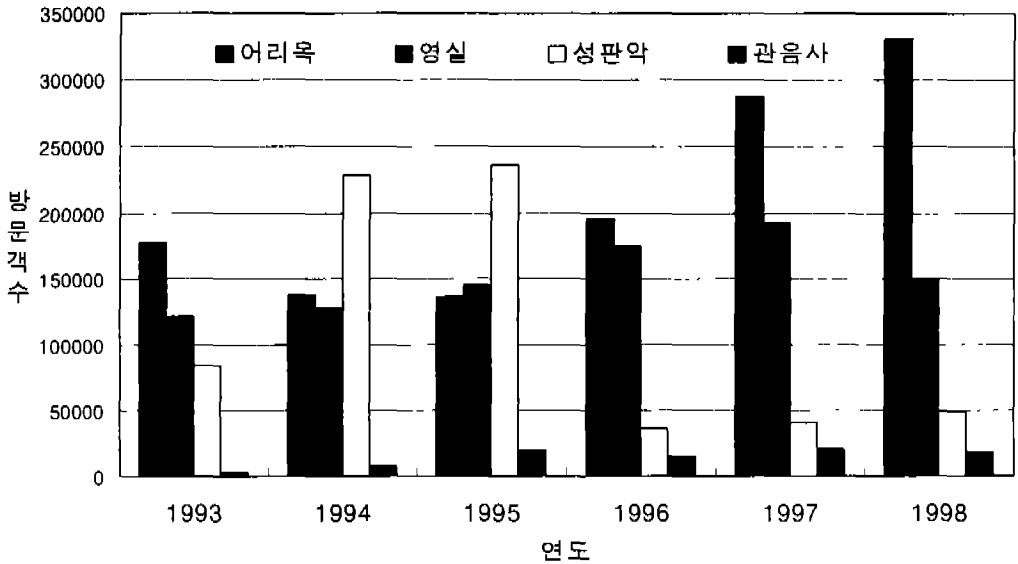
<표 III-11> 등산로별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연도 \ 등산로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계	비고
1993	177,532	121,610	84,677	3,361	387,380	
1994	138,103	127,609	228,037	7,491	501,240	
1995	136,395	145,791	235,843	20,336	538,365	
1996	195,991	175,119	35,907	15,101	422,118	
1997	287,863	192,675	40,533	20,793	542,164	
1998	331,806	150,659	49,550	18,176	550,191	

자료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그림 III-6> 등산로별 방문객 현황



특히 1999년도의 등산로별 방문객 현황 중 특이할 만한 것은 1999년 3월부터 성판악·관음사를 이용한 정상등반이 허용되면서 그동안 집중화 현상을 보이던 어리목과 영실코스를 이용한 방문객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를 이용한 방문객이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999년 상반기의 방문객 현황은 성판악코스의 방문객이 75,000명으로 지난해 4만 2천여명 보다 무려 52%가 증가하였고, 관음사코스는 1999년 상반기 1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4%가 증가했다.¹¹¹⁾

이와 같이 한라산 국립공원의 이용현황은 매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1년 (추정 관광객 514만명)에 방문객 수는 최소 57만 4천명에서 최대 68만명의 범위로 증대될 것으로 추산된다¹¹²⁾.

한라산 국립공원 방문객의 특성은 여름과 겨울에 극심한 비수기 현황을 보이고 있고 또한 어리목·영실코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주요활동은 단순 등반 위주로서 한라산의 자연자원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 등의 다양한 활

111) 제주일보, 1999 7 18.

11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前揭書, p.55

동이 부족한 형편이라 하겠다.

더욱이 방문객의 증가로 인하여 공원에 대한 훼손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바, 방문객의 적절한 분산책과 아울러 물리적 접촉 방지책 등 다양한 관리지침이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함은 물론 증대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개발방안이 조속히 수립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利用 收入 現況

한라산 국립공원의 이용에 따른 이용 수입현황 또한 한라산 국립공원이 도내 거주인이나 관광객들에게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더욱 중요해지면서 이용규모의 확대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75년의 불과 1,700만원에서 1992년 2억 1천만원으로 증가, 1997년도에는 5억원을 상회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¹¹³⁾.

<표 III-12> 이용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금액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비 고
입장료	188,699	245,098	331,425	297,539	367,071	295,305	
주차료	38,871	97,491	99,778	119,594	143,615	126,119	
계	227,541	342,589	431,204	417,133	510,686	421,425	

자료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상기의 입장료 및 주차료 이외에 야영장 이용료 년 4백만원과 모노레일 이용료 년 4백5십만원 및 관음사의 샤워시설 이용료가 년 10만원 정도 발생한다.

113)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第4節 生態系 毀損 및 開發의 潛在力

1. 生態系 毀損

한라산의 독특한 자연성과 높은 경관가치가 80년대 이후의 급증한 방문객으로 인하여 자연파괴 현상이 점차로 증가하여 본 공원의 일부지역에서는 생태적 균형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라산의 경관적 매력은 크게 감소되고 있다

자연훼손의 유형은 목각이나 가구용 수목의 도벌, 분재 및 정원수용 수목의 도채, 약용식물의 채취, 보신용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쓰레기 및 오물의 투기, 방목중인 마소에 의한 식생훼손, 인공시설물 설치에 의한 식생파괴와 지형개변, 방문객에 의한 등산로 및 그 주변지역의 식생훼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¹¹⁴⁾.

이들 여러 자연훼손 유형중 한라산의 자연가치에 가장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은 식생훼손으로 인한 침식과 산사태 현상이다 고산지역의 특수한 자연적인 여건과 적정 수용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훼손지역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¹¹⁵⁾ 방문객의 계속 증가로 인한 2차 훼손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복구대책 및 훼손방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986년 서울대학교 사방공학실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등산로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침식 및 훼손현상의 가속화 작용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 곳에서 황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한라산 정상외 삼각봉 주위, 서북벽 일대, 관음사 등산로 정상부분, 남벽코스의 정상부분, 장구목 일대, 윗세오름 대피소 등이 토양 침식 및 암석부스러기의 유실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이들 지구가 완전한 불모지로 황폐화되고, 그 결과 백록담 화구호와 일부 계곡이 매몰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 외에도 등산로에서 관찰할 수 있는 17개소의 산사태지 및 황폐지의 훼손현상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¹¹⁶⁾.

114) 고동희, "자연보전형 관광지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2, p60

115) 제주도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199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라산 훼손지면적이 19만 5000m² (약5만 9천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116) 고동희, 前揭論文, p.61.

또한 이러한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의 토양침식이나 산사태에 의한 훼손 이외에도 자연훼손 또는 자연파괴에 해당되는 것이 인공시설물에 의한 景觀破壞(Landscape Destruction)나 景觀侵害(Landscape Intrusion)현상 등이다. 이러한 자연경관 훼손지도 공원내의 대피소나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의 설치장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라산 국립공원내의 훼손지 현황은 <그림 III-7>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이들 주요 훼손지는 등산로 주변과 정상에 가까울 수록 그 훼손도는 심하여 한라산의 침식 및 황폐화 방지와 더불어 자연회복 대책수립 및 그 시행은 향후의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라산 훼손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마의 방목금지, 등산객수 줄이기, 한라산 휴식년제의 시행, 등반객의 의식개혁, 새로운 등산로 개설, 케이블카의 설치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산을 욕망충족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산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식에서 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의식으로의 전환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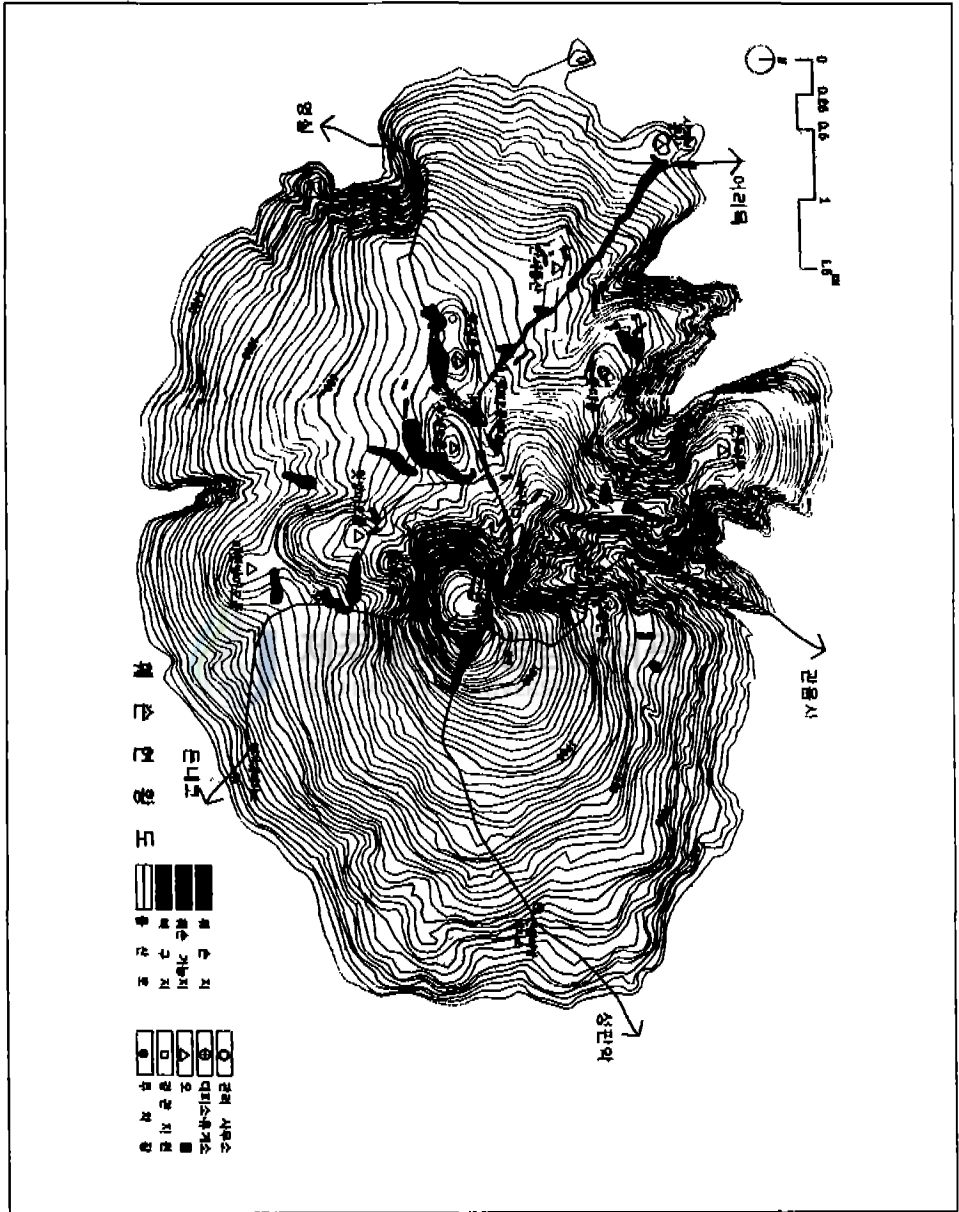
한편으로, 한라산 훼손지에 대한 복구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93년 조사결과에 의한 한라산 훼손지는 대략 5만 9,100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주도 당국의 복구계획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모두 170억원을 투자해 복구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 동안 식생복구에 투자된 예산은 34억 6,700만원으로 연평균 5억 7,80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복구면적도 9,700여평으로 전체 훼손지의 16.4%에 불과한 실정이다¹¹⁷⁾.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당국인 환경부의 국비보조가 1997년 7억원에서 1998년 2억 7,000만원, 1999년에는 1억 8,000만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¹¹⁸⁾, 지방비인 도비 또한 확보가 어려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대로 라면 한라산 국립공원 훼손지의 복구는 앞으로 30년이 걸려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런데 방문객의 증가 및 2차 훼손까지 고려할 경우 훼손지의 복구는 요원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방문객의 의식전환과 더불어 환경

117) 제민일보, 1999 6 24

118)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제공

부 및 제주도 당국의 과감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림 III-7> 훼손지 현황



자료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2. 開發의 潛在力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은 제주 관광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아울러 관광 외적인 주변 환경요인에 따라서도 그 개발의 잠재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한 관광자원의 가치성을 재 인식하여 식생은 물론 독특한 자연성과 경관가치를 잘 정비하고 보전하여 그 자원의 내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관광객들에 대한 흡인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시급한 훼손 방지책의 수립과 훼손지 복구계획 그리고 철저한 관리지침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한라산 국립공원의 개발 잠재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가 다가오는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축으로서 2000년도부터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제주는 동북아로 진입하는 핵심 관문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고,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개방형 도시로 됨에 따라 제주를 왕래하는 사람들의 증가는 물론 대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관광객수의 증가와 아울러 이들에 대한 위락 및 관광공급의 질적·양적 확대가 필연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적절한 자원중의 하나가 한라산 국립공원 일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2002년 월드컵의 제주에서의 개최,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와 제주 유치, 컨벤션센터의 완공으로 인한 국제규모의 회의 유치 등 제주의 위상이 크게 강화됨은 물론 제주관광의 양적 증가가 예견되는 관광환경 변화의 예고이다.

셋째, 현재의 제주관광이 신혼부부 및 외국인 등이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정적인 여행에서 보고 즐기는 동적인 여행으로의 전환,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의 탐바꿈,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가격경쟁력 확보 등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 구축 등 제주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의 활용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80%선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60-70%가 대도시에서 거주하게 되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점차 확산되게 됨으로써

인간의 창조적 욕구로 인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찾고 체험하기 위한 이동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제 자유도시 건설,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구 및 대규모 리조트 개발 등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공항 및 항만 확충과 함께 직항노선 개설 등의 관광여건이 개선된다면 한라산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여섯째, 한라산 자락에서 철따라 펼쳐지는 철쭉제, 유채꽃잔치, 벚꽃잔치, 눈꽃축제, 세계섬문화축제 등과 함께 한라산을 이용하는 등반대회 및 스포츠 대회 등이 펼쳐지게 되면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공간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의 소득증대 및 여가증대로 인하여 해마다 제주도민의 한라산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상의 내적·외적 요인들이 미래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한라산 국립공원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의 중심축으로 적극적인 개발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第 IV 章 漢拏山 國立公園의 利用行態 分析

第1節 調査의 概要

1. 標本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의 조사기간은 1999년 10월 1일부터 동년 10월 6일까지 6 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어리목과 영실코스를 이용한 방문객들은 윗세오름에서 그리고 백록담을 방문한 방문객들에 대해서는 성판악과 관음사코스에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400매를 배포하여 387매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항목이 많은 40매의 설문을 제외하고 347매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2. 設問의 構成

설문은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방문시기·방문횟수·동행자수·방문동기 등 한라산 국립공원의 이용 행태에 관련된 문항이며, 두 번째 부분은 한라산 국립공원의 자원에 대한 인식 및 공원시설 이용상의 만족도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한라산 국립공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그 개발의 내용과 영향 등에 관한 사항들이 조사되었으며, 네 번째 부분에서는 성별·연령별·거주지별 등과 같이 방문객들의 인구통계학적인 사항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의 보호대책에 관한 설문이 포함되어 총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설문을 표로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설문지의 구성

구분	변수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척도유형	비고
국립공원 이용행태	방문시기/방문횟수	3	1~3	명목척도	
	이용한 등하산 코스	2	4	"	
	관련정보의 원천	1	5	"	
	여행기간	1	6	"	
	동행자수 및 동행자관계	1	7~8	"	
	한라산 방문계획여부	1	9	"	
방문동기	1	10	"		
자원인지도 /이용만족 도	국립공원 자원의 잠재가치인지도	4	13	5점척도	점 수 가 록 을 정 적
	공원시설 이용상의 만족도	4	12	"	
관광자원 개발	개발할 관광자원	6	14	5점척도	점 수 가 록 을 정 적
	개발할 관광자원의 영향	12	15~16	"	
	개발우선순위	1	17	명목척도	
	개발주체	1	18	"	
방문객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	성별/연령/거주지역/최종학력 직업/소득 등	6	19~25	명목척도	
기타	보호대책	6	11	5점척도	점 수 가 록 을 정 적



3. 分析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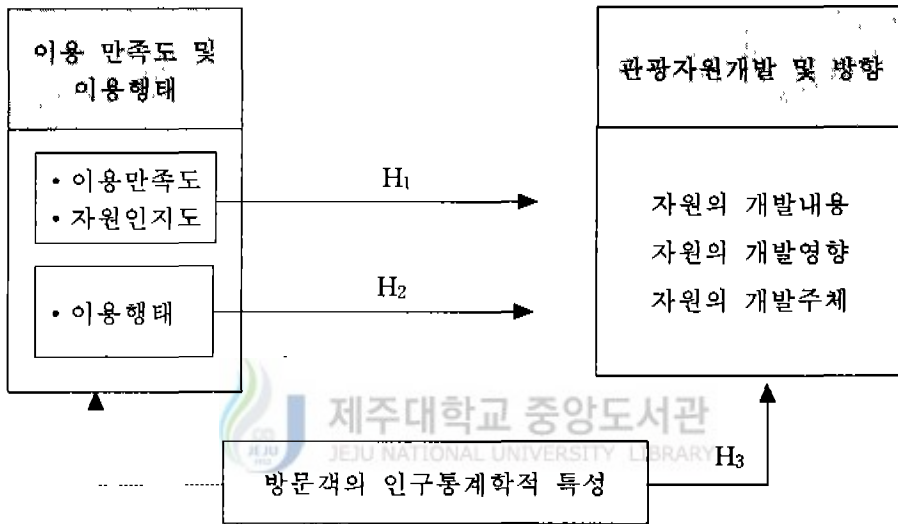
본 실증분석은 사회과학 통계패키지(SPSS for Windows Release 7.5)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국립공원 이용행태, 국립공원에 대한 인지도, 이용상의 만족도 그리고 새로운 관광시설에 대한 의견에 따라 국립공원개발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 교차분석 및 T-test 그리고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고, 특히 ANOVA분석시에는 Scheffe(0.05)를 통한 사후검증을 하였으며, 기타 자료의 일반적 분석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第2節 研究模型 및 研究假說

1. 研究模型

<그림 IV-1> 연구모형



2. 假說의 設定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국립공원 방문객의 이용만족도 및 자원인지도에 따라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의견은 다를 것이다.

1-1) 국립공원 방문객의 이용만족도에 따라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의견은 다를 것이다

1-2) 국립공원 방문객의 자원인지도에 따라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의견은 다를 것이다.

가설2) 국립공원 이용행태에 따라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것이다.

가설3) 방문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것이다.

3. 操作的 定義

본 실증분석에 이용된 주요 변수의 범위 및 내용 등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국립공원 방문객의 이용만족도

종속변수로 이용된 국립공원의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지각정도를 방문객의 만족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 편의시설, 등산안내시설, 자연보호시설 및 기반시설 등 4개 문항을 통해 국립공원 시설의 이용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이용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양분하였다. 두 집단의 구분기준은 5점 리커트스케일에서 중간인 3점을 기준으로 3점보다 낮은 점수는 이용만족도가 낮은 집단으로 그리고 3점보다 높은 점수는 이용만족도가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② 국립공원 방문객의 자원인지도

국립공원 방문객의 자원인지도는 자연자원인 경관자원·환경자원·동식물 및 인문자원에 대하여 4개 항목을 통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관광자원에 대한 잠재가치로서의 인지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국립공원 시설의 이용만족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3점을 기준으로 하여 인지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양분하였다.

③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

국립공원의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것은 자원의 개발내용, 자원의 개발영향 및 자원의 개발주체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자원의 개발내용은 한라산 국립공원의 자원가치 및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들 중에서 논자가 임의로 선택한 스키장·산악자전거도로·케이블카·야영장·자연학습시설과, 한라산 눈꽃축제·철쭉제·등반대회 등의 각종 행사가 열리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개발의 영향은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역시 5점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④ 국립공원의 이용행태

국립공원의 이용행태 변수는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하기에 적합한 계절, 관광개발시 어느 계절에 맞는 자원의 개발을 더 선호하는지(계절형 자원), 한라산 방문횟수, 등하산 코스, 동행자수, 동행자와의 관계 그리고 국립공원의 방문동기 및 제주 여행기간과 여행스케줄에 등반계획의 포함여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제주여행 기간은 1박2일, 2박3일 그리고 3박4일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정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직업 등이 분석에 포함되었는데, 이중 연령은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이상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거주지역은 제주도내와 제주도외로 구분하였으며, 직업은 자영업자, 회사원, 공무원 및 전문직, 주부 및 학생 그리고 기타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4. 資料의 特性 및 國立公園의 利用

1)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실증분석 자료의 특성은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는 347명인데, 이중 남성이 68.6%로 여성보다 많이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8.0%로 가장 많으며, 이어 30대 및 40대의 연령층도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관광객이 59.1%로 도내방문객보다 많았으며, 학력은 대학재학중이거나 졸업인 경우가 60.2%로 주류를 이루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46.4%로 다른 직업보다 많이 나타났다.

한편 한라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단위로 구분했을 때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51-100만원 사이가 37.5%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인다

<표 IV-2> 응답자의 특성

구분		빈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누적백분률
성별	남성	238	68.6	68.6	68.6
	여성	109	31.4	31.4	100.0
연령	19세 이하	36	10.4	10.4	10.4
	20-29세	132	38.0	38.0	48.4
	30-39세	93	26.8	26.8	75.2
	40세 이상	86	24.8	24.8	100.0
현재 거주지역	제주도내	142	40.9	40.9	40.9
	제주도외	205	59.1	59.1	100.0
학력	고등학교(재)졸이하	105	30.3	31.0	31.0
	대학교(재)졸	209	60.2	61.7	92.6
	대학원(재)졸이상	25	7.2	7.4	100.0
직업	자영업자	27	7.8	7.8	7.8
	회사원	161	46.4	46.4	54.2
	공무원/전문직	41	11.8	11.8	66.0
	주부/학생	79	22.8	22.8	88.8
	기타	39	11.2	11.2	100.0
합계		347	100.0	100.0	100.0

2) 국립공원의 이용만족도 및 자원인지도

국립공원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질 수 있는 대안을 서술하고 이에 대하여 공원방문객들이 어느 정도 자연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지각정도를 설문한 결과 <표 IV-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언급된 대책중 국립공원의 자연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휴식년제의 시행으로 응답자의 60.2%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음은 등반전에 방문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58.1%), 새로운 대체코스 개발(45.0%), 안내요원의 확충(42.8%) 등의 순이었으며, 대책중 효과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3> 자연보호대책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

구분	전혀효과없다		효과없다		보통이다		효과적이다		매우효과적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새로운 대체 코스개발	45	13.5	35	10.5	104	31.1	75	22.5	75	22.5
안내요원의 확충	37	11.1	48	14.5	105	31.6	69	20.8	73	22.0
시간적/공간적 분산/제한	33	10.0	35	10.6	125	37.8	76	23.0	62	18.7
등반전 정보제공	19	5.8	26	8.0	92	28.1	84	25.7	106	32.4
휴식년제의 시행	21	6.4	25	7.6	84	25.7	71	21.7	126	38.5
이용시설의 설치	104	30.9	31	9.2	70	20.8	40	11.9	92	27.3

공원내의 편의시설 등 각종시설의 이용만족도는 <표 I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장실, 휴게실, 공중전화 등이 포함된 편의시설의 만족정도는 전체응답자의 32.2%였고, 안내소나 표시판 등 등산안내시설에 대한 만족비율은 40.2%, 생태계보호시설, 쓰레기처리장 등의 자연보호시설 45.1%, 그리고 진입도로, 야영시설, 전망시설, 등산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44.0%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원시설의 불만족 정도를 보면, 편의시설의 불만족비율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자연보호시설, 등산안내시설, 기반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 공원시설의 이용만족도

구분	매우불만이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편의시설	40	11.6	60	17.4	134	38.8	70	20.3	41	11.9
등산안내시설	14	4.1	55	15.9	137	39.7	84	24.3	55	15.9
자연보호시설	22	6.4	55	16.0	112	32.6	89	25.9	66	19.2
기반시설	22	6.4	41	12.0	129	37.6	97	28.3	54	15.5

한라산 국립공원에 내재한 각종 자원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공원방문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표 IV-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곡, 분화구, 기암절벽, 동굴, 오름 등과 같은 경관자원(75.1%)과 날씨, 물, 공기 등 환경자원(75.1%)이 가장 잠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았고, 다음은 조류나 노루, 구상나무, 철쭉 등 각종 동식물(71.3%)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찰 등 인문자원은 41.6%

의 비율을 얻어 상대적으로 잠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관광자원으로서 잠재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동식물, 경관자원, 환경자원 등이 모두 10% 이내이며, 인문자원은 17%로 상대적으로 잠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IV-5>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가치

구분	전혀없다		없는편이다		보통이다		큰편이다		매우크다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동·식물	8	2.3	16	4.6	75	21.7	110	31.9	136	39.4
경관자원	6	1.7	13	3.8	67	19.4	102	29.6	157	45.5
인문자원	9	2.6	49	14.4	141	41.3	86	25.2	56	16.4
환경자원	5	1.4	15	4.3	65	18.8	91	26.4		48.7

3) 국립공원의 이용행태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하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은 <표 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을(6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중 20.5%는 봄이 가장 적합한 계절이라고 응답하였고, 13.8%는 겨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여름은 4.9%에 불과하였다. 특히 본 설문조사가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겨울에도 산행을 희망하는 공원방문객이 상당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V-6> 방문하기에 적합한 계절

구분	빈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누적백분률
봄	67	19.3	20.5	20.5
여름	16	4.6	4.9	25.4
가을	199	57.3	60.9	86.2
겨울	45	13.0	13.8	100.0
소계	327	94.2	100.0	100.0
무응답	20	5.8	0.0	0.0
합계	347	100.0	100.0	100.0

한편 <표 IV-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계절중 관광개발을 할 경우 그 대상계절을 설문한 결과, 가을(30.7%)과 봄(29.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이 시기에 적합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으며, 여름이나 겨울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7> 계절형 자원의 개발

구분	빈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누적백분률
봄	97	28.0	29.2	29.2
여름	54	15.6	16.3	45.5
가을	102	29.4	30.7	76.2
겨울	79	22.8	23.8	100.0
소계	332	95.7	100.0	100.0
무응답	15	4.3	0.0	0.0
합계	347	100.0	100.0	100.0

한라산 국립공원 방문객들은 주로 초행보다는 2회 이상 방문한 경우가 많았다. 즉, 1회 방문한 경우는 전체의 34.3%이었으나, 2회 이상 방문한 비율은 65.6%로 월등히 많게 나타났다. 특히 4회 이상 한라산을 방문한 경우도 전체의 32.6%에 달하고 있어 재 방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한라산 방문횟수

구분	빈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누적백분률
1회	119	34.3	34.3	34.3
2-3회	115	33.1	33.1	67.4
4회이상	113	32.6	32.6	100.0
합계	347	100.0	100.0	100.0

이들 한라산 국립공원 방문객들은 거의 절반이 등산시에는 어리목코스(53.6%)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은 영실과 성판악 순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코스가 상대적으로 지루하고 긴 관음사 코스의 이용은 전체의 2.5%에 불과해 많은 방문객이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IV-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산코스로는 영실코스(45.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어리목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성판악코스나 관음사코스도 하산코스로서 일부 방문객에 의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9> 등산코스

구분	빈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누적백분률
성판악	65	18.7	20.2	20.2
어리목	172	49.6	53.6	73.8
영실	76	21.9	23.7	97.5
관음사	8	2.3	2.5	100.0
소계	321	92.5	100.0	100.0
무응답	26	7.5	0.0	0.0
합계	347	100.0	100.0	100.0

<표 IV-10> 하산코스

구분	빈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누적백분률
성판악	34	9.8	10.5	10.5
어리목	108	31.1	33.2	43.7
영실	149	42.9	45.8	89.5
관음사	34	9.8	10.5	100.0
소계	325	93.7	100.0	100.0
무응답	22	6.3	0.0	0.0
합계	347	100.0	100.0	10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공원 방문객들이 한라산을 방문하기 전에 국립공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 원천은 친구나 친척 등 주변인에 의한 영향(48.7%)이 매우 큼을 알 수 있고, 그 외 대중매체나 여행관련기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V-11> 국립공원의 방문전 관련정보원

구분	빈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누적백분률
친구/친척 등 주변사람	164	47.3	48.7	48.7
대중매체	74	21.3	22.0	70.6
여행관련기관	39	11.2	11.6	82.2
컴퓨터통신	20	5.8	5.9	88.1
기타	40	11.5	11.9	100.0
소계	337	97.1	100.0	100.0
무응답	10	2.9	0.0	0.0
합계	347	100.0	100.0	100.0

공원방문객들이 제주를 여행하는 기간은 <표 IV-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박3일 (64.5%)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박2일이 20.5%, 3박4일 이상이 15.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IV-12> 제주여행기간

구분	빈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누적백분률
1박2일	41	11.8	20.5	20.5
2박3일	129	37.2	64.5	85.0
3박4일 이상	30	8.6	15.0	100.0
소계	200	57.6	100.0	100.0
무응답	147	42.4	0.0	0.0
합계	347	100.0	100.0	100.0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주로 11명 이상(66.0%)과 같이 단체가 많으며, 4명 이하(18.5%)와 같이 소규모 집단의 방문객은 전체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3> 한라산 방문시 동행자수

구분	빈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누적백분률
4명 이하	63	18.2	18.5	18.5
5명-10명	53	15.3	15.5	34.0
11명 이상	225	64.8	66.0	100.0
소계	341	98.3	100.0	100.0
무응답	6	1.7	0.0	0.0
합계	347	100.0	100.0	100.0

한편,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주로 일반단체(43.5%)가 가장 많고, 친구(27.0%) 등과 오는 경우가 다음을 차지하며, 가족 및 친지와 함께 오는 경우는 10.8%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표 IV-14> 동행자와의 관계

구분	빈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누적백분률
가족 및 친지	36	10.4	10.8	10.8
친구	90	25.9	27.0	37.8
일반단체	145	41.8	43.5	81.4
기타	62	17.9	18.6	100.0
소계	333	96.0	100.0	100.0
무응답	14	4.0	0.0	0.0
합계	347	100.0	100.0	100.0

국립공원 방문객들이 여행전에 여행스케줄에 동반계획을 포함한 경우가 응답자중의 84.8%를 차지해 대부분이었으며,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는 15.2%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국립공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IV-15> 여행스케줄에 한라산 동반계획 포함여부

구분	빈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누적백분률
포함됨	178	51.3	84.8	84.8
포함안됨	32	9.2	15.2	100.0
소계	210	60.5	100.0	100.0
무응답	137	39.5	0.0	0.0
합계	347	100.0	100.0	100.0

<표 IV-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하게 된 주요동기는 등반욕구가 3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행코스에 포함되거나 주변인들의 권유가 동기가 되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표 IV-16> 한라산 국립공원의 방문동기

구분	빈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누적백분률
주변인의 권유	45	13.0	13.2	13.2
등산선호	86	24.8	25.3	38.5
한라산등반욕구	113	32.6	33.2	71.8
여행코스에 포함	66	19.0	19.4	91.2
기타	30	8.6	8.8	100.0
소계	340	98.0	100.0	100.0
무응답	7	2.0	0.0	0.0
합계	347	100.0	100.0	100.0

4) 관광자원의 개발방향

국립공원 한라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이와 관련된 관광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시설물 종류에 따라 찬반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표 IV-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대비율이 가장 높은 관광시설물은 스키장으로 전체응답자의 63.8%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적극반대가 48.8%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연학습시설(8.2%)이나 각종행사(10.4%)에 대한 반대는 적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의견을 보면, 자연학습시설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각종 행사, 야영장, 산악자전거 도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7> 관광시설의 개발에 대한 의견

구분	적극반대		반대한다		보통이다		찬성한다		적극찬성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스키장	166	48.8	50	14.7	47	13.8	27	7.9	50	14.7
산악자전거도로	77	22.4	48	14.0	69	20.1	71	20.6	79	23.0
케이블카	127	36.9	34	9.9	63	18.3	45	13.1	75	21.8
야영장	51	15.0	38	11.1	93	27.3	79	23.2	80	23.5
자연학습시설	15	4.4	13	3.8	56	16.3	99	28.9	160	46.6
각종행사	27	7.8	9	2.6	69	20.0	81	23.5	159	46.1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등 관광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심각정도를 설문한 결과, <표 IV-1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관광시설물중 자연보호에 가장 부정적인 것은 스키장(75.2%)이며, 도움이 된

다는 의견은 9.4%에 불과하였다. 다음은 케이블카(59.2%), 산악자전거 도로(4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보호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는 자연학습시설이 가장 높은 49.7%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각종 행사가 37.5%를 각각 나타냈다

<표 IV-18> 관광개발이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구분	부정적이다		부정적인편		보통이다		도움되는편		매우도움된다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스키장	192	56.0	66	19.2	53	15.5	17	5.0	15	4.4
산악자전거도로	93	27.0	63	18.3	129	37.4	36	10.4	24	7.0
케이블카	142	41.6	60	17.6	76	22.3	30	8.8	33	9.7
야영장	73	21.3	67	19.5	134	39.1	44	12.8	25	7.3
자연학습시설	27	7.8	27	7.8	119	34.6	96	27.9	75	21.8
각종행사	37	10.8	41	11.9	137	39.8	70	20.3	59	17.2

한편, 관광개발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 외에 방문객 증가와 같은 관광산업에 대한 기여 정도를 보기 위해 관광개발이 방문객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는 <표 IV-1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방문객 증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로는 각종행사(75.0%)가 열리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다음은 자연학습시설로 72.4%를 차지하였다. 또한 케이블카, 야영장, 스키장 등 대부분의 관광시설이 방문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IV-19> 관광개발이 방문객 증가에 미치는 영향

구분	매우감소		감소한다		보통이다		증가한다		매우증가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스키장	37	10.8	26	7.6	71	20.8	105	30.7	103	30.1
산악자전거도로	19	5.5	26	7.6	114	33.1	102	29.7	83	24.1
케이블카	31	9.1	16	4.7	74	21.6	92	26.9	129	37.7
야영장	13	3.8	16	4.7	99	28.9	119	34.8	95	27.8
자연학습시설	9	2.6	12	3.5	74	21.5	118	34.3	131	38.1
각종행사	14	4.1	9	2.6	63	18.3	111	32.3	147	42.7

그리고 우선적으로 설치했으면 하는 관광시설은 자연학습시설(64.2%)이었으며, 다음은 야영장, 케이블카, 산악자전거도로, 스키장, 기타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이러한 관광시설물을 개발하는데 주체가 어느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설문한 결과 <표 IV-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3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정부와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기업체나 국내외 대기업이 관광개발의 주체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0> 적합한 개발주체

구분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누적백분율
중앙정부	50	14.4	15.6	15.6
지방자치단체	101	29.1	31.5	47.0
도내기업체	15	4.3	4.7	51.7
국내외대기업	9	2.6	2.8	54.5
주민구성 법인체	48	13.8	15.0	69.5
정부+민간	98	28.2	30.5	100.0
소계	321	92.5	100.0	100.0
무응답	26	7.5	0.0	0.0
합계	347	100.0	100.0	100.0

5) 제주도민의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한 의식

설문응답자중 40.9%인 142명이 제주도내에 거주한 것으로 답하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라산 국립공원내의 각종 자원에 대한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즉, 동식물 자원은 76.4%가 잠재적가치가 큰 것으로 보았고, 경관자원은 72.5%, 인문자원은 44.3%, 환경자원은 76.6%로 각각 나타났다. 이중 인문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다른 자원의 잠재적 가치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도민들이 방문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한 계절은 가을이 65.1%를 차지한 반면, 여름은 3.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대상의 계절은 봄이 32.8%로 가장 높고, 이어 가을 27.6%, 겨울 23.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계절에 따라 대체로 분산된 의견이 나타났다

도내 거주자들이 한라산 국립공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광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찬반의견의 결과를 보면, 스키장은 55%가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은 29.3%에 불과하다. 산악자전거도로의 설치에 대해서는 44.3%가 반대하고 있고 찬성은 37.1%로 나타났으며, 케이블카는 57.1%가 반대하고 있고 26.4%가 찬성하고 있다.

한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찬성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은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그리고 국립공원내에서의 눈꽃축제 등과 같은 각종 행사 등인데, 야영장은 54.3%가 찬성하고, 자연학습시설은 74.1% 그리고 각종행사는 70%가 각각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시설물들이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스키장(71.4%)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다음은 케이블카(71.2%), 산악자전거도로(55.3%), 야영장(34.5%)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자연학습시설(12.1%)이나 각종행사(22.9%)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자연학습시설은 47.1%, 각종행사는 32.9%로 각각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관광시설물의 설치나 각종행사의 개최가 방문객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각종행사의 개최가 73.8%로 가장 높고, 다음은 자연학습시설(72.1%), 야영장(63.3%) 스키장(63.1%), 케이블카(61.3%)의 순으로 방문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이 한라산 국립공원에 가장 먼저 설치했으면 하는 시설은 자연학습시설로 35.8%였으며, 다음은 야영장(23.9%), 스키장 및 케이블카(각각 13.1%), 산악자전거도로(11.2%), 기타(3.0%)의 순으로 나타났고, 설치의 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34.1%)나 정부와 민간의 협력형태(26.4%)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기업체(8.6%)나 중앙정부(11.6%)는 개발주체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제주도민들의 한라산 방문행태를 보면, 등하산 코스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은 어리목코스였으며, 동행자수는 4명이하(30.7%)보다는 대체로 11명 이상(43.1%)과 같은 그룹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주로 친구사이(47.9%)인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第3節 假說의 檢證

1. 利用滿足度 및 資源認知度

1) 국립공원 방문객의 이용만족도와 관광자원 개발

<가설1>은 국립공원 방문객의 이용만족도 및 자원인지도에 따라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의견이 다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표 IV-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편의시설, 등산안내시설, 자연보호시설 및 기반시설에 만족한 방문객과 불만족한 방문객간에 관광자원의 설치, 자연보호에 대한 영향, 방문객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광개발주체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한 결과이다.

즉, 국립공원이용에 만족한 방문객과 그렇지 못한 방문객간에 관광자원설치에 대한 의견이 다른지를 검증한 결과, 관광시설물중 자연학습시설 및 각종 행사의 유치에 대해 두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국립공원이용에 만족한 방문객은 자연학습시설에 대한 평균치가 4.22를 나타낸 반면, 불만족자는 3.97를 나타냈고, 행사의 유치에 대해서는 만족자가 4.18, 불만족자가 3.77를 각각 나타내 불만족자보다 만족한 방문객들이 관광시설의 설치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보호 영향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이용에 만족한 방문객과 그렇지 못한 방문객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고, 방문객 증가에 대해서는 스키장과 자연학습시설 그리고 각종행사에 대하여 서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국립공원 이용에 만족한 방문객이 불만족한 방문객보다 스키장시설(3.75), 자연학습시설(4.44), 그리고 각종 행사(4.21)로 인하여 방문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관광개발 주체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에 만족한 방문객이나 불만족한 방문객간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1> 국립공원의 이용만족도에 따른 관광개발에 대한 견해차이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t값	-0.636	-1.364	-0.950	-0.932	-2.124**	-3.174***
	df.	333	337	337	334	336	338
	p.	0.525	0.174	0.343	0.352	0.034	0.002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t값	-0.675	-0.626	0.315	-1.567	-1.184	-1.888*
	df.	335	333	334	336	337	337
	p.	0.500	0.532	0.753	0.118	0.237	0.060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t값	-1.977**	-1.164	-1.594	-1.628	-2.292**	-2.317**
	df.	335	337	335	335	337	337
	p.	0.049	0.245	0.112	0.104	0.023	0.021
관광개발주체		$\chi^2=9.029$		df=5		Sig.=0.108	

주) * p<0.1, ** p<0.05, *** p<0.01

2) 국립공원 방문객의 자원인지도와 관광자원개발

동식물, 경관자원, 인문자원, 환경자원 등 국립공원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서 인지하고 있는 방문객과 그렇지 않은 방문객을 구분하여 이들 집단간에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지각정도를 설문한 결과 <표 IV-2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이들 집단간에 관광시설물의 설치 찬반에 대한 의견은 국립공원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인지하고 있는 방문객이나 그렇지 않은 방문객간에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 서로 견해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종행사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차이를 보였다. 즉, 국립공원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방문객들(408)은 그렇지 않은 방문객들(351)보다 각종 행사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자연보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케이블카와 자연학습시설, 그리고 각종행사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관광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방문객들이 각각 2.35, 3.56, 3.30을 나타내 그렇지 않은 방문객들의 평균치 1.96, 3.18, 2.88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연보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방문객의 증가에 대한 지각정도를 보면 모든 관광시설물에 대해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방문객들은 그렇지 않은 방문객들보다 스키장(3.73), 산악자전거도로(3.67), 케이블카(3.93), 야영장

(3.88), 자연학습시설(4.11) 그리고 각종행사(4.19) 등이 모두 방문객 증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지각하고 있다.

한편, 관광개발 주체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인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2> 관광자원 인지도에 따른 관광개발에 대한 견해차이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t값	1.066	-1.328	-0.554	0.835	-1.915*	-3.016***
	df	332	336	85	333	335	74
	p.	0.287	0.185	0.581	0.404	0.056	0.004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t값	1.564	-0.510	-2.294**	-0.595	-2.275**	-2.503**
	df	334	336	90	335	336	336
	p	0.119	0.610	0.024	0.552	0.024	0.013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t값	-2.789***	-2.204**	-4.156***	-3.500***	-3.273***	-3.413***
	df	73	336	334	335	337	70
	p.	0.007	0.028	0.000	0.001	0.001	0.001
관광개발주체		$\chi^2=4.267$		df=5		Sig.=0.512	

주) * p<0.1, ** p<0.05, *** p<0.01

2. 國立公園의 利用行態 및 觀光資源 開發

<가설2>는 국립공원 이용행태에 따라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지각이 다른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먼저 방문에 적합한 계절, 개발에 적합한 계절, 방문횟수, 등하산코스, 동행자수, 동행자관계 그리고 여행동기 등 국립공원의 이용행태에 따라 국립공원의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합한 방문계절에 따라 케이블카의 설치 및 자연보호에 대한 영향정도에 대한 지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봄이 방문하기 적합한 계절이라고 한 방문객(3.00)들이 다른 계절이 방문하기 적합한 계절이라고 응답한 방문객들보다 케이블카의 설치를 더 긍정적으로 보았고,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도 겨울이 방문하기 적합하다는 방문객들이 다른 계절을 방문계절로 선호하는 방문객들보다 케이블카가 자연보호에 더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가장 강하게 하고 있다.

<표 IV-23> 적합한 방문계절과 관광자원의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F 비	0.871	2.558*	2.898**	0.768	0.606	0.169
	df.	3/316	3/320	3/321	3/317	3/319	3/321
	p.	0.457	0.055	0.035	0.513	0.611	0.917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F 비	1.265	1.819	4.673***	1.182	0.443	0.005
	df.	3/321	3/321	3/317	3/319	3/320	3/320
	p.	0.286	0.143	0.003	0.317	0.722	1.000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F 비	0.981	0.567	1.311	0.906	0.825	0.394
	df.	3/318	3/320	3/318	3/318	3/320	3/320
	p.	0.402	0.637	0.271	0.438	0.481	0.757
관광개발주체		$\chi^2=12.517$		df.=15		Sig.=0.640	

주) * p<0.1, ** p<0.05, *** p<0.01

<표 IV-24>는 우선적으로 개발을 선호하는 계절이 어느 계절인가에 따라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지각이 다른지를 검증한 결과이다.

케이블카의 설치와 방문객의 증가에 케이블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개발에 적합한 계절이 여름이라고 응답한 방문객(3.34)이 가을이나 겨울이라고 응답한 방문객보다 케이블카의 설치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방문객의 증가에도 개발에 적합한 계절이 가을이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한편, 케이블카를 제외한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및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관광시설의 설치나 자연보호, 방문객의 증가 및 관광개발주체에 대한 지각정도가 다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4> 계절형 관광자원의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F 비	0.172	0.432	3.613**	2.395*	1.442	2.206*
	df	3/322	3/325	3/325	3/322	3/324	3/326
	p.	0.916	0.730	0.014	0.068	0.231	0.087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F 비	0.517	2.513*	1.644	1.354	0.362	0.093
	df	3/326	3/326	3/322	3/324	3/325	3/325
	p.	0.671	0.058	0.179	0.257	0.780	0.964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F 비	0.535	0.702	3.020**	1.445	0.969	0.712
	df	3/325	3/326	3/325	3/324	3/326	3/326
	p	0.659	0.551	0.030	0.230	0.408	0.545
관광개발주체		$\chi^2=16.357$		df=15		Sig.=0.359	

주) * p<0.1, ** p<0.05, *** p<0.01

한라산 국립공원의 방문횟수에 따라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각정도가 다른지 검증한 결과, <표 IV-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등에 대한 의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산악자전거도로의 설치에 첫방문인 방문객(3.31)이 더 찬성하고 있으며, 케이블카의 설치에 4회 이상 자주 방문하는 방문객(2.21)보다는 한번(2.85)이나 2~3회(3.10) 방문한 경우에 더 찬성하고 있어, 국립공원의 방문횟수가 적을수록 케이블카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또한 야영장의 설치에 4회 이상(3.60)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한 방문객이 첫 방문(3.15)이나 2~3회 방문(3.12)한 방문객보다 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한편, 관광시설물의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방문횟수에 따라 케이블카의 영향에 대한 지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처음 한라산을 방문한 방문객(2.44)이 4회 이상 방문한 방문객(2.02)보다 케이블카 설치가 자연보호에 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타 시설이 방문객의 증가나 관광개발주체에 대한 지각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IV-25> 방문횟수와 관광자원의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 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 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F 비	2.953*	4.126**	10.138***	4.594**	0.371	0.534
	df.	2/337	2/341	2/341	2/338	2/340	2/342
	p.	0.054	0.017	0.000	0.011	0.690	0.586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F 비	1.857	2.170	3.160**	2.324*	0.058	0.481
	df.	2/340	2/342	2/338	2/340	2/341	2/341
	p.	0.158	0.116	0.044	0.099	0.944	0.618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F 비	1.169	0.516	1.272	2.418*	0.581	0.604
	df.	2/339	2/341	2/339	2/339	2/341	2/341
	p.	0.312	0.597	0.282	0.091	0.560	0.547
관광개발주체		$\chi^2=11.458$		df=10		Sig=0.323	

주) * p<0.1, ** p<0.05, *** p<0.01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등산코스에 따라 구분하고, 이들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지각정도를 조사한 결과, <표 IV-2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산악자전거도로의 설치나 케이블카의 설치에 대해 이용하는 등산코스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산악자전거도로는 어리목코스로 등산하는 방문객(293)이 영실코스(259)로 등산하는 방문객보다 덜 부정적이며, 케이블카의 설치에 영실코스(226)로 등산하는 방문객보다 어리목(293)이나 성판악(316)으로 등산하는 방문객들이 케이블카의 설치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는 이들 코스가 영실코스보다 지루하고 긴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연보호에 대한 영향이나 방문객의 증가 그리고 관광개발주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지각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등산코스과 관광자원의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 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 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F 비	1.997	4.265***	5.358***	1.664	0.403	2.075
	df.	3/312	3/314	3/314	3/311	3/313	3/315
	p	0.114	0.006	0.001	0.175	0.751	0.103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F 비	2.510*	1.760	1.119	1.506	0.513	0.922
	df.	3/314	3/315	3/311	3/313	3/314	3/314
	p.	0.059	0.155	0.342	0.213	0.673	0.431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F 비	2.082	2.247*	1.300	1.155	0.275	0.218
	df	3/313	3/314	3/313	3/313	3/314	3/315
	p	0.103	0.083	0.275	0.327	0.844	0.884
관광개발주체		$\chi^2=22.857^*$		df=15		Sig =0.087	

주) * p<0.1, ** p<0.05, *** p<0.01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하산코스에 따라 구분하고, 이들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지각정도를 조사한 결과, 스키장의 설치, 스키장이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케이블카의 설치에 따른 방문객의 증가에 대한 지각에 대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어리목으로 하산하는 방문객(2.66)보다 영실코스로 하산하는 방문객(2.07)이 더 스키장의 설치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스키장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영실코스로 하산하는 방문객(1.70)이 어리목코스로 하산하는 방문객(2.12)보다 더 부정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케이블카의 설치가 방문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성판악으로 하산하는 경우(4.27)가 관음사코스로 하산하는 경우(3.47)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표 IV-27> 하산코스과 관광자원의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F 비	4.097***	0.998	2.497*	2.461*	0.433	0.160
	df.	3/314	3/318	3/318	3/315	3/317	3/319
	p	0.007	0.394	0.060	0.063	0.729	0.923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F 비	3.482**	0.213	1.113	1.301	0.043	0.190
	df.	3/317	3/319	3/315	3/317	3/318	3/318
	p.	0.016	0.888	0.344	0.274	0.988	0.903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F 비	2.232*	0.594	3.765**	1.983	0.539	0.169
	df.	3/317	3/318	3/317	3/317	3/318	3/319
	p.	0.084	0.619	0.011	0.116	0.656	0.917
관광개발주체		$\chi^2=26.621$		df=15		Sig =0.032	

주) * p<0.1, ** p<0.05, *** p<0.01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동행자수에 따라 관광자원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표 IV-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악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케이블카의 설치에 대한 지각과, 산악자전거도로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광개발주체에 대한 지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동행자가 11명 이상과 같은 단체(3.23)가 4명이하(2.86)나 10명이하의 단체(2.68)보다 산악자전거 도로의 설치를 더 찬성하고 있으며, 케이블카의 설치도 11명 이상의 동행자를 가진 방문객이 덜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산악자전거도로의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도 10명 이하의 동행자를 가진 방문객보다는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이 동행자 수에 따라 관광개발주체에 대해서 지각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4명 이하의 동행자가 있는 방문객집단은 정부와 민간(33.3%)이 개발주체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22.8%)나 주민구성법인체(22.8%)가 다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5~10명의 동행자가 있는 방문객집단은 지방자치단체(50.0%)가 관광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 주를 이룬다. 한편, 11명 이상의 동행자가 있는 방문객집단은 정부 및 민간(30.8%)과 지방자치단체(29.4%)가 적합한 개발주체로 보고 있다

<표 IV-28> 동행자수와 관광자원의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 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 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F 비	0.959	3.948**	6.074***	1.261	0.283	0.098
	df	2/331	2/335	2/335	2/332	2/334	2/336
	p.	0.384	0.020	0.003	0.285	0.753	0.906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F 비	1.050	3.518**	2.381*	0.021	0.335	2.247
	df	2/334	2/336	2/332	2/334	2/335	2/335
	p.	0.351	0.031	0.094	0.980	0.715	0.107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F 비	1.332	1.314	1.065	0.654	0.430	0.887
	df	2/333	2/335	2/333	2/333	2/335	2/335
	p	0.265	0.270	0.346	0.521	0.651	0.413
관광개발주체		$\chi^2=23.586^{***}$		df=10		Sig.=0.009	

주) * p<0.1, ** p<0.05, *** p<0.01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동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지각이 달라질 수 있는지 검증한 결과, <표 IV-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키장의 설치에 대해서만 지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친구와 함께온 방문객(271)들이 일반단체로 오는 방문객(2.03)보다 스키장의 설치를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어, 스키장의 설치에 따른 주요 방문객이 친구와 함께오는 방문객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동행자의 관계에 따라 스키장 이외의 관광시설물 설치나 이러한 설치물이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방문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광개발 주체 등에 대한 지각 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IV-29> 동행자관계와 관광자원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 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 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F 비	4.860***	1.323	1.713	1.277	0.990	0.767
	df	3/323	3/326	3/326	3/323	3/325	3/327
	p.	0.003	0.267	0.164	0.282	0.398	0.513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F 비	0.854	2.542*	0.994	0.613	0.105	0.730
	df	3/326	3/327	3/323	3/325	3/326	3/326
	p.	0.465	0.056	0.396	0.607	0.957	0.535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F 비	1.719	0.903	1.421	1.314	1.192	0.410
	df	3/324	3/326	3/324	3/324	3/326	3/326
	p.	0.163	0.440	0.237	0.270	0.313	0.746
관광개발주체		$\chi^2=16.056$		df=15		Sig.=0.378	

주) * p<0.1, ** p<0.05, *** p<0.01

방문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관광자원의 개발에 대한 지각정도가 다른지 검증한 결과, <표 IV-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케이블카의 설치 및 산악자전거도로와 케이블카의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케이블카의 설치에 대해서 방문동기가 한라산 등반욕구(2.78)이거나 여행코스 에 포함(3.39)하는 경우가 등산을 선호(2.16)하는 경우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 하고 있다 또한 여행코스 에 포함(2.83)되어 한라산을 등산하게 된 경우가 등산을 선 호(2.19)하는 경우보다 산악자전거 도로의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덜 부정 적으로 지각하고 있고, 케이블카의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방문 동기가 한라산의 등반욕구(2.36)인 경우와 여행코스 에 포함(2.66)인 경우가 등산선호 (1.84)인 경우보다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0> 방문동기와 관광자원의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 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 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가 대한 의견	F 비	1.589	1.203	5.803***	1.638	0.393	0.884
	df.	4/328	4/332	4/332	4/329	4/331	4/333
	p.	0.177	0.309	0.000	0.164	0.813	0.474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F 비	0.789	2.933**	3.856***	0.737	0.335	0.631
	df.	4/331	4/333	4/329	4/331	4/332	4/332
	p.	0.533	0.021	0.004	0.567	0.854	0.641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F 비	0.468	0.631	1.241	0.772	0.466	0.332
	df.	4/331	4/333	4/331	4/331	4/333	4/333
	p.	0.759	0.641	0.293	0.544	0.760	0.856
관광개발주체		$\chi^2=20.301$		df.=20		Sig.=0.439	

주) * p<0.1, ** p<0.05, *** p<0.01

여행기간 및 여행스케줄에 한라산 국립공원의 포함여부에 따라 국립공원의 관광 자원개발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행기간에 따라 국립공원내에 관광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대하여 지각의 차 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표 IV-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행기간에 따라서는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연보호에 대한 영향 및 방문객의 증가에 대한 지각 그리고 관광개발주체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집단간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케이블카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2박3일 여행하는 방문객(2.33)보다 3박4일(3.17) 여행하는 사람이 케이블카의 설치가 자연보호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방문객 증가에 대해서는 2박3일 여행하는 방문객(4.20)이 3박4일 여행하는 방문객(3.67)보다 각종행사가 방문객을 더 증가시킬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관광개발주체에 대해서는 여행기간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즉, 1박2일 여행하는 단기여행자는 중앙정부(35.1)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정부와 민간(21.6%), 주민구성 법인체(18.9%)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2박3일 여행하는 국립공원 방문객은 정부와 민간(37.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3박4일 이상 제주에 장기체류하는 국립공원방문객은 정부와 민간(24.1%) 및 지방자치단체(24.1%)가 그 주체로써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1> 여행기간과 관광자원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F 비	0.848	0.129	0.372	0.864	1.402	1.995
	df	2/192	2/196	2/196	2/193	2/196	2/197
	p.	0.430	0.879	0.690	0.423	0.249	0.139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F 비	0.358	0.583	4.746**	1.084	0.962	1.365
	df	2/195	2/196	2/195	2/196	2/196	2/196
	p	0.700	0.559	0.010	0.340	0.384	0.258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F 비	0.377	0.691	2.160	1.801	0.960	3.313**
	df	2/193	2/196	2/192	2/195	2/196	2/195
	p.	0.686	0.502	0.118	0.168	0.385	0.038
관광개발주체		$\chi^2=21.380^{**}$		df=10	Sig.=0.019		

주) * p<0.1, ** p<0.05, *** p<0.01

한편 국립공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지각정도를 여행전 한라산 국립공원방문을 계획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본 결과, <표 IV-3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관광시설물의 설치, 방문객의 증가 및 관광개발주체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을

방문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지각차이가 없었으나 자연보호에 대한 지각차이는 나타나고 있다. 즉, 스키장은 여행전에 국립공원 방문을 포함시킨 방문객(1.64)보다는 여행전에 국립공원 방문을 고려하지 않은 방문객(2.22)들이 자연보호에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야영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방문계획을 미리 가진 방문객은 평균 2.45를 나타낸 반면, 한라산 국립공원의 방문계획을 가지지 않은 방문객은 평균 2.94를 나타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표 IV-32> 국립공원의 방문계획여부와 관광자원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t값	-1.700*	0.247	-0.856	-1.577	-0.729	-0.590
	df.	204	207	206	204	206	208
	p	0.091	0.805	0.393	0.116	0.467	0.556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t값	-2.254**	-0.276	-1.265	-2.141**	-1.079	-1.246
	df.	38	207	205	206	206	207
	p.	0.030	0.783	0.207	0.033	0.282	0.214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t값	-0.456	0.186	-0.471	-0.070	0.968	0.293
	df.	204	207	203	206	207	206
	p.	0.649	0.853	0.638	0.944	0.334	0.770
관광개발주체		$\chi^2=4.669$		df.=5		Sig =0.458	

주) * p<0.1, ** p<0.05, *** p<0.01

3. 國立公園 訪問客의 特性과 觀光資源 開發

<가설3>은 방문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지각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성별에 따라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지각차이가 있는 것은 <표 IV-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광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 대부분 통계적인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설치물이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도 남녀간에 차이가 없다. 다만 각종행사가 열리는 것과 이에 따라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3.89)보다 여성(4.15)이 각종행사가 국립공원에서 열리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도 남성(3.09)보다는 여성(3.48)이

더 자연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지각하고 있다.

한편, 방문객의 증가나 관광개발의 주체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성별과 관광자원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t값	0.197	-0.127	-0.435	-0.207	0.678	-1.966**
	df	338	342	342	239	341	257
	p.	0.844	0.899	0.664	0.836	0.498	0.050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t값	1.370	-0.505	-0.095	0.324	0.696	-2.844***
	df	341	343	339	341	342	342
	p.	0.171	0.614	0.924	0.746	0.487	0.005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t값	0.183	-0.587	0.064	-0.449	-1.310	-1.734*
	df	340	342	340	251	342	342
	p.	0.855	0.558	0.949	0.654	0.191	0.084
관광개발주체		$\chi^2=$ 4.111		df.=5		Sig.=0.534	

주) * p<0.1, ** p<0.05, *** p<0.01

연령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지각이 다른지 검증한 결과, <표 IV-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및 야영장의 설치에 대하여 지각 차이가 있으며, 스키장이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각차이가 있고, 관광개발의 주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2.09)와 30대(1.74)의 연령층 보다 10대 이하(3.06)나 40대 이상(2.71)이 스키장의 설치에 더 긍정적인 편이고, 산악자전거도로의 설치에 대해서는 30대(2.74) 및 40대(2.89)의 연령층보다 10대 이하(3.67)나 20대(3.27)의 연령층이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케이블카의 설치에 대해서는 10대(3.36)가 주로 찬성하고 있다. 한편 야영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10대 이하(3.83)가 20대(3.23) 및 30대(3.01)의 연령층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그러나 방문객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별 항목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관광개발의 주체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30대(37.2%)와 40대(43.6%) 이상의 연령층은 지방자치단체가 관

광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20대(36.9%) 및 10대 이하(34.3%)는 정부와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광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4> 연령과 관광자원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F 비	11.203***	4.938***	4.523***	3.816**	0.181	1.613
	df.	3/336	3/340	3/340	3/337	3/339	3/341
	p.	0.000	0.002	0.004	0.010	0.909	0.186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F 비	7.114***	2.384*	1.801	1.150	0.757	0.607
	df.	3/339	3/341	3/337	3/339	3/340	3/340
	p.	0.000	0.069	0.147	0.329	0.519	0.611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F 비	0.896	1.416	0.742	0.588	0.650	0.924
	df.	3/338	3/340	3/338	3/338	3/340	3/340
	p.	0.444	0.238	0.528	0.623	0.584	0.429
관광개발주체		$\chi^2=$	35.156	$df.=$ 15		$Sig.=$ 0.002	

주) * p<0.1, ** p<0.05, *** p<0.01

한라산 국립공원 방문객의 거주지를 제주도내와 도외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간에 관광자원에 대한 지각차이가 있는 지 검증한 결과, <표 IV-3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제주도내 거주자와 도외 거주자간에는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그리고 야영장의 설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지각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의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야영장의 설치가 방문객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지각하고 있다. 그러나 광개발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는 도내인과 도외인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지각차이를 보면, 스키장과 야영장의 설치는 제주도내 거주자(각각 2.54, 3.62)가 도외 거주자(각각 2.05, 3.06)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반면, 산악자전거도로 및 케이블카의 설치는 도외 거주자(각각 3.23, 2.94)가 도내 거주자(각각 2.86, 2.43)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관광시설물의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차이를 보면, 먼저 산악자전거도로의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도의 거주자(2.69)가 도내 거주자(2.28)보다 덜 부정적이었으며, 케이블카의 경우 역시 도의 거주자(2.45)가 도내 거주자(2.02)보다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반면, 야영장이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도내 거주자(2.85)가 도의 거주자(2.52)보다 덜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35> 거주지와 관광자원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t값	2.928***	-2.253**	-2.951***	3.880***	0.877	1.143
	df	273	342	342	339	341	343
	p	0.004	0.025	0.003	0.000	0.381	0.254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t값	1.605	-3.125***	-2.904***	2.629***	0.279	-0.529
	df	341	343	339	308	324	342
	p	0.109	0.002	0.004	0.009	0.780	0.597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t값	0.943	0.496	-0.857	1.993***	0.395	0.861
	df	340	342	283	340	342	342
	p	0.346	0.620	0.392	0.047	0.693	0.390
관광개발주체		$\chi^2=7.579$			df=5	Sig.=0.181	

주) * p<0.1, ** p<0.05, *** p<0.01

국립공원 방문객의 학력과 관광자원 개발간의 관계를 보면, <표 IV-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광시설물 중에는 스키장, 야영장의 설치에 대하여 학력별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야영장의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스키장 설치에 대해 대졸학력의 집단(2.03)보다는 고졸 이하의 집단(2.49)이 덜 부정적이며, 야영장의 설치에 대해서도 대졸학력의 집단(3.40)보다는 고졸 이하의 집단(3.61)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또한 야영장이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도 고졸이하나 대학원졸 이상의 국립공원 방문객들이 대학졸업 학력의 방문객보다 덜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6> 학력과 관광자원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F 비	4.271**	0.372	1.535	5.152***	0.515	2.705*
	df.	2/329	2/333	2/333	2/331	2/333	2/335
	p.	0.015	0.689	0.217	0.006	0.598	0.068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F 비	2.412*	1.291	2.055	3.132**	0.030	0.444
	df.	2/332	2/334	2/330	2/332	2/333	2/333
	p.	0.091	0.276	0.130	0.045	0.971	0.642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F 비	0.020	0.076	0.212	0.443	1.310	0.756
	df.	2/331	2/333	2/331	2/331	2/333	2/333
	p.	0.980	0.927	0.809	0.642	0.271	0.470
관광개발주체		$\chi^2= 7.382$		df.= 10		Sig.= 0.689	

주) * p<0.1, ** p<0.05, *** p<0.01

직업별로 보면, 스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광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직업별 지각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시설물이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차이도 없고 방문객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차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적합한 관광개발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직업별 지각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키장의 설치에 대해서 회사원과 자영업자간에 지각차이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데, 자영업자(3.00)는 스키장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나 회사원(2.01)들은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표 IV-37> 직업과 관광자원 개발

구분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각종행사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F 비	3.563***	0.561	0.802	2.114*	1.756	0.426
	df.	4/335	4/339	4/339	4/336	4/338	4/340
	p.	0.007	0.691	0.525	0.079	0.137	0.790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F 비	1.618	1.294	0.527	1.952	0.181	0.726
	df.	4/338	4/340	4/336	4/338	4/339	4/339
	p.	0.169	0.272	0.716	0.102	0.948	0.574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F 비	0.787	0.928	0.617	0.736	0.690	0.083
	df.	4/337	4/339	4/337	4/337	4/339	4/339
	p.	0.535	0.448	0.651	0.568	0.599	0.988
관광개발주체		$\chi^2= 15.331$		df.= 20		Sig = 0.757	

주) * p<0.1, ** p<0.05, *** p<0.01

第4節 分析結果의 要約

한라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라산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용 시설물의 설치, 대체 코스 개발 등의 여러 가지 대책 중 휴식년제의 시행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자들은 지각하고 있다. 또한 공원내 각종시설의 이용만족도는 자연보호시설(45.1%), 기반시설(44.0%), 등산안내시설(40.2%) 그리고 편의시설(3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라산 국립공원의 각종 자원중 경관자원(75.1%)과 환경자원(75.1%)의 잠재가치가 가장 높고, 이어서 각종 동식물(71.3%)과 인문자원(41.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하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은 가을(60.9%)이며, 관광개발을 할 경우 그 대상 계절로는 가을(30.7%)과 봄(29.2%)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한라산 이용행태를 보면 한라산 국립공원 방문객들은 주로 초행보다는 2회 이상 방문한 경우가 많았고, 방문객의 절반이 동산시에는 어리목코스(53.6%)를 이용하고 하산코스로는 영실코스(45.8%)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주로 2박3일(64.5%) 제주에 머물며, 11명 이상(66.0%)과 같이 단체가 많았다. 또한 이들은 여행전에 여행스케줄에 등반계획을 포함한 경우(84.8%)가 대부분이며,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하게 된 주요동기는 등반욕구(33.2%)가 가장 많고 또한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인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관광시설물의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설문의 조사결과는 관광설치물 중 스키장(63.8%)의 설치에 대하여 가장 반대의견이 많으며, 자연학습시설(8.2%)이나 각종행사(10.4%)에 대한 반대는 적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관광시설물중 자연보호에 가장 부정적인 것은 스키장(75.2%)이고 다음은 케이블카(59.2%), 산악자전거 도로(45.3%) 등의 순이었고, 반면 자연보호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는 자연학습시설(49.7%)과 각종행사(37.5%) 등의 순이었다.

방문객 증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로는 각종 행사(75.0%)가 열리는 것이며 다음은 자연학습시설(72.4%)로 나타났다

관광시설물을 개발하는데 그 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31.5%)가 가장 적합하며, 다

음은 정부와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덧붙여 우선적으로 설치했으면 하는 관광시설은 자연학습시설(64.2%)이었다

한편, 본 논제의 <가설1-1>을 검증한 결과, 국립공원 이용에 만족한 방문객과 그렇지 못한 방문객간에 관광자원 설치에 대한 의견이 다를지 검증한 결과, 관광시설물중 자연학습시설 및 각종 행사의 유치에 대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 자연보호 영향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이용에 만족한 방문객이나 그렇지 못한 방문객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고, 방문객 증가에 대해서는 스키장과, 자연학습시설 그리고 각종 행사에 대하여 서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한편 관광개발 주체에 대해서는 방문객간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가설1-2>를 검증한 결과, 국립공원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인지하고 있는 방문객이나 그렇지 않은 방문객간에 스키장, 산악자전거 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 서로 견해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종행사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 자연보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케이블카와 자연학습시설, 그리고 각종행사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지각차이가 있다. 방문객의 증가에 대한 지각정도는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그리고 각종행사 등 모든 관광시설물에 대해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관광개발 주체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인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설2>를 검증한 결과, 적합한 방문계절에 따라 케이블카의 설치 및 자연보호에 대한 영향정도에 대한 지각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개발에 적합한 계절이 어느 계절인가에 따라 케이블카의 설치와 방문객의 증가에 케이블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이 다르다. 한편 케이블카를 제외한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야영장, 자연학습시설 및 각종행사에 대해서는 관광시설의 설치나 자연보호, 방문객의 증가 및 관광개발 주체에 대한 지각정도가 다르지 않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방문횟수에 따라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 등에 대한 의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광시설물의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방문횟수에 따라 케이블카의 영향에 대한 지각이 다르다.

산악자전거도로의 설치나 케이블카의 설치에 대해 이용하는 등산코스에 따라 통

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하산코스에 따라 스키장의 설치, 스키장이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케이블카의 설치에 따른 방문객의 증가에 대한 지각에 대해 통계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케이블카의 설치가 방문객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의 차이도 있다.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동행자수에 따라 산악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케이블카의 설치에 대한 지각과, 산악자전거도로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광개발 주체에 대한 지각이 서로 다르다.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동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스키장의 설치에 대해서 지각의 차이가 있고, 방문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케이블카의 설치 및 산악자전거도로와 케이블카의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이 다르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스키장 및 야영장은 여행전에 국립공원 방문을 포함시킨 방문객보다는 여행전에 국립공원방문을 고려하지 않은 방문객들이 자연보호에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가설3>을 검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각종행사가 국립공원에서 열리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자연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지각하고 있다.

20대와 30대의 연령층 보다 10대 이하나 40대 이상이 스키장의 설치에 더 긍정적인 편이고, 산악자전거도로의 설치에 대해서는 30대 및 40대의 연령층보다 10대 이하나 20대의 연령층이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케이블카의 설치에 대해서는 10대가 주로 찬성하고 있다 한편 야영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10대 이하가 20대 및 30대의 연령층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관광개발의 주체는 30대와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각하는 반면, 20대 및 10대 이하는 정부와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관광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각한다.

제주도내 거주자와 도외 거주자간에는 스키장,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그리고 야영장의 설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지각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의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야영장의 설치가 방문객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지각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개발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는 도내인과 도외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

스키장 설치에 대해 대졸학력의 집단보다는 고졸 이하의 집단이 덜 부정적이며, 야영장의 설치에 대해서도 대졸학력의 집단보다는 고졸 이하의 집단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또한 야영장이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도 고졸 이하나 대학원졸 이상의 국립공원 방문객들이 대졸졸업 학력의 방문객보다 덜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스키장의 설치에 대해서 회사원과 자영업자간에 지각차이가 있으며, 자영업자는 스키장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나 회사원들은 부정적으로 지각한다

이상의 가설검증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IV-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38> 가설 검증의 요약

가설1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t값)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t값)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t값)	개발주체 (χ^2)
이용만족도	스키장	-0.636	-0.675	-1.977**	9.029
	산악자전거도로	-1.364	-0.626	-1.164	
	케이블카	-0.950	0.315	-1.594	
	야영장	-0.932	-1.567	-1.628	
	자연학습시설	-2.124**	-1.184	-2.292**	
	각종행사	-3.174***	-1.888*	-2.317**	
자원인지도	스키장	1.066	1.564	-2.789***	4.267
	산악자전거도로	-1.328	-0.510	-2.204**	
	케이블카	-0.554	-2.294**	-4.156***	
	야영장	0.835	-0.595	-3.500***	
	자연학습시설	-1.915**	-2.275**	-3.273***	
	각종행사	-3.016***	-2.503**	-3.413***	

가설2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F비)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F비)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F비)	개발주체 (χ^2)
적합한 방문계절	스키장	0.871	1.265	0.981	12.517
	산악자전거도로	2.558*	1.819	0.567	
	캐이불카	2.898**	4.673***	1.311	
	야영장	0.768	1.182	0.906	
	자연학습시설	0.606	0.443	0.825	
	각종행사	0.169	0.005	0.394	
개발에 적합한 계절	스키장	0.172	0.517	0.535	16.357
	산악자전거도로	0.432	2.513*	0.702	
	캐이불카	3.613**	1.644	3.020**	
	야영장	2.395**	1.354	1.445	
	자연학습시설	1.442	0.362	0.969	
	각종행사	2.206*	0.093	0.712	
방문횟수	스키장	2.953*	1.857	1.169	11.458
	산악자전거도로	4.126**	2.170	0.516	
	캐이불카	10.138***	3.160**	1.272	
	야영장	4.594**	2.324*	2.418*	
	자연학습시설	0.371	0.058	0.581	
	각종행사	0.534	0.481	0.604	
등산코스	스키장	1.997	2.510*	2.082	22.857*
	산악자전거도로	4.265***	1.760	2.247*	
	캐이불카	5.358***	1.119	1.300	
	야영장	1.664	1.506	1.155	
	자연학습시설	0.403	0.513	0.275	
	각종행사	2.075	0.922	0.218	
하산코스	스키장	4.097***	3.482**	2.232*	26.621
	산악자전거도로	0.998	0.213	0.594	
	캐이불카	2.497*	1.113	3.765**	
	야영장	2.461*	1.301	1.983	
	자연학습시설	0.433	0.043	0.539	
	각종행사	0.160	0.190	0.169	
동행자수	스키장	0.959	1.050	1.332	23.586***
	산악자전거도로	3.948**	3.518**	1.314	
	캐이불카	6.074***	2.381*	1.065	
	야영장	1.261	0.021	0.654	
	자연학습시설	0.283	0.335	0.430	
	각종행사	0.098	2.247	0.887	
동행자관 계	스키장	4.860***	0.854	1.719	16.056
	산악자전거도로	1.323	2.542*	0.903	
	캐이불카	1.713	0.994	1.421	
	야영장	1.277	0.613	1.314	
	자연학습시설	0.990	0.105	1.192	
	각종행사	0.767	0.730	0.410	
방문동기	스키장	1.589	0.789	0.468	20.301
	산악자전거도로	1.203	2.933**	0.631	
	캐이불카	5.803***	3.856***	1.241	
	야영장	1.638	0.737	0.772	
	자연학습시설	0.393	0.335	0.466	
	각종행사	0.884	0.631	0.332	

가설2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t값/F비)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t값/F비)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t값/F비)	개발주체 (χ^2)
여행기간	스키장	0.848	0.358	0.377	21.380**
	산악자전거도로	0.129	0.583	0.691	
	케이블카	0.372	4.746**	2.160	
	야영장	0.864	1.084	1.801	
	자연학습시설	1.402	0.962	0.960	
각종행사	1.995	1.365	3.313**		
방문계획 여부	스키장	-1.700*	-2.254**	-0.456	4.669
	산악자전거도로	0.247	-0.276	0.186	
	케이블카	-0.856	-1.265	-0.471	
	야영장	-1.577	-2.141**	-0.070	
	자연학습시설	-0.729	-1.079	0.968	
각종행사	-0.590	-1.246	0.293		

가설3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 (t값/F비)	관광시설 설치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 (t값/F비)	관광시설 설치가 방문객증가에 미치는 영향 (t값/F비)	개발주체 (χ^2)
성별	스키장	0.197	1.370	0.183	4.111
	산악자전거도로	-0.127	-0.505	-0.587	
	케이블카	-0.435	-0.095	0.064	
	야영장	-0.207	0.324	-0.449	
	자연학습시설	0.678	0.696	-1.310	
각종행사	-1.966**	-2.844***	-1.734*		
연령	스키장	11.203***	7.114***	0.896	35.156***
	산악자전거도로	4.938***	2.384**	1.416	
	케이블카	4.523***	1.801	0.742	
	야영장	3.816**	1.150	0.588	
	자연학습시설	0.181	0.757	0.650	
각종행사	1.613	0.607	0.924		
거주지	스키장	2.928***	1.605	0.943	7.579
	산악자전거도로	-2.253**	-3.125***	0.496	
	케이블카	-2.951***	-2.904***	-0.857	
	야영장	3.880***	2.629***	1.993***	
	자연학습시설	0.877	0.279	0.395	
각종행사	1.143	-0.529	0.861		
학력	스키장	4.271**	2.412*	0.020	7.382
	산악자전거도로	0.372	1.291	0.076	
	케이블카	1.535	2.055	0.212	
	야영장	5.152***	3.132**	0.443	
	자연학습시설	0.515	0.030	1.310	
각종행사	2.705*	0.444	0.756		
직업	스키장	3.563***	1.618	0.787	15.331
	산악자전거도로	0.561	1.294	0.928	
	케이블카	0.802	0.527	0.617	
	야영장	2.114*	1.952	0.736	
	자연학습시설	1.756	0.181	0.690	
각종행사	0.426	0.726	0.083		

주) * p<0.1, ** p<0.05, *** p<0.01

第 V 章 結 論

한라산 국립공원은 방문객들로 인한 등산로 주변 및 정상부분 등의 훼손과 함께 산사태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훼손지역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방문객들의 의식 전환과 자연공원법이나 산림법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제주도의 다른 지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주도의 중심이자 대표적 관광지로서의 제주의 위상을 지켜주고 있는 만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그러나 관광개발은 자연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연 보존과 관광개발의 양자 편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라산 국립공원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함께 한라산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보호라는 상반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의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한라산의 관광자원 개발 방향 제시 및 이에 대한 정책수립에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관광자원적 측면에서 볼 때 한라산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관광수요 측면에서 볼 때 1998년에 방문객이 55만 명을 상회하였고 도내인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현재의 이용 증가추세가 계속될 경우 2001년도에는 최대 68만 명에 이를 것이다. 더구나 국제자유도시화 및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제주도의 위상변화에 따라 한라산 국립공원의 이용 기회는 매우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라산 방문객의 수용력을 조속히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와 같은 한라산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자원화 개발방향은 무엇보다도 보존지향형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한라산 국립공원의 자원가치를 높게 인식하면서도 관광자원 개발이나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자연훼손의 최소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한라산 국립공원의 가치를 관광적 측면에서 고려할 경우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인 자연보호는 물론 관광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발 방안들이 검

토되어야 한다. 철쭉제 및 한라산 눈꽃축제 등의 행사는 물론 이용객의 분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학습시설 등과 같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설문응답자들 대부분이 자연학습시설의 설치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겠다.

셋째, 지방화 시대에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보다는 지역주민의 역할이 주가 되고, 개발에 대한 편익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개발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미래의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관광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민요와 전설 등의 인문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한라산의 가치증대와 함께 방문객들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 및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훼손지의 조속한 원상복구, 항구적인 보호·보전을 위한 관리인원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확보, 그리고 자연보호를 위한 방문객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사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개괄적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가 공간적으로는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만 행하여졌고 시간적으로는 가을철에 한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가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활성화 방안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조사 수준에 있어서 엄밀성이 떨어지고 문제의 지각적 수준에서 일반적인 실제의 지각수준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나타난 한계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가치 증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參考文獻

1. 國內文獻

- 고동희, “자연보전형 관광지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2.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1995년 가을호 외.
- 김경호, “관광마케팅론” 강의요안, 1997년 2학기.
- _____ · 고승익, 「관광학원론」, 형설출판사, 1999.
- 金光得, 「현대여가론」, 백산출판사, 1990.
- 김문홍, “한국의 아고산대 침엽수림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제주대과학교육, Vol. 3권
- 金文洪, 「濟州植物圖鑑」, 濟州道, 1992.
- 김성기, 「관광자원론」, 기문사, 1997.
- 金安濟, 「地域開發과 地方自治行政」, 大明出版社, 1989.
- 金英模, 「地域開發學概論」, 녹원출판사, 1991.
- 김영섭 · 이영창 · 김신옥, “한국의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정책에 관한 연구” 「행정문집」 제7집, 한양대학교 행정문제 연구소, 1986.
- 김정배, 「관광자원관리」, 형설출판사, 1994.
- 김진섭, 「국민관광학」, 本國文化社, 1978.
- 김창수, “지역관광개발계획과정의 집단간 갈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4.
- 김태연,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한국관광공사, 1995.
- 金太永, 「現代觀光學概論」, 白山出版社, 1997.
- 김홍운 · 김사영, 「관광자원론」, 형설출판사, 1994.
- 大韓國土都市計劃學會, 「地域計劃論」, 형성출판사, 1991.

- 문석기, “구미의 공원 및 여가·레크레이션 환경”, 조경학회지 제3권 제3호, 한국조경학회, 1990.
- 박문규, “국립공원을 생각한다”, 월간 국립공원 제52호, 국립공원 관리공단, 1991.
- 박석희, 「신관광자원론」, 일신사, 1995.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지역개발론」, 박영사, 1997.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한라산 정상 보호계획」,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1997
- 徐台洋, 「觀光資源論」, 大旺社, 1995
- 손대현 외,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일신사, 1995.
- 尹大淳, 「觀光經營學原論」, 白山出版社, 1992.
- 尹陽洙·崔英國, “위락생활 특성과 행태변화에 관한연구”, 「國土研究」, 제12권, 國土開發研究院, 1989.
- 崔鐘先, “五臺山 國立公園의 觀光資源 開發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京畿大學校 大學院, 1993
- 이광원, “지역관광개발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보문관광단지 개발정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6.
- 李長春, “韓國의 福地觀光政策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1985.
- _____, 「관광계획개발론」, 대왕사, 1991.
- _____, 「觀光政策學」, 대왕사, 1993.
- _____, 「최신관광자원학」, 대왕사, 1998.
- 李亢求, 「現代觀光學總論」, 탐구당, 1988.
- _____, 「現代觀光學」, 명보출판사, 1984.
- 이현재,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제24권, 웅진출판사, 1991.
-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0.
- 自然公園法, 1999. 2. 8 법률 제5874호.
- 장성수, “관광정책연구” 강의요안, 1998년 2학기.

- 장절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8.
- 제민일보, 1999 6. 24.
- 濟州道, 「제주실록」, 1997.
- _____, 「한국의 영산, 漢拏山」, 제주도, 1994.
- _____, 「한라산」, 1994.
- 濟州商工會議所, 「1998 濟州經濟現況」, 1998.
- 제주일보, 1999. 7 18.
- _____, 1999 7. 20
- 표성수·장혜숙, 「최신관광계획개발론」, 형설출판사, 1998.
- 한라일보, 1998. 10. 23.
- _____, 1998. 7 25
- 현길언, 「한라산」, 대원사, 1997.

2. 外國文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日本觀光學會, 「月刊觀光」, 제3권 294호, 1992.
- A. Randal 著·李承來·姜世勳 譯, 「資源經濟學」, 法文社, 1986.
- Brain Hackett 著·송보영·황창윤 譯, 「경관계획」, 명보문화사, 1987.
- Charles O. Jones,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2nd ed.,
(Northscituate, Mass : Duxbury Press, 1977)
- C. L. Jenkins & B. M. Henry, "Government Involvement in Tourism in
Developing Countr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9, No.4,
1982).
- Chuck Y. Gee, *The Travel Industry*, (Connecticut : The ATI Publishing Co.,
1984)
- Clare A. Gunn, *Tourism Planning*, (New York · Crame Russak, 1979).

- D. Gets, "Model in Tourism Planning : Towards Integrations of Theory and Practice", *Tourism Management* (Vol 7, No 1, 1986).
- David Barkin, "Regional Socio -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social Development Review* (No.4, 1972), United Nations.
- J. Anderson, *Public Policy Making*, (N. Y. Nolt, 1984)
- James F. Anderson, *Public Policy Making*, (London :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75).
- John Friedman, *Regional Policy*, (Cambridge : The N.I. Press, 1975).
- Lisle L. Mitchell, "Future Directions of Recreation Planning", in S. R. Lieber, et al, eds., *Recre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Pennsylvania : Venture Publishing, 1986).
- M Clawson and J. L. Knetsch, *Economic of Outdoor Recreation*, (Baltimore : Johns Hopkins Press, 1966).
- Manila Declaration on World Tourism, (A)7 · (B)3, Manila, 1980.
- Mill R. C., *Tourism · The International Busines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90).
- P. E. Murphy, *Tourism : A Community Approach*, (N Y : Metheun, 1987).
- R. W. McIntosh & C. R. Goeldner, *Tourism :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New York : John Willey & Sons, 1990).
- York Reginald, *Human Service Planning : Concept, Tools Methods* (N.C : North Carolina University Press, 1982).

設問紙

국립공원 한라산 방문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국내 명산의 하나로서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 바, 향후 관광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문객의 효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문객 여러분의 정성스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익명으로 조사되며, 조사된 자료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만 이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여러분의 즐거운 한라산 방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99년 10월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최 병길교수

연구자: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김 상우

※ 귀하의 생각과 가장 근접한 번호에 ○표나 ✓자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계절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계절은 다음 중 어느 계절입니까?

- ①()봄 ②()여름 ③()가을 ④()겨울

2. 한라산 국립공원의 자원을 개발할 경우 우선적으로 어느 계절에 적합한 것이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봄 ②()여름 ③()가을 ④()겨울

3. 한라산 방문횟수는 이 번이 몇 번째입니까?

- ①()첫 번째 ②()두 번째 ③()세 번째 ④()네 번째 ⑤()5회 이상

4. 귀하께서 이용하신 등·하산 코스는 다음중 어디입니까?

4.1. 등산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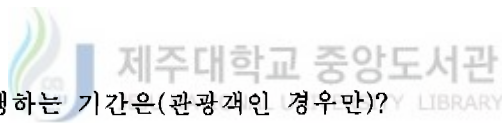
- ①()성판악코스 ②()어리목코스
- ③()영실코스 ④()관음사코스

4.2. 하산코스

- ①()성판악코스 ②()어리목코스
- ③()영실코스 ④()관음사코스

5.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하기 전 관련정보를 가장 많이 얻은 곳은 어디입니까?(1개만)

- ①()친구/친척 등 주변사람 ②()신문/잡지
- ③()텔레비전/라디오 ④()간행물/서적/팜플렛 등
- ⑤()여행사/호텔/공항/관광협회 등 ⑥()PC통신/인터넷
- ⑦()기타



6. 이 번 제주를 여행하는 기간은(관광객인 경우만)?

- ①()1박2일 ②()2박3일 ③()3박4일 ④()4박5일
- ⑤()5박 이상 ⑥()기타(박 일)

7. 한라산 방문에 동반한 동행자는 본인을 포함해 모두 몇 명입니까?

- ①()혼자 왔다 ②()2명 ③()3명 ④()4명
- ⑤()5명~10명 ⑥()11명 이상

8. 한라산 방문에 동반한 동행자들은 주로 본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 ①()가족 및 친지 ②()친구
- ③()일반단체 ④()기타()

9. 여행스케줄에 한라산 등반계획이 사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관광객인 경우만)?

- ①()포함되어 있었다. ②()포함되지 않았다.

10 한라산 국립공원을 방문하게된 주요 동기를 **하나만** 고른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친구 등 주변인의 권유가 있었다
- ②()평소 등산을 좋아한다.
- ③()한라산(백록담)을 꼭 오르고 싶었다.
- ④()여행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 ⑤()기타()

11. 한라산 국립공원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효과없다	매우 효과적이다
11.1. 새로운 대체 코스개발	<--1---2---3---4---5-->	
11.2. 안내요원의 확충	<--1---2---3---4---5-->	
11.3. 방문객의 시간적/공간적 분산/제한	<--1---2---3---4---5-->	
11.4. 방문객에 대한 등반전 정보제공	<--1---2---3---4---5-->	
11.5. 휴식년제의 시행	<--1---2---3---4---5-->	
11.6. 이용시설(케이블카/모노레일 등)의 설치	<--1---2---3---4---5-->	

12 국립공원 한라산을 이용하면서 다음 시설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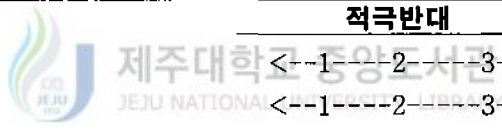
	매우 불만스럽다	매우 만족한다
1. 편의시설 (화장실/휴게실/공중전화 등)	<--1---2---3---4---5-->	
2. 등산안내시설 (안내소/표지판 등)	<--1---2---3---4---5-->	
3. 자연보호시설 (생태계보호시설/쓰레기처리시설 등)	<--1---2---3---4---5-->	
4. 기반시설 (진입도로/야영시설/전망시설/등산로/주차시설 등)	<--1---2---3---4---5-->	

13. 국립공원 한라산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관광자원으로서** 어느 정도 잠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없다	매우크다
1. 동·식물 (조류/노루/구상나무/철쭉 등)	<--1---2---3---4---5-->	
2. 경관자원 (계곡/분화구/기암절벽/동굴/오름 등)	<--1---2---3---4---5-->	
3. 인문자원 (사찰(관음사, 천왕사) 등)	<--1---2---3---4---5-->	
4. 환경자원 (날씨/물/공기 등)	<--1---2---3---4---5-->	

14. 국립공원 한라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다음 사항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적극반대	매우찬성
1. 스키장	<--1---2---3---4---5-->	
2. 산악자전거도로	<--1---2---3---4---5-->	
3. 케이블카	<--1---2---3---4---5-->	
4. 야영장	<--1---2---3---4---5-->	
5. 자연학습시설	<--1---2---3---4---5-->	
6. 각종행사(눈꽃축제, 철쭉제 등)	<--1---2---3---4---5-->	



15. 국립공원 한라산에 다음과 같은 관광자원이 설치된다면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이 훼손된다	자연보존에 도움이된다
1. 스키장	<--1---2---3---4---5-->	<--1---2---3---4---5-->
2. 산악자전거도로	<--1---2---3---4---5-->	<--1---2---3---4---5-->
3. 케이블카	<--1---2---3---4---5-->	<--1---2---3---4---5-->
4. 야영장	<--1---2---3---4---5-->	<--1---2---3---4---5-->
5. 자연학습시설	<--1---2---3---4---5-->	<--1---2---3---4---5-->
6. 각종행사(눈꽃축제, 철쭉제 등)	<--1---2---3---4---5-->	<--1---2---3---4---5-->

16. 국립공원 한라산에 다음과 같은 관광자원이 설치된다면 한라산 **방문객의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감소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1. 스키장	<--1---2---3---4---5-->	<--1---2---3---4---5-->
2. 산악자전거도로	<--1---2---3---4---5-->	<--1---2---3---4---5-->
3. 케이블카	<--1---2---3---4---5-->	<--1---2---3---4---5-->
4. 야영장	<--1---2---3---4---5-->	<--1---2---3---4---5-->
5. 자연학습시설	<--1---2---3---4---5-->	<--1---2---3---4---5-->
6. 각종행사(눈꽃축제, 철쭉제 등)	<--1---2---3---4---5-->	<--1---2---3---4---5-->



17. 국립공원 한라산에 다음과 같은 관광자원이 설치될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되었으면 하는 항목을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스키장
- ②() 산악자전거도로
- ③() 케이블카
- ④() 야영장
- ⑤() 자연학습시설
- ⑥() 기타()

18. 한라산 국립공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주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중앙정부 ②()지방자치단체 ③()도내기업체 ④()국내외 대기업
⑤()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체 ⑥()정부+민간

19. 귀하의 성별은? ①()남성 ②()여성

20. 귀하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19세 이하 ②()20~29세 ③()30~39세
④()40~49세 ⑤()50세 이상

2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 ①()제주도내 ②()제주도외의 국내 ③()국외

22. 귀하의 현재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고등학교(재)졸이하 ②()대학교(재)졸 ③()대학원(재)졸이상

23.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농축수산업 ②()회사원 ③()공무원 ④()전문자유직
⑤()상업/유통업 ⑥()주부 ⑦()학생 ⑧()기타

24. 귀택의 월평균 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50만원 이하 ②()51~100만원 ③()101~150만원
④()151~200만원 ⑤()201~250만원 ⑥()250만원 이상

25. 귀하 본인(1인)의 이번 제주여행에 소요된 총 경비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객인 경우만)

(약 만원)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s of Tourist Attraction in Halla National Park

By Sang-Woo Kim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Byoung - Gill Choi

Tourism development must be reconsidered because of its negative influence such as nature-destruction. So the nature-preserving and harmonizing with the nature are rising as the main issues of tourism development. Especially national parks in Korea have been well preserved so far, but there is another trend to use it in the economic side. At this point, nature-preserving is in conflict with the economic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to develop Halla National Park considering the natural preservation.

To accomplish this purpose, 400 visitors of Mt. Halla were given questionnaires of which 387 were returned of which 347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es.

This study consists of 5 chapters:

- (1) Introduction
- (2) Theoretical Backgrounds : The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 (3) Theoretical Backgrounds : The Status of Tourist Attraction in Halla National Park
- (4) Empirical Researches and Analyses
- (5) Conclusion.

Frequency, T-test, Oneway ANOVA, Cross-tabs (Chi-square: χ^2) and Multiple Response by a statistical package, SPSS for Windows (Release 7.5) were used to analyze each variable.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developing Halla National Park is natural preservation. In future tourist development, the concept of natural preservation must be included.
- (2) There must be regulations or systems to control the tourist development of Halla National Park before the action of development.
- (3) The kinds of tourist facilities to develop must be selected by public opinions, not by the view of government like before.
- (4) There must be educational facilities to grow specialists for managing and preserving the resources from the destruction.
- (5) There must be investment in management and facilities to enhance the value of Mt. Halla.

Limitation to this study is that samples of data were collected only at one national park, Halla National Park, so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have the limits of application. Another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re is no detailed alternative for the development in Halla National Park.